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5월 28일(음력 4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681 호

"불교미술품도 가짜 많다"

이동천 박사 '진상' 출간으로 논란 점화

학계선 "고려불화 등 상당수 위작" 지적

"1000원권 뒷면 그림을 비롯해 서화작품의 90%는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고려불화 등 불교미술품에도 위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동천 박사(서울대 동양화가 작품감정론 강사)는 5월 20일 발간된 <진상-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동아일보사)를 통해 1000원권 지폐에 실린 정선의 '계상정거도'(보물 제585호)와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이 제주시에 기증한 <김정희 편지 모음집>,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신윤복의 '아기 업은 여인' 등이 위작이라 밝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박사는 "불화 등 불교미술품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이미 불교미술학계에는 "유통되는 고려불화 등 불교미술품 상당수가 위작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정우택 교수(동국대)는 "10억원을 호가하는 고려불화는 국내 소장이 적고 일반인들에게 낯설어 위작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명대 교수(前 동국대)는 "시중의 불교미술품 90%가 가짜"라고 단정했다. 1만여건 이상의 문화재를 감정했다는 문 교수는 "소위원회 등을 거쳐 박물관 등 기관이 매입하는 경우는 위작이 드물지만 개인 소장품은 심각하다. 1년에 100건을 감정한다면 진품은 2, 3건도 되지 않는다. 불화, 불서, 불상 불교미술 전 분야를 통틀어 가짜가 없는 분야는 없다"고 강조했다.



위작 논란에 휩싸인 1000원권 지폐의 '계상정거도'.

2004년 국내 전시됐던 북한의 '국보급' 불상은 고구려 시대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이후 만들어진 위작임이 밝혀졌다. 또 2005년 '아미타여래좌상'은 위작이라 판명했던 학자가 되사들인 후 신라시대 국보급 보물이라 주장해 화제가 됐었다. 2006년에는 송암미술관이 인천시에 기증한 불상 250여점 등 9300여점의 미술품 가운데 70%가 가짜로 판명됐다.

문화재 감정은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와 중앙유물평가심의위원회, 지방문화재위원회, 공항 · 항만 소재 문화재감정관실 등이, 개인 소장 유물은 한국고미술협회 등 협회 혹은 학계 전문가 등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해 이뤄진다.

그렇다면 위작은 어떻게 유통될까? 한 전문가는 "요즘 위작들은 주로 중국 고미술상 등이 '북한에서 도굴됐다'며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소개하면 한국 · 일본 등 고미술상이 이들과 직거래한다. 서울 옥션 등 미술품 경매시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되기도 한다"고 귀띔 했다.

이러한 미술품 위조를 위조학력 · 위조지폐처럼 사회현상의 하나로 진단한 이동천 박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실체보다 말에 속는다. 그림을 안다는 사람이 끼어들면 일은 더 커진다. <도록>이라도 만들면 폼이 나서 가격도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노출되지 않은 미술품 수요 특성상 위작의 공급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미술품 감정전문가를 양성하고, 미술품 감정을 명문화해 투명화하자"고 제언했다.

2004년 "장승업 · 김정희의 작품 절반이상이 가짜"라고 주장했던 강우방 교수(前 이화여대 초빙교수)는 "진위감정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학자"라며 미술학자들이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5월 20일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펼쳐진 '생명의 강 모심 여성 성직자 공동기도회 및 순례행진'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대운하 반대' 생명도보 순례단 회향

서울서 103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단장 이필완, 이하 순례단)이 5월 24일 도보순례를 회향했다. 2월 12일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며 순례의 첫발을 뗀지 103일째 되던 날이었다.

이날 순례단의 마지막 걸음은 잠수교 북단에서 출발됐다. 이후 도심지인 녹사평역에서 남산순환로, 숭례문, 보신각까지 이어졌다. 이날 마무리 중의 마무리는 약 5000여명의 종교인과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생명과 평화의 강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진 '생명과 평화의 강모심 대회'로 마무리됐다.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 성공회 등 5개 종교가 한 자리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순례를 진행한 것은 국민들에게 생명존중사상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순례단은 한강-낙동강-영산강-새만금-금강-남한강-한강에 이르는 장장 5000리(약 2000km)에 달하는 길을 도보로 순례해온 것이다.

순례단 이원규 팀장(시인)은 "우리는 강을 '수돗물'로만 접하고 살고 있다"면서 "모든 이들이 깊은 성찰과 참회를 통해 생명의 근원인 강을 지키고, 만생명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염원한다"며 순례의 마침표를 찍었다.

김강진 기자

"10.27특별법 제정 제대로"

조계종 추진위, 시행령 관련 국방부 항의방문

"가해자인 국방부는 10.27법난 특별법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하라."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 · 27법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시행령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계종이 5월 22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조계종 '10 · 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타 · 원학)는 이날 오후 국방부 김종천 차관을 만나 법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을 온전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국방부에 △정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행령에 '피해종교단체 추천자의 위원 위촉'을 명시하여 불교계 참여를 보장하고 △아직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학술 · 연구활동과 기념행사, 역사관 건립, 추모단체 지원 등을 시행령에 명문화하며 △피해스님들에 대한 명예회복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심사분과위원회와는 독립된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00만 불자들의 여론을 모아 관련 기관 항의방문,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도 5월 22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10 · 27법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3면에 계속〉

김성우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선지식-혜민 스님' ▶17면

'허허당의 세상만사' 쉽니다

社 告

미얀마 · 중국에 자비의 손길을

조계종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나르기스와 중국의 대지진 피해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구호성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원력을 가진 불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동참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27811, 농협 053-17-005950
■예금주 :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모금기간 : 6월 30일까지
■문의 :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2011-1823)

'대운하반대' 시집 출간

한국의 문화예술인 214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에 일대 반기를 드는 특별 공동시집 <그냥 놔두라. 쓰라린 백년 소원 이것이다>를 발간, 5월 20일 서울 인사동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공표했다.

김규동, 고은 등 시인 203인의 신작시와 이철수, 홍성담 등 화가와 서예가 11인의 염원이 담겼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반 생태 · 반 평화적인 현실에 대한 통곡이다. '생명의 어머니이신 강을 모시기 위한 문화예술인공동연대가 책임 편집을 맡았다.

가연숙 기자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
관 불 수 향
전단향이 그윽한 향향수로 관불,관욕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향 · 조각 · 공양물
능인향당
02)3663-6777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가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東大 안팎서 반발여론 '시끌'

학과 통폐합 학내반발 심화·경주선 의과대 이전 비판여론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5월 2일 효율적 학교운영을 하겠다며 비인기학과 통폐합 조치(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를 발표한 후 동국대교수회(회장 정재형), 공과대 · 문과대 · 이과대 교수 및 학생, 동문 등이 20여개의 반대 성명서를 쏟아내는 등 학내 반발이 드세다.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은 동국대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제도로 오영교 총장 개인 인기에 영합한 반불교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공과대 교수들은 "의견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돼 재학생 · 동문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학교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입학성적(15%), 경쟁률(5%), 재학률(40%), 강의평가(10%), 취업 및 진학률(20%), 교수 1인당 대학원 학생수(10%)의 학교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동국대 교수는 "학교에서 미리 평가기준 조정이 있었다"고 밝혀 통폐합 대상학과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교내 20여개 단체의 성명서들은 한 목소리로 '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영교 총장의 독단을 성토했다. 성명서 발표 단체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학내 구성원의 존중과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이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있는 경주지역 민심도 흉흉하다. 4월 28일 동국대 포항병원 폐쇄 결정에 이어, 5월 15일 의과 · 생명과학대를 이전해 일산에 미래지향적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 때문. 5월 21일 경주시가 손동진 총장(동국대 경주캠퍼스)을 항의방문한 것을 비롯, 경주시개발자문위원회 등 경주지역시민단체들은 동국대 의과대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동국대 의과대가 1986년 경북지역 의료인력 배출 등을 명분으로 설립했지만 이제와서 수도권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일산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배은망덕'하다는 것이 경주의 민심이다.

로스쿨 탈락에 이어 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관한 교내 반발이나, 동국대 의과대 이전과 관련한 경주지역 반발 등 잇단 비판 여론에 동국대는 '산 넘어 산',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하게 됐다.

조동섭 기자



5월 21일 태고종 중앙금강계단 수계식에서 연비하는 혜법 전법사와 혜안·혜도·묘성 스님(왼쪽부터) 등 수계 제자들.

태고종 외국인 승려 득도 수계법회

목사출신 등 3명…미국·유럽 등 해외포교 활동 담당

장로교 목사 출신을 포함한 3명의 외국인이 태고종 사미(니)계를 받았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5월 2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중앙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아메리카와 유럽지역의 해외교구에서 수행과 포교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혜안(Lance), 혜도(Gary), 묘성(Keren) 등 3명의 미국인이 사미(니)계를 수지했고 영국인 로버트(혜법)씨가 전법사계를, 카멜라(Camella), 티모시(Timothy), 박영(Young Park) 등이 보살계를 수지하여 총 7명의 외국인 태고 종도가 탄생했다.

이날 수계자들은 모두 해외교구 종무원장 종매 스님의 지도 및 안내로 수계법회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에 득도한 혜도(Gary) 스님은 10여년간 장로교 목회자로서 활동해 왔으나 불교로 개종한 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머디워터선원(Muddy Water Zen Center)을 열고 많은 외국인 수행자와 신자들과 함께 수행하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계자들은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태고종도로서의 활약을 하게 되며 태고종의 해외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김성우 기자

"초심호계위부터 종법 준수를"

교단자정센터 성명서 발표 …초심위 잇단 심리연기에 '일침'

조계종 호계원이 징계에 회부된 전 · 현직 본사주지들에 대한 심판 · 심리 연기결정을 잇달아 내린데 대해 재가단체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는 5월 19일 발표한 '초심호계원부터 종법을 준수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호계원법 제23조에는 '초심호계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최종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호계원의 엄정한 종법 준수를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대검찰청이 지난 3월말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범죄를 중점척결대상 범죄로 규정해 특별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각 지검에 지침을 시달했다"며 "초심호계원이 계속 심판 · 심리를 연기해 종법을 어기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자정의 죽비가 초심호계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5월 21일 제43차 심판부를 열고 안산 대부도 둥지청소년의 집과 관련한 직무비위 등으로 징계회부된 지공 스님에게 초심 심판대로 종단에서 퇴출되는 '제적' 심판을 결정했다. 또한 심판부는 미등록 사설사암과 승풍실주로 회부된 도일 스님은 미등록 사설사암의 종단등록을 전제로 초심판결인 제적을 낮춰 공권정지 10년을 판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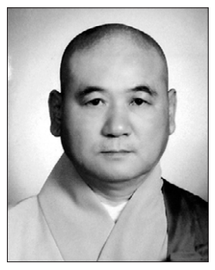
김성우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02-2004-8200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하동 쌍계사 주지후보 상훈 스님 무투표 당선



조계종 제13 교구본사 하동 쌍계사 주지 후보에 상훈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쌍계사는 5월 17일 총 80명의 선거인단 중 46명이 참석한 산중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상훈 스님을 무투표 당선시켰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상훈 스님은 해인승가대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쌍계사 총무, 국사암 감원을 역임하고 현재 구례 불락사 회주를 맡고 있다.

주지 진산식은 6월 5일 쌍계사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종단협 中 지진피해 성금 1억원 모금

조계·천태종 등 미얀마 사이클론 구호성금 전달도

불교 종단들이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에 이어 중국 지진피해 구호성금 모금에 나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5월 22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중국 지진피해 구호 성금 1억 여원을 모아 중국불교협회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회원종단별로는 조계종 5000만원, 태고 · 천태 · 진각종 각 1000만원, 관음 · 보문종 각 500만원, 총화종 300만원, 일붕선교종 200만원 등의 성금이 모아질 예정이다. 이미 중국불교협회에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 천태종은 이번에 추가 성금을 전달하게 된다.

한편 미얀마 사이클론 구호성금과 관련 해서는 조계종이 3000만원, 천태종과 진각종이 각 1000만원을 주한 미얀마대사 등을 통해 전달했으며, 태고종은 5월 23일 통영에서 열린 '임란 전몰 호국영령 위령재'에서 성금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김성우 기자

대중결계 신고 10일 연장

조계종이 올해 처음 시행한 '대중결계' 신고기간을 당초 5월 19일에서 29일로 연장했다.

조계종은 수행종풍 진작을 목적으로 제정된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5월 10~19일 대중결계 신고를 접수했지만, 많은 스님들이 결계신고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29일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중스님들의 의견 또한 지속적으로 수렴해 승풍진작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세계불교 법왕청
초 대 법 왕

일붕 서경보 존자 원적 12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붕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청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초대법왕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신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열반 12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붕 존자 열반 12주기 추모대제 봉행위원회 ◁

다 음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6월 12일(음 5. 9) 목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의령 봉황산 일붕사(一鵬寺)
◎ 연락 및 문의처
1)서울총무원 : 전화 02)998-8161,2 전송 02)998-8384
2)의령 일붕사 : 전화 055)572-7777
3)문 도 회 : 전화 054)633-1138
4)각교구종무원 및 일붕관계단체
◎ 홈페이지: http://ilbung.org

◎ 증 명 : 붕해 대종사, 무찰대종사, 혜륭대종사
◎ 고 문 : 각종단 종정, 대덕 큰스님, 금봉(장로원장) 도기(문도회장), 명종(장로부의장), 청송, 원각, 원경, 송은, 수암등 원로위원, 혜천, 무공, 법운, 원광, 한화란(금강선원총재), 찰스메르시에카(미국IAEUP총재), 원의범(일붕삼장대학원장),
◎ 지도위원장 : 혜운(일붕사 주지)
◎ 지 도 위 원 : 이무성, 김진궐, 송월성, 박혜강, 장삼준, 최성기, 김창락, 남강수
◎ 봉행위원장 : 지공(총무원장)
◎ 봉행부위원장 : 법선(총무원부원장), 서병렬(문도회사무총장), 김인덕(법사단부이사장)

◎ 추 진 위 원 장 : 화엄(중앙종회의장), 경원(재단이사장)
◎ 추진부위원장 : 도안(종회사무처장), 법광(전국비구니회 회장) 최혜숙(수도사회장), 권기태(일붕사 반야회장), 정금조(일붕사 지장회장) 배맹자(일붕사 약사회장),
◎ 기획위원장 : 용암(호계원장) ◎ 집행위원장 : 원각(교육원장) ◎ 동원위원장 : 법운(포교원장)
◎ 진행위원장 : 법성(감사원장) ◎ 경호위원장 : 정철(이사장)
◎ 각교구동원위원장 : 삼주(부산교구), 석담(대구교구), 용운(인천교구), 용주(대전교구), 도현(울산교구), 광은(경기남부), 도혜(경기북부), 보해(강원동부), 동청(강원서부), 보광(경남교구), 해동(경북교구), 혜성(전남교구), 석성(전북교구), 청표(충남교구), 경운(제주교구)
◎ 분 과 위 원 장 : 총무분과 – 용운(총무부장), 의전분과 – 보월(사회부장) 재무분과 – 혜관(재무부장), 사무분과 – 지언(교무부장) 경호분과 – 지우(규정부장), 봉사분과 – 혜성(포교부장) 홍보분과 – 진명(사회부장), 섭외분과 – 법해(교육부장)
◎ 분과부위원장 : 총무분과 – 영담(총무국장), 의전분과 –영우(사회국장), 홍보분과 –자혜(홍보국장)

■주최 :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존자 추모대제 봉행위원회 ■주관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일붕사 ■후원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이사회, 대한불교 일붕문도회, 세계인류평화불교연맹,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10.27 특별법 시행령

조계종-국방부 '불협화음'

교계 "보상부분 배제" 반발…이견 못 좁힐 땐 법시행 불투명



5월 22일 국방부 김종천 차관을 만나 항의하는 10.27법난특별법제정추진위 관계자들.

10.27법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쟁점사항	조계종 입장	국방부 입장
예산지원	법률에서 보상, 기금 출연이 제외됐으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념사업은 지원 가능	법 제정과정에서 보상, 기금출연이 제외되었기에 별도 예산 지원은 불가
기념사업	기념행사, 추모단체 지원, 기념관 및 사료관 등 건립, 학술 및 연구활동 등의 기념사업 시행 필요	법 제정과정에서 보상, 기금출연이 제외되었기에 별도 예산 지원은 불가
위원회 구성	위원은 차관급 이상, 시행령에 '피해종교단체 추천자' 를 명시, 불교계 참여를 보장해야 함	위원은 국장급 이상, 불교계 참여와 협조 필수적이나 명시에는 부정적
운영체제	피해자가 스님이기에 분과구성 보다 실질적인 실무지원단 구성	피해자여부 심사분과위, 의료지원금판정분과위 구성, 위원회 직원은 파견 공무원으로 충원 가능

〈1면에서 계속〉시행을 한 달 앞두고, 10.27법난 특별법 시행령(안)에 불교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교계 안팎에서는 "가해자인 국방부가 10.27법난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0.27 법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5월 22일 연석회의를 갖고 "명예회복의 핵심인 기념관 건립 지원 등 보상 부분을 배제하는등 국방부가 사실상 법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만행을 저질렀던 국방부와 정부가 사무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불교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6월 말 시행이 예정된 '10.27법난 특별법'은 6월 15일 '시행령' 입법예고 시한까지 조계종-국방부의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 시행자체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조계종과 국방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을 도표로 정리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buddhapia.com

"선학원 이사회 일괄 사퇴해야"

대운 스님 등 이사 5인 재단 정화·개혁 촉구

2004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 입적이후 분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해 온 선학원에 대한 자정 및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운(지장선원), 보운(천진선원), 철오(선학원 총무이사), 영주(법수선원), 상원(보명사) 스님 등 선학원 이사들은 5월 22일 조계종 총무원내 찻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학원 이사회의 일괄 사퇴 및 쇄신을 주장했다.

선학원 이사들은 '사부대중께 드리는 말씀'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선학원 내부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재단 내부 문제를 사회법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정화를 통해 선학원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오 스님은 "법진 이사스님이 선학원에 몇 개 되지 않은 공사찰 중 하나인 금정사 등에 대해 오랜 세월동안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며, "금정사 횡령사건 조사를 요구한 신도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금정사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철오 스님은 또 "선학원은 설립조사 스님들의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며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선학원 이사회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1921년 창립된 선학원은 540개 사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일제강점기 조계종의 정신적인 근원인 선풍(禪風)을 진작시킨 단체이다. 만공, 한암 선사 등 무수한 선지식을 배출한 선학원이 본래의 가풍을 되찾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우 기자

정부 '종교자유 보장 요청' 나몰라라

'초파일 협조공문' 발신 65곳 중 10곳만 회신

불교계의 '부처님오신날 종교자유 보장' 요청에 정부 기관단체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이하 종평위)가 지난 4월 정부 기관과 군 · 경 · 검찰 등 총 65개 기관에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한 협조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발송한 공문에 대해 불과 10개 기관에서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종평위는 이 공문에서 중앙부처와 각 관계부처주관에는 '비공식 행사 자제요청'과 '부처님오신날 기간 중 관계기관 · 부처에서 행사와 기타 일정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지침 하달요청'을, 교육부와 국방부에는 '학생들과 국군장병들에게 종교자유보장 요청' 등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5월 20일, 종평위에 따르면 현재 10개 기관에서 보내온 회신 내용은 각각 달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 · 도 교육청에 위임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지침시달 등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국방부는 "조계종 군종교구를 통해 (종교자유 침해 에방과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신을 보냈다. 또 인천시 · 강원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등도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강진 기자



봉은사신도회 北동포 지원

봉은사신도회(회장 황남수)는 5월 23일 백기완 선생의 통일문제연구소에 북녘 동포돕기 쌀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봉은사 신도회에서 모아둔 1천만원과 사찰 쪽에서 지원한 1천만원으로 마련됐다.

황남수 신도회장은 "최근 북측에서 식량부족으로 아사자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북측의 식량 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요양보호사 교육 시동

올 7월 시작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이 6월 9일부터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에 나선다.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필요성을 인지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 초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와 협의, 지난 4월 서울시로부터 '화인(花人) 노인보호사 교육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화인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앞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취업할 불자 인력을 기르는데 총력을 기울일 종단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화인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는 6월 9일~7월 25일 7주간 진행될 제1기 교육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비는 교재·실습비 포함 60만원. (02)723-5101 김강진 기자



5월 20일 봉행된 조계종 전법회관 상량식.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전법회관 상량식 봉행

총무원장 지관스님 등 참석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포교 1번지로 자리 잡을 조계종 전법회관 상량식이 5월 20일 서울 수송동 전법회관 건립 현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상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기획실장 승원, 재무부장 장적,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과 시공사인 (주)성일건설 황윤성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공사 막바지에 들어간 전법회관은 부지 363.6㎡(110평)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건평 3636.4㎡(1100평)으로 건립되며, 각 전법기관과 신행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선리연구원 우수상 취소사태

교계 학술단체의 학술상 선정이 취소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당초 선학원 선리연구원 학술상 우수상에 선정됐던 문을식 박사(원광대 강사)는 5월 20일 제2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후 '<십주비바사론>의 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불참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문을식 박사의 우수상 선정이 취소됐다. 당사자도 완성논문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중국 · 미얀마 돕기 구호운동본부 발족

지구촌공생회 등 가입

'중국 · 미얀마 돕기 긴급구호운동본부'(이하 긴급구호운동본부)가 5월 22일 서울 사랑의열매회관에서 결성됐다.

운동본부는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세중), 나눔과기쁨(회장 손봉호), 기독교사회책임(회장 최성규), 지구촌나눔운동(회장 강문규) 등의 종교 ·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5월 22일 현재 129개 단체가 가입된 상태다.

운동본부의 1차 목표는 가입 단체를 200여개로 확대해 오는 6월까지 현금 100억, 물품 100억 등 총 200억원을 모연하는 것. 특히 물품모으기 운동을 통해 쓰지 않는 헌옷, 철지난 상품, 담요, 생활 · 주방 · 사무용품, 신발, 장난감 등을 모아 생필품이 필요한 현지 주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관계자는 "운동본부를 통해 긴급구호활동 모금 운동에 참여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구를 이용하게 되므로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1544-0005

김강진 기자

황우석 박사의 애완견 복제 상업화 착수를 국민과 더불어 환영

황우석 박사의 세기적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이 필요합니다.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 분야의 기술력 확인

미국 오리온 그룹의 창시자인 존 스펄링 박사가 기르던 애완견 미시(Missy)의 세포를 다른 개의 난자와 결합시켜 5마리의 복제견을 탄생시켰습니다.
10년동안 미국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진행했으나 실패했던
애완견 연구복제 사업(미시 프로젝트)을 착수와 함께 바로 성공하였습니다.

맘모스의 복제도 가능할 금세기 최고의 복제기술

동물 복제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죽은 애완견의 세포로 복제견을 탄생시킨 것이어서 전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사인 뉴욕타임즈, CNN, ABC 등은 1면 톱기사로 전세계에 타전하고 있으며, 맘모스 부활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쥬라기 공원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하게 연구승인을 보류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행 생명윤리법은 범죄혐의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연구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연구를 승인해야 합니다.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는 대한민국의 기술

세계 최고의 동물복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연구 분야에서도 다시 성공해야 합니다. 김선종의 바꿔치기로 인하여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연구재연을 넘어 연구승인을 통해 대한민국 원천기술을 지켜야 합니다.
난치병 치료와 국익 그리고 차세대 미래산업을 선도할 줄기세포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인류의 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승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명박 정부는 연초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원천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에 방해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석 지킴이 불자모임
http://cafe.daum.net/buljahws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충암 B/D 4층 401호(우편번호 110-130) TEL 02)723-5126 / FAX 02)722-5128

"관세음보살 자비로 독도 수호"

천태종, 울릉도 해도사서 해수관음상 봉불식

일본정부가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져 반발이 거센 가운데 독도가 바라다 보이는 울릉도에 동해와 한반도 수호의 염원이 깃든 해수관음상이 우뚝 섰다.

천태종 울릉도 해도사(주지 비룡)는 5월 21일 해도사 관음전 앞마당에서 '해수관음 봉불 및 범종각 낙성식'을 봉행했다. 봉안된 해수관음상은 11m 높이로 조성됐으며, 해수관음상을 중심으로 앞뒤 20m, 좌우로 13m 공간을 다양한 연꽃모양 조각으로 장엄됐다.



5월 21일 봉불식을 가진 해도사 해수관음상. <사진=손법천 대구지사장>

이날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큰 마음은 언덕이요 온갖 지혜로서 조수가 되어 움직이니, 중생은 측량 못하고 말로도 다할 수 없다"며 "온갖 부처님 세계를 모두 다 부수어서 티끌을 만들어도 한 티끌에 있는 세계를 말할 수 없으니, 온갖 티끌 다 그러하다"고 설했다.

이어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치사에서 "울릉도는 외로운 섬이 가지는 자연조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큰 곳이기에 더욱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절실한 곳"이라며 "해도사는 그동안 신도와 지역 주민들의 귀의처가 돼 기쁨, 슬픔, 고난을 함께한 마음의 고향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정산 스님은 이어 "불보살님을 새로 모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번뇌를 떨어내고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과 같다"며 "여러분이 용맹정진하면 이곳 울릉도가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시는 보타낙가산이 돼 오늘 동참자를 비롯해 울릉도 주민, 바다의 일체 존재들에게도 자비광명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해도사 주지 비룡 스님은 개식사에서 "이번 해수관음상 봉불로 동해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울릉도에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없기를 간절히 발원한다"며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관세음보살 독송으로 용맹정진하면 독도를 비롯해 울릉도와 한반도를 수호하고 세계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각종 여래심인당 지우 정사와 정윤열 울릉군수(김광호 부군수 대독), 신봉석 군의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울릉도 해수관음 봉안을 찬탄했다.

봉불식에 앞서 해도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도용 종정 예하를 증명대법주,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을 증명법주로 해수관음상 점안식을 봉행했으며, 이어 범종각 낙성식도 거행했다. 해도사는 이날 법회 후 독도 인근 해역으로 자리를 옮겨 바다에서 순직, 참사한 영령들을 위로하는 위령재도 봉행했다.

김성우 기자

"나를 낮추는 下心 배워요"

국회의원 4인 등 서강대 TCPS 수강생들 마곡사서 템플스테이



5월 16~17일 마곡사에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가진 서강대 TCPS 수강생들.

"1박 2일간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네 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최고의회전문가 과정(원장 남성일, 이하 서강대 TCPS 과정) 1기 수강생들이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명상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5월 16일 오후 5시 마곡사에 모인 서강대 TCPS 과정 수강생들의 템플스테이는 '하심(下心)'을 주제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그런데 왜 하심을 주제로 정했을까. 이유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한나라당 신지호 · 나성린 · 배은희 · 강성천 국회의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차광은 부총장 등 소위 Hi-class이기 때문이다.

서강대 TCPS 남성일 원장은 "우리 수강생들 모두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서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 마가 스님께 하심이라는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중 참가자들의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것은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A4용지에 '내 하나뿐인 000님의 긍정 명상'이라는 제목을 쓴 뒤 000님, 배우자 혹은 사랑하는 이에 대해 고마운 점, 예쁜 점, 멋있는 점 등을 적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전화를 통해 읽어주는 것. 내일 하게 되면 늦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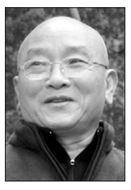
이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도 하심하기에 알맞았다.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3배를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삼배에 앞서 절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나와 똑같이 자기 삶에서 고통을 피하려 하고 있다. 나와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을 겪고 있다' 등의 문구를 되뇌이게 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된 것.

3 배를 받은 나성린 의원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께 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너무 죄송스럽고 영광스럽기까지 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며 "하지만 이렇게 절을 받는 것 보다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고, 그 분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절을 하는 것이 더 뜻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험한 세상 다리되어'라는 장님 체험을 통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을 일깨워주고, '108배'는 108가지의 경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끔 했다.

손효선 기자

각원사 대원 스님 교정대상 자비賞



천안 개방교도소 종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원 스님(각원사 부주지 · 사진)이 지난 5월 14일 제 26회 교정 대상 본상인 '자비상'을 수상했다.

대원 스님은 1990년 교정 참여인사로 활동을 시작한 뒤 약 21년 10개월간 종교 집회와 정신교육을 진행해 왔다. 또한 스님은 교도소 교화 공연 및 체육행사, 명절 등 행사 때 마다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들을 포상, 격려하는 교정대상은 법무부의 후원으로 서울신문사와 한국 방송공사(KBS)가 주최해 진행됐다.

손효선 기자

각원사 제2회 효도잔치 봉행

천안 각원사(주지 법인)는 5월 22일 독거노인 등 어르신 500명을 초청, '제2회 효도잔치'를 봉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 효도잔치는 평소 소외된 이웃을 위해 힘쓰고 있는 주지 법인 스님과 각원사 불교대학 학장 대원 스님의 뜻을 잇고자 불교대학 총동문회와 불자회가 마련한 것.

이날 불교대학총동문회 이영석 회장은 "효도잔치를 열수 있었던 것은 소외되고 가정 형편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이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서산 마애삼존불상 보수 나서

연내 균열 복구작업 완료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서산 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의 심한 균열로 문화재청(청장 이건무)과 충남 서산시(시장 유상곤)가 보수에 나섰다.

5 월 19일, 서산시는 "2007년 말부터 국보 제84호 마애삼존불상의 세척 및 보존처리 공사를 하던 중 불상의 머리와 우측 상부 등에서 다수의 균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불상의 균열은 최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며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이라며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존처리를 위해 금년 중 마애삼존불상 주변 균열부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제 말기인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산마애삼존불상은 1974년 자연풍화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보호각을 설치됐고, 백제의 미소를 볼 수 없다는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2007년 12월 보호각이 완전 제거됐었다.

조동섭 기자

조인선원 60년만에 재개원

1930 년대 중반 수좌들의 수행도량이었던 조인선원이 60여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옹산)가 하안거 결제를 맞아 5월 18일 조인선원을 개원했다. 이번 하안거 결제에는 선원장 법안 스님을 비롯해 10명의 구참 스님이 용상방에 법명을 올렸다.

조인선원은 지난 1937년 하안거와 동안거 결제에 만공 스님이 조실로 납자들을 지도한 곳이다.

손효선 기자

충북 도정발전 기원법회

'2008 충북 도정발전 기원법회'가 5월 23일 청주 선프라자에서 봉행됐다.

이날 기원법회에는 도 · 불협의회장 노현 스님(법주사 주지), 설곡 스님(수도원), 현진스님(관음사), 혜전 스님(성문사)을 비롯해 정우택 도지사, 부시장 · 부군수, 도청 실 · 국장장, 신행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현 스님은 "중국과 미얀마의 엄청난 자연재난과 미국 수입소 파동, 경제난 등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일수록 선업을 행하고 안심을 얻어 모든 도민들이 자유와 행복, 건강을 누리며 함께 잘 사는 정토를 구현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5월 23일 봉행된 충북 도정발전 기원법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정우태 도지사.

이어 정우태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슬로건인 '잘사는 충북 · 행복한 도민' 운동에 앞으로도 불교계와 도청이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대통합종단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종단에 유의 하십시오.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 총무원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김해,창원종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7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 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8년 5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5월 30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쌍계 가득 흐른 차향과 음악

쌍계사, 제1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개최



하동 쌍계사(주지 상훈)는 제1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의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초의 선사의 뜻을 기리는 다맥전수회와 산사음악회,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축제 첫날인 5월 23일 오후 1시 쌍계사 팔영루에서 열린 입제식은 불가전통 헌다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신라 · 고려 · 조선시대 다례 시연, 육조 · 진감 · 초의 선사에 바치는 108헌다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야외특설무대에서 국악인 김성녀(중앙대 국악대학장)씨가 진행하는 산사음악제가 열렸다. 특히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의 범패 시연과 쌍계사 어린이 사물패가 국악공연을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다. 음악제에서는 경기 민요 및 판소리, 구례줄풍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출연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한국전통음악이 이어졌다.

24일에는 팔영루에서 진감 · 초의 다맥전수식이 열렸다. 초대 초의 선사부터 2대 서암선기, 3대 쌍수일환, 4대 응송영희, 5대 고산혜원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다도의 근본맥을 전수하는 자리다. (055)883-1901

"왜곡된 차문화 빨리 바로 잡아야"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오늘날의 다도 문화는 일본에서 역수입된 것이지 우리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 고유의 차문화가 흐트러지고 왜곡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5월 23일 개막한 제1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를 주관하는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의 첫마디다. 사라져가는 불가 전통의 차문화의 진수를 잇기 위해 쌍계사에서는 매년 다맥전수대법회를 열고 있다.

스님은 "불교는 종교를 넘어서 우리 생활, 즉 삶이고 한국의 전통문화 그 자체"라며 "이러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불교가 바로 선과 차와 음악으로 표현된다"면서 이번 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항상 차를 곁에 두고 마신다는 고산 스님은 "이번 축제를 통해 차문화와 음악 등의 불교문화가 바로 한국문화이고, 한국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임을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壬亂 호국영령 극락왕생을…"

태고종, 한산도서 천도재



태고종은 5월 23일 통영 제승당에서 '임진왜란 전물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 등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산대재가 통영 한산도에서 열렸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5월 23일 통영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및 한산도 제승당에서 태고종 승정원장 남파 스님, 원로의장 일우 스님,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진의장 통영시장 등 사부대중 7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임진왜란 전몰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통영시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영산대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6월 호국의 달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고귀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새기고, 민족의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면서 종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통영시 제승당에서 국가 안녕 및 경제발전기원 전몰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재를 봉행한다"며 "이런 공덕으로 국운이 융성하고, 남북의 평화적인 관계 개선과 나라의 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통영시 진의장 시장은 축사에서 "통영바다는 임진왜란을 겪어낸 바다"라며 "임진왜란 때 몸 바쳐 나라를 구한 선조들의 뜻을 잊지 말고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회에서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선상방생법회와 특산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렸다. 이번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재는 지난해 독도 영산대재에 이어 두 번째다. 태고종은 2007년부터 매년 1회씩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국토순례 대장정을 통해 호국불교의 전통문화를 국민에게 알리고, 불자들로 하여금 지방의 농수특산물을 구매토록 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계획이다.

통영=손효선 기자

부산 철도정비청 직원 장애우와 함께 체육대회

부산시 3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우와 철도정비청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정정당당 승부를 겨루고 진한 우정을 나누는 축제가 국군부산병원 잔디구장에서 한바탕 펼쳐졌다.

부산불교보현회 주최로 5월 18일 열린 '장애우와 함께한 제11회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금정중학교 현익채 교장, 부산불교보현회 회원을 비롯하여 천마재활원, 평화의 집, 성우원 장애우 100명과 광명사 어린이회 20명, 철도정비청 직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장애우를 단순히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돕는 데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축구 훈련을 통해 운동을 유도하고 실제 재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불교보현회 안상이(57) 회장은 "한마음 체육대회와 같은 실제 재활훈련에 유용한 도움이 절실하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박지원 기자

여여선원 불교미술전문 갤러리 개관

선(禪)과 묵(墨) 깨달음의 향기, '선서화' 전문 갤러리

부산 여여선원(선원장 정여)의 숙원사업인 불교미술전시 공간 여여선(禪)갤러리가 5월 22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진구 양정2동에 위치한 부산불교회관 1층에 문을 연 여여선갤러리는 선(禪)과 묵(墨)으로 깨달음을 화폭에 담아낸 '선서화'를 위주로 한 불교미술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개관식에 앞서 8층 대법당에서는 여여선갤러리 개관행사의 일환으로 '고승초청 릴레이 대법회'가 봉행됐다. 릴레이 대법회는 22일 정여스님(범어사 주지)을 시작으로 열흘간 오전 10시 8층 대법당에서 계속된다. 28일 혜인 스님(약천사 회주), 29일 무진장 스님(前 포교원장), 30일 태응 스님(前 통도사 주지), 31일 정여 스님 등이 법문할 예정이다.

정여 스님은 개식사에서 "스님의 수행원력으로 그려낸 선서화는 가식이나 꾸밈이 없어 우리의 마음을 맑고 순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며 "신도들에게 예술적인 마음의 문을 열어줄 공간으로 문턱을 낮춰 누구나 쉽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은 여여선원장 정여스님과 각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50평 규모의 1층 전시실에서는 개막전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 선서화 작품전'이 한 달간 이어진다. (051)853-5486 박지원 기자

범능 스님 청소년 위해 공연 마련

노래로 포교하는 범능 스님이 어려운 청소년 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범능 스님과 함께하는 시가 있는 제15회 불교음악한마당'을 개최한다.

5월 31일 저녁 7시 30분 진주시 생활체육관에서 열리는 불교음악한마당에서는 도종환 시인, 천음실내악단 등 30명의 음악인이 출연해 '산사문답' '신묘장구 대다라니' '무소의 뿔처럼' '꼭 다거' 등의 노래와 연주를 들려준다.



(055)747-0108 강지연 기자

남해 화방사 '재가노인지원센터-화방동산' 완공

총 사업비 12억 4000만원 · 5월 25일 개관

경상남도 남해군에 대규모 노인복지센터 '화방동산'이 5월 25일 문을 열었다.

총 사업비 12억4000만원을 투입해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에 건립한 '화방동산'은 기존 3000평 부지에 400평을 추가로 확보해 총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됐다. 사업비의 10억 6500만원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받고 나머지 2억여 원은 건립불사 후원자들과 화방사 신도 및 임직원이 모아 '화방동산' 건립불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화방동산'은 재가노인지원센터(1622.24㎡)로 방문 요양 · 목욕, 주 · 야간 보호 및 단기 보호 등 복합기능을 갖춘 다목적 시설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 · 야간 보호실, 단기 보호실, 임상동작 훈련실, 체력 단련실, 목욕탕, 물리치료실 등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현대식으로 꾸며 놓았다. 각 읍면,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이용신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개관식은 하동 쌍계사 주지 상훈 스님과 조실 고산 스님, 남해군수 한동환 군수대행, 남해군의회 김영태 의장 및 군의원,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055)863-2286

박지원 기자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 '화엄경' 강좌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5월 20일부터 대웅전에서 '<화엄경> 강의'를 열고 있다.

7월 23일까지 이어질 강의는 화엄사상 중 '법성게', 실천수행을 설한 '보현행원품'으로 이뤄진다.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오경 스님이 강의를 맡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화엄경> 강의가 될 전망이다.

오경 스님은 "길을 모르면서 고요함에만 머무는 오류를 배움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며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30분 또는 수요일 오후 7시~9시 30분 중 원하는 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

한편 9월말 동안거 기간에 맞춰 '<화엄경> 강의2'가 진행될 예정이다. (051)253-8687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 · 구독
문의(051)632-4440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법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 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1회 상담)

원불봉안, 탱화, 수미단, 닷집, 법상, 법종, 향로, 촛대, 불상 등의 불사도 가능합니다. ■ 신축불사상담 1588-1936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 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

전북 각 종단 지도자 한옥마을 방문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발전에 협조키로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원행 주지 스님, 법운 태고종 종무원장을 비롯한 전북 불교 종단 스님과 불교지도자, 신도 등 60여명이 전주한옥마을을 찾았다. 전주한옥마을은 5월 21일 한국관광공사 '이달(6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된 곳.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종단 지도자들은 전통문화센터와 전통한옥, 은행로 실개천 등을 둘러보고 송하진 전주시장에게 시정계획을 들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5대 역동산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트폴리스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송 시장은 "공공디자인이 도시 미래를 좌우할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제 도시는 아름답고 실용적이면서 도시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경관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옥마을 간판정비사업 등 2008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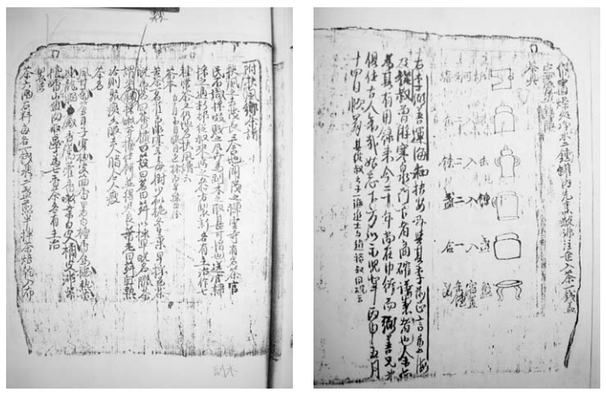
참석한 스님들은 ▲남고산성을 중심으로 한 후백제, 견훤대왕 성역화 추진 ▲전주정신 등 콘텐츠 강화 ▲모악산을 중심으로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기린봉, 가련산 등과 연계된 경관계획 조성 ▲삼천천 주변 모래채취 행위 강력 단속 등을 건의했다.

한편 스님들은 전주의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최초의 다서 '부풍향차보' 발견

고창 선운사서, 월간 '차의세계' 소개



정민 교수(한양대)가 발견한 한국 최초 다서 <부풍향차보>.

제다법과 다기 등의 내용을 담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다서가 발견됐다.

월간 <차의세계> 5월호를 통해 알려진 <부풍향차보(扶風香茶譜)>는 정민 교수(한양대)가 <이재난고>(한국정신문화연구원 刊)에서 발견·소개했다.

<부풍향차보>는 부안현감 이운해(1710~?)가 1755년 고창 선운사 일대의 차를 따서 7종의 향약을 넣은 약용차 제조법을 적은 책이다. 원본 전체 내용이 아닌 핵심 내용만이 적혀 있지만, <부풍향차보>는 1785년 쓰여져 최고(最古) 다서로 평가받던 이덕리(1728~?)의 <동다기(東茶記)>보다 30년 앞선다.

<부풍향차보>는 다본(茶本), 다명(茶名), 제법(製法), 다구(茶具) 등으로 나눠 차의 특징과 성질, 증세에 따른 향차 처방, 향차 제조법, 향차 음다법을 기술했다.

또 다로(茶爐), 다관(茶罐), 다부(茶缶), 다종(茶鍾), 다잔(茶盞), 다반(茶盤) 등 6종류의 다구 이름 및 실물을 그림으로 표현해 차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동섭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 전북지사 : (063)910-5199

전남 5·18 기념행사 열려

원각사·망월 묘역 등서

5 · 18 광주민중항쟁 28주년을 기념해 5 · 18광주불교추모사업회와 광주불교환경연대의 추모행사가 열렸다.

5 · 18광주불교추모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5월 18일, 광주지역의 각 신행단체와 실천불교승가회 등 종단 및 인권 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5 · 18의 중심지 광주 충장로에 위치한 원각사에서 열었다.

참석자들은 티베트 영상물 상영과 티베트 남카 스님이 중국에 탄압받는 티베트의 역사와 현황을 이야기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기도 했다.

남카 스님은 "1950년대 이후 중국에게 무자비하게 탄압받는 티베트의 아픔을 공감해 달라.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티베트 탄압 저지를 위한 행동에 한국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군부에게 광주시민이 학살당한 5 · 18의 아픔을 쉽게 잃어버린 것 같다. 동아시아 인권 신장에 큰 기여를 한 5 · 18정신이 세계적인 인권의 가치관으로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월 18일 원각사에서 열린 5 · 18 추모법회.

특히 이번 추모행사에는 최근 '신묘장구대다라니' 음반을 낸 범능 스님의 추모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었다.

5 · 18 망월묘역에서는 5 · 18영령을 추모하는 음악공양이 열렸다. 5월 17일 광주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2008 꽃 진 자리 피어나는 희망'을 주제로 시와 노래와 차가 어우러진 행사를 펼쳤다. 인도 길거리 악사팀인 인도바울예술단이 음악을 공양해 망월동 묘역을 찾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조현옥 시인의 광우병 파동 관련 시 발표와 이상호 화백의 '감로탱'도 광주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티베트 망명정부 어린이학교 및 인도 산티니케탄 고아원 후원을 위한 모금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naver.com

어린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

무각사 연꽃문화제 개최

사단법인 동련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광주지구(회장 도제)는 5월 18일 무각사 경내에서 호남지역 어린이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빛고을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연꽃문화제는 소설가 정찬주, 임인택씨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가족, 부처님'을 시제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꽃문화제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고 체험하는 페이스페인팅, 버튼 만들기, 칠교놀이를 비롯해 굴렁쇠 굴리기, 투호, 서원달기 3행시 짓기, 솜사탕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린이들의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부처님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걸림 없이 순수한 어린이들이 맘껏 기량을 펼치고 흥겨운 문화마당에 참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기 부문 대상을 받은 양서은(초등 2)양은 "부모님과 함께 와 부처님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상도 타서 너무 즐거워요"라며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한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광주지구 관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재능개발, 창의력 향상을 위해 '빛고을 연꽃문화제'를 앞으로 매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불교문화 강좌 개설

6월 10일 고창종합복지관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불교문화강좌가 열린다.

6월 10일 고창 율계리 고창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강좌는 사찰예절과 불교기초교리, 부처님의 생애, 기도의식, 수행방법, 불교문화 및 문화재의 이해 등의 과목이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선운사 불교문화강좌는 고창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설되는 불교문화강좌로 지역민들에게 불교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운사 만세루에서는 다도강좌, 인경, 연등 만들기 등 불교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마련된다. 교양반과 사범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다도강좌와 인경 등의 강좌는 불교의 수행과 문화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063)561-1422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국토를 찾아서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경로식당

"건강한 여가 누릴 수 있도록 할 터"

전주시 중화산동 주택가에 자리한 금산사 사회복지원 위탁운영 시설인 서원노인복지관내 경로식당은 2002년 2월 문을 열었다. 전주 법등회 등 불교 봉사단체들이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 대접과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하는 경로식당은 이제는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어르신들의 쉼터로 하루 평균 350명 어르신들의 발길이 닿는다.

이 곳 경로식당을 들어서면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만들어요"라고 커다랗게 적혀있다. 사방이 커다란 유리로 툭 터져 주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깨끗하게 정리된 식당 안, 부처님오신날 즈음 만들었을 색색의 연등이 달려 있다.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 한 켠에서는 커다란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쇠고기 무국의 구수한 냄새가 군침을 돌게 한다. 조리대 옆 작업대에선 이미 만들어 놓은 나물과 조기구이며 반찬을 도시락에 담는 법등회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점심시간은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하지만 조리실은 열기로 가득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곤란한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 100여개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준비된 도시락은 따뜻한 가방에 담겨 불자 택시기사들의 모임인 전주 운불련 회원들이 집집마다 직접 배달한다.

점심 때가 되자 노인들이 한분 두 분 식당주변으로 모여들더니 어느새 긴 줄이 만들어진다. 자칫 어수선할 것 같지만 조용히 줄을 서서 친구와 이웃들의 안부를 묻거나 혹은 벽에 붙은 부처님 말씀을 읽거나 복지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며 물 흐르듯 배식을 받아 점심을 즐긴다.

전주 시내에는 모두 8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지만 대부분 타종교 단체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불교운영 복지관은 서원복지관 단 한 곳뿐. 특히 하루 평균 350여명의 어르신들이 식사 하는 경로식당은 전주시내의 여느 복지관보다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만큼 서원노인 복지관장 덕림 스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불자들이 쏟는 정성은 보통을 넘는다. 보통 노인들에게 복지관의 평판은 경로식당의 운영에서

350여명 어르신들 쉼터, 도시락 배달도

좌우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서원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평판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매일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한다는 김영철(76) 할아버지는 "할멈과 둘이서 사는데 집에서는 대충 한끼 때우고 만다. 하지만 점심이라도 입맛에 맞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며 말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산다는 김정림 할머니(72)는 "영양사가 짜준 식단으로 고루 먹을 수 있어서 좋다"며 흡족해 했다.

복지관 관장 덕림 스님은 "지역의 교세는 타종교에 비해 미약하지만 복지관 운영만큼은 타종교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스님은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의 여론을 수렴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과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이 의식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초심자나, 정확한 의식이 필요한 전문가 모두, 다른 페이지를 찾지 않고 모든 의식을 집전하실 수 있습니다.

新刊 通用佛教 · 齋禮儀範 案內

○ 불교의범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송주편	제 2장 예경편	제 3장 전각예경편
제 4장 불공편	제 5장 모든법회	제 6장 방생
제 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제 8장 점안편	제 9장 이운편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10장 수계편	제11장 고사편

○ 재례의범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시식편	제2장 장 장의편	제3장 다비편
제4장 장 四十九齋	제5장 재공편	제6장 기제사
제7장 靈魂結婚篇		



불서총판 책나라 02)739-7451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TV최초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 착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불교의 세계화 · 세계의 불교화 길 모색


우제선 교수(동국대)


엘리슨 핀들리 교수 (美 트리니티대)


고영섭 교수(동국대)


테라오 이치 교수 (日 미노부산대)


가이 뉴랜드 교수 (美 센트럴 미시간대)


사사끼 시즈까 교수 (日 하나조노대)


판 멩 스님


혜선 스님(한마음선원)


우희종 교수(서울대)


아오키 코쇼 교수 (日 와세다대)

각 지역 불교 역사 · 예술 생명 등 다양한 주제 10분과별 발표

제4차 불교학결집대회 성료…20여개국 160여 불교학자 열띤 토론

세계의 불교학자들이 5월 17~18일 동국대에 모여 '불교의 세계화 • 세계의 불교화'를 주제로 2008년 제 4회 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이평래, 이하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의 세계화 • 세계의 불교화'라는 대주제처럼 국내 및 미국 • 일본 • 티베트 • 캄보디아 등 20여개국 160여명의 저명 및 신진 불교학자들이 10개 분과로 나눠 각각의 연구를 발표하고 점검해 불교학 교류의 장을 펼쳤다.

이번 결집대회에 처음 시도된 홈스테이는 물론 결집대회 후 18~19일 월정사에서 열린 문화탐방에도 외국학자 대부분이 함께해 호응을 얻었다. 500여명이 함께한 이번 결집대회의 특징은 그 어느 때보다 해외 불교학자들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비하라'를 제창한 불교 호스피스의 권위자 타미야 마사시 교수, 대승불교 권위자인 사사끼 시즈까 교수, 화엄학 연구 권위자인 기무라 기요타카 교수, 아오키 코쇼 교수 등 한국학자 다음으로 많은 학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한국불교학>이란 이름으로 발간된 결집대회 자료집에 기타 학회 관계자들은 볼멘소리를 했고, 사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목차 안내조차 부실한 자료집에 많은 참석자들이 불편해했다. 통역과 자료집 부실로 대회장 곳곳에서는 160여 해외학자들의 불편함이 목격됐다.

교계 학회 한 관계자는 "학술대회 준비 • 진행과정이 백서 등으로 전달되지 않고 개인의 노하우로 남겨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표자료는 디지털 시대, IT강국에 맞게 대회장에서 무선인터넷 등으로 다운로드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결집대회는 지역 및 주제별로 인도불교, 티베트 및 중앙아시아 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 일본불교의 지역별 5개 분과와 선불교, 불교사학, 요가 및 불교명상, 불교예술, 응용불교의 5개분과, 총 10개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분과별 주요 논문을 소개한다.

제1분과 '인도불교'에서는 우제선 교수(동국대)가 인도 후기유가행파의 증지의 증득을 통해 돈오돈수와 점오점수를 조명한 '돈오돈수와 점오점수'를 발표했다. 우 교수는 ▲사성제와 같은 분별된 것이 어떻게 수습을 통해 지(知)에 선명히 현현되는가 ▲분별된 것을 인식대상으로 갖는 증지가 어떻게 무분별지인가 ▲찰나멸하는 마음이 어떻게 동일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수행자는 어떻게 지에 특수한 속성을 계발할 수 있는가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탐욕 등을 여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사제와 의근과 의식, 증지 등으로 깨달음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제2분과 '티베트 및 중앙아시아 불교'에서는 세계적 여성 불교학자인 엘리슨 핀들리 교수(美 트리니티대)가 '라오스 승려들과 메타 담마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핀들리 교수는 남아시아에서 상좌부 승려들이 재가자 등과의 공동체에서 담마에 기초한 명상을 통해 에이즈에 대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핀들리 교수는 "메타 담마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상 · 고 · 무아를 통찰하는 명상 지도와 함께 오계 수지를 권하며, 자비희사를 실천해 일반인들과 같은 삶 속에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1992년 태국에서 시작된. 에이즈 위기 대처운동을 모태로 상좌부 스님들이 '상가 메타 프로젝트' NGO를 설립하면서 메타 담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면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 확산되면서 자비 담마 프로젝트로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제3분과 '중국불교'에서는 최동순 연구원(연세대 국학연구원)이 '천태사상에 있어 심(心)'의 구분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최 연구원은 "천태종의 종파성이 확연히 드러난 것은 담연이 활약했던 당나라 중기와 지례가 활동했던 송나라 초기였다"면서 "천태종은 교판을 구성하는 불성론에 이어 실천으로 나가는 심의 구분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제4분과 '한국불교'에서는 고영섭 교수(동국대)가 '한반도운하안과 불교생태학'을 발표해 여러 참석자의 눈길을 끌었다. 고 교수는 "불교생태학의 핵심지향은 상호존중의 지혜"라 밝혔다. 한반도 운하사업을 불교생태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고영섭 교수는 "불교생태학은 인간과 국토의 건강한 관계 유지를 가장 우선시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소모적 논란보다 국민의 삶의 질적 성숙과 건강한 국토의 보전이라는 실용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분과 '일본불교'에서는 테라오 이치 교수(日 미노부산대)가 '중세 백련종에 있어서 장송에 대하여'를 통해 "일본 불교 정착에 불교적 상장의례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장의례 정비는 백련종 등 일본 선종에 의해 진행됐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다.

제6분과 '선불교'에서는 가이 뉴랜드 교수(美 센트럴 미시간대)가 '청정과 기쁨: 독신 탄트라 학파의 깨달음'를 통해 티베트 탄트리즘에 대해 소개했다. 뉴랜드 교수는 "티베트 불교 중 하나인 겔룩파는 근본불교의 수행자적 청정성과 하나가 되려는 시도로 경전과 밀교 수행을 통합하려는 가르침"이라 설명했다. 그는 "모든 종교적 수행의 기본인 도덕적 청정성에 있다"고 강조해 티베트 불교가 한국 선종의 막행막식 등과 견해를 달리함을 피력했다.

티베트 탄트라의 섹슈얼 요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법열에 관해 그는 "청정한 마음(법열)은 흔히 성행위를 통해 느끼지만 죽는 순간 혹은 사후에도 공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랜드 교수는 "밀교 수행이 다른 불교와 구분되는 점은 어떤 계율도 어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라며 "수행의 과정에서 자신이 완벽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확신 속에 수행을 하는 것이 밀교 수행"이라 말했다.

종호 스님(동국대)은 '간화선의 용어 일고'에서 화두(話頭)의 두(頭)가 일반적인 접미사적 개념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 세계를 나타낸 것이라 주장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스님은 "화두의 '두'는 근본 현상을 말로 나타낸 것으로 할 · 방처럼 선의 핵심적 본질을 나타낸 것으로 근본세계를 뜻한다"고 말했다.

제7분과 '불교사'에서는 대승불교 권위자인 사사끼 시즈까 교수(日 하나조노대)가 '<대비바사론> 연구의 의미'를 발표했다. 사사끼 교수는 <대비바사론>의 특징을 ▲분량이 많아 교의상 정보량이 많은 점 ▲초기 아비달마가 <대비바사론>에 의해 체계화됨 ▲저술된 스타일이 한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불교계에 존재한 다양한 학설을 소개하고 상세히 논한 점 ▲1500여개의 경전인용과 3000여개의 율장 인용 등 다양한 문헌을 인용함에도 정확한 출처를 표기해 불교의 문헌학적 연구에 중요자료라는 점 ▲계통을 달리하는 <대비바사론>의 3개 한역본이 존재해 설일체유부 내부의 계통상태를 알 수 있는 점으로 열거했다.

사사키 교수는 "<구사론>은 범본 등이 발견돼 경이적으로 발전했으나 <대비바사론> 연구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불교세계 최대의 철학적 성과인 <대비바사론>의 폭넓은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8분과 '불교예술과 생명'에는 판 멩 스님이 '불교에서의 인간과 동물의 위상'에서 "동물을 통해 자비심을 발현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혜선 스님(한마음 선원)은 '음악을 통한 포교'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스님은 "음악은 보편적 언어로 문화를 초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한마음선원 합창단의 '선법가'의 기능과 효과를 정리했다. 선법가는 대행 스님의 계송에서 가사를 빌어 온 노래로 선에 대한 가르침의 노래를 뜻한다. 혜선 스님은 "찬불가보다 관조적인 음계의 형식과 마음을 반조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현대인의 수행 방편으로 좋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법하기 위한 다양한 포교기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타미야 마사시 교수(日 슈쿠도쿠대)는 '비하라의 계창과 전개'를 발표했다. 타미야 마사시 교수는 1950년대부터 '비하라' 용어를 만들어 주창한 인물 '비하라'는 불교 호스피스로 불교를 배경으로 한 터미널케어시설의 호칭을 뜻한다. 그는 '비하라의 계창과 전개'에서 도입 초기의 종교는 포교를 위해 의료사업활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삼국사기> 제4권 신라본기 제4의 내용을 인용해 설명했다. 타미야 교수는 터미널케어의 불교적 수용이 '비하라'의 전개라 설명하며 "불교와 한자를 공유하는 한국 · 일본 · 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비하라(불교 터미널케어)를 통해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제9분과 '요가 및 불교명상'에서는 우희종 교수(서울대)가 '복잡계 이론으로 본 깨달음의 탈신화화'를 발표했다. 우희종 교수는 "부처님 당시에는 쉬웠던 가르침이 후대에 이르러 복잡해지면서 신화화, 화석화됐다"고 전제한 뒤, 복잡계 이론으로 깨달음을 설명했다. 우 교수는 "깨달음은 자기조직적인 창발현상으로, 깨달음(悟)이라는 상전이 과정이 거쳐 나타나는 새로운 창발적 상태가 깨어있음(覺)"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우 교수는 "한국불교가 깨달음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며, 궁극적으로는 깨어있음을 지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10분과 '불교응용'에서는 아오키 코쇼 교수(日 와세다대)가 '지금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문제에 대한 불교도의 책임'을 발표했다. 아오키 교수는 "불교사상은 평화롭고 진지하며 건강하고 자비스러운 부드럽고 훌륭한 사상이며 철학"이라며, "불교의 계율은 명령이 아닌 본질적으로는 습관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간적인 사상이 불교"라고 거듭 강조하며 불교도들이 불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세계를 구제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창종공고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각 지역구 종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태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일주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장학금 전달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5월 12일 심원사 법당에서 철원 · 경기 지역 학생 36명에게 각각 장학금 30만 원씩 전달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열려
영월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6월 21~22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몽당연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033)375-9173



법현 스님 특강
서울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은 6월 4일 오후 7시 대전 보현불교대학에서 '지혜로운 불자의 삶'을 주제로 특강을 연다.(042)624-6555



나눔사랑 일일호프 개최
고양 일산노인복지관 관장 능인 스님은 6월 14일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08 나눔사랑 일일호프'를 복지관 내에서 개최한다.(031)919-8677



한중일 불교와 인문학의 소통 학술세미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혜원 스님은 5월 30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한 · 중 · 일 삼국의 불교와 인문학의 소통'을 주제로 봉축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02)2260-8507



한국선학회 회장 선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김영두 교수는 5월 22일 동국대에서 열린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5대 한국선학회 회장에 추대됐다.

"깨달음의 사회화 실천하는 도량 가꿀 것"

'베풀어 풍요로운 절 충정선원' 개원한 학송 스님

서울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3번 출구와 이어진 리시온 빌딩 429호. 출입문에 '베풀어 풍요로운 절 충정선원'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다. 최근 개원한 충정선원은 강원도 횡성 불영사(佛迎寺 주지 학송)의 포교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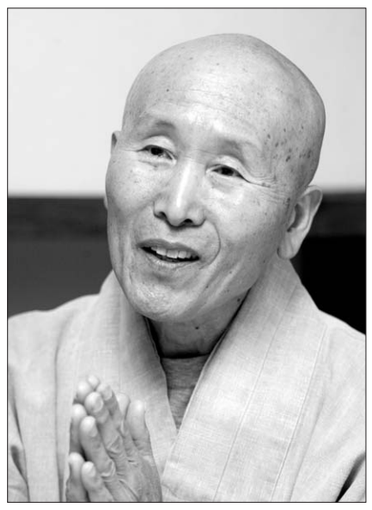
불영사는 고려시대에 3대에 걸쳐 대원수를 지낸 무장(武將) 조충 장군 가문의 입태(入胎)기도 터인 삼원수골에 학송 스님이 중창한 관음기도도량이다. 충정선원은 학송 스님의 원력인 '깨달음의 사회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교양강좌 및 차문화보급과 담론의 도량으로 개방된다.

"세상의 혼란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람은 개체적 존재이지만 사회적 존재이고 초월적인 특성도 갖습니다. 사람 개인의 초월적 특성에 상응하는 진리와 사회적 특성에 상응하는 제도 그리고 개체적 특징에 상응하는 탐애력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에 부합된 새로운 사상과 이 사상을 구현 할 새로운 인물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완벽한 조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사회화입니다."

학송 스님은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충정선원이란 이름 앞에 '베풀어 풍요로운 절'이라 수식 한 것도 개인의 삶 속에 내재된 사회성에 대한 자각이 다시 개인의 행복과 풍요를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학송 스님은 충정선원을 진리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도량, 인간 방생 불사의 도량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소유와 소비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탐심을 억제하지 않으면 사회악은 그칠 수 없습니다. 충정선원은 그윽한 차 향기 속에서 절제된 소비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지혜를 배우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새 생각의 실천,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학송 스님의 원력은 각종 강좌와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대안제시 등을 통해 구체화 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뒤, 수차례 출가의 길을 향해 발길을 옮겼으나 인연을 만나지 못했던 학송 스님은 재가불자로 한 갑자를 살고 난 뒤에야 소천 스님의 '위폐상좌'로 출가했다. 세계일보 신문 춘예에 수필 '결재판'으로 등단(1992년)하고 창



원기능대학 교원, 새생각실천회 회장 등 활동을 해 온 학송 스님은 노인의 축적된 경험들을 청장년층을 위해 재활용하고는 등 종합적인 복지를 구현할 봉로원(奉老院)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하산 그 다음 이야기> <아이고 부처님> <정도령(正道令) 정도령(正道領)> 등의 수필집을 내기도 했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안국사-무주군, 템플스테이 협약 체결



무주 안국사(주지 도안)와 무주군은 5월 14일 관광자원의 효율적 상품화와 문화체험을 결한 템플스테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국사가 운영하는 '산사로의 초대' 프로그램은 1회 80명이 동참해 1박 2일과 2박 3일 일정의 예불과 108배, 참선, 발우공양 등 산사체험과 태권도 등을 배워볼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안국사와 무주군이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인 무주투어 상품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세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방송 개국 13주년 기념 공연 열려



광주불교방송 개국 13주년 기념 축하공연이 5월 22일 광주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 본부장 금강 스님, 무등 스님 등 사부대중 100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는 가수 배일호, 소명, 강진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상진 사장은 "호남지역 포교를 위해 1995년 출범한 광주불교방송이 앞으로 바른 방송, 편안한 방송, 지우침 없는 방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전남지사장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전체 연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종무원 전체연수가 5월 22~23일 양평 남한강 연수원에서 열렸다. 120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불교, 오래된 미래-불교의 르네상스를 위하여' 특강, '가칭 종무원 행동규범 제정을 위한 토론회', 사상심리연구소 류종영 소장의 '유형진단과 팀웍형성', 챌린저코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종무원들은 바람직한 종무생활을 위한 행동규범(청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83-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콘서트로 할머니들 아픔 알릴게요"

나눔의집에 200만엔 전달한 재일교포 가수 이정미씨

경기도 광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집(원장 원행)에 아름다운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재일교포 2세 가수 이정미씨가 5월 18일 나눔의집을 찾아 요양원 건립불사에 힘을 보탠 것이다. 이씨는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면서 200만엔(약 2000만원)을 쾌척했다.

이씨가 처음 나눔의집을 찾은 것은 2003년이었다.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전해들은 것이 다였다. 그러다 2003년 한국에서 공연을 열면서 이씨는 나눔의집을 방문했고, 그 때 이미 할머니들에게 인연을 느꼈다고 한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할머니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지난해 2월 일본 도쿄 히토츠바시홀에서 '아라이 에이이치, 이정미 나눔의집 지원 조인트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신 분들은 주로 나눔의집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보신 분들이었습니다. 880석 규모의 콘서트장이 꽉 찼을 때, '이렇게 할머니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3년간 준비한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이씨를 좋아하는 팬들과 나눔의집을 응원하는 힘이 합쳐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씨는 이번 방문이 6번째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할머니들을 방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눔의집을 찾을 때마다 말벗은 물론 안마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이씨의 모습에 할머니들도 감동했을 정도다.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위안부'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콘서트를 통해 할머니들의 존재를 알릴 생각입니다. 제 콘서트가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한편 나눔의집은 "이씨 외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70대 여성이 1000만원을 기부했다"면서 "기부금은 나눔의집 요양원 건립 및 할머니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신문으로 불교의례 함께 고민하고파"

연화회 유재철 대표



"장례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불교상장례문화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이번에 신문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불교장례 신행포교 공동체 연화회 유재철 대표가 불교상장례문화를 진작시키고 불교적 의식과 의례를 재발굴하기 위해 '불교의례신문'을 발행한다고 5월 20일 밝혔다.

유 대표가 앞으로 발행할 불교의례신문은 격월간 무가지며 일반 신문 판형과 같은 대판으로 제작된다. 예상 발행 부수는 3만부인데 이는 서울 경기 지역 2000여 곳의 사찰을 비롯해 신행단체, 병원 법당, 복지단체, 군법당, 관공서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창간호는 6월 1일자로 발행된다.

유 대표는 "상장례는 포교로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의례기에 관련 교수들과 함께 신문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면서 "신문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사찰재정지원금 등으로 쓸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연화회는 6월 2일~8월 18일 매주 월요일 총 12회에 걸쳐 서울 불교인재개발원 교육관에서 '불교 상 · 장례 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02)735-2428 김강진 기자

청계사 경판 인출본 봉헌의례 봉행



경기도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5월 22일 '경판 인출본 봉헌의례'를 봉행 했다. 의례에는 청계사 회주 종상 스님과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형구 의왕시장 박석근 의왕시의회의장 등 지역 인사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했다.

이날 의례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3월 26일까지 전통방식으로 세척하고 먹칠, 인출, 제본 등의 과정을 거친 466판에 새겨진 내용들을 인출한 책이 선보였다. 인출본은 <묘법연화경>과 불교강원교과목 및 의식문헌 등이다. 임연태기자

한글한문 (겸 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 : 예경:각청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앞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전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묵 합장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화제의 책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 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읽고나면 일체의 고통과 절망의 시름과 슬픔과 고통을 벗어나서 마침내 승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웰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미륵정사
• 법 명 : 보문 (김길곤)
• 주 소 : 경남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 767-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법하

탈 종 공 고

• 법 명 : 도법 (백운회)
• 주 소 : 경북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1060번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동두천에 네팔법당 '용수사' 개원

능인선원 YBA 3년간 불사 결실…네팔 이주민센터로 활용도

경기도 양주 동두천에 가뭄의 끝을 알리는 봄비가 오던 5월 18일. 날은 다소 쌀쌀했지만 동두천의 한 건물에서는 한국과 네팔 불자간의 훈훈한 정이 오고갔다. 능인선원 YBA(Young Buddha Association: 젊은부처들, 총재 지광)가 국내에 체류 중인 네팔인들을 위해 '용수사(주지 우르겐 라마)'를 개원한 것이다.

동두천 신시가지 지행동 네팔법당 용수사 개원식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시공무원, 네팔대사, 이주민노동자 등 내외국인 300여명이 모여들었다. 230㎡이 넘는 법당은 용수사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이번 용수사 개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요즘 일어난 큰 사건 중 하나다. 한국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고,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 산업이 이끌어지지 않음에도 여전히 이들은 '이방인'이다. 그런 와중에 능인선원 YBA에서는 불교가 주 종교인 네팔인들이 조금이나마 불심을 챙기고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당을 조성한 것.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큰 뉴스였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 체류 중인 네팔인들은 대략 8천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중 1천여 명은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용수사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외국인 이주민센터'를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불자가 아닌 네팔인들도 수시로 찾아와 고향 사람들과 정을 나누면서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녹아있는 것.



능인선원 YBA가 양주 동두천에 마련한 네팔법당 용수사 개원식에는 지광 스님(왼쪽 사진 맨 오른쪽)을 비롯해 수 많은 불자들이 참석했다.

YBA에서는 용수사를 개원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계획을 짜고, 불사금을 모아왔다. 지난해 8월 능인선원에서 연 '만다라 전시회' 수익금도 용수사 개원에 쓰였다. 능인선원 지광 스님은 이날 3년간 노력한 결실에 감격한 듯 "세계는 하나, 우주는 하나"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까말 프라사드 코이랄라 네팔대사도 "대사관 설립 1년 만에 찾아온 큰 경사"라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 외 여야의원, 네팔 스님 등 참석한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몇 해 전부터 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러나 불법체류 이주민정책과 맞물려 그들을 위한 정책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인권, 의료 등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용수사를 개원한 YBA 측은 "이들도 이주민이기에 앞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정서를 가진 사람인데 그들은 위한 문화·종교정책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동두천 일대 네팔노동자들을 위한 법당을 마련하니 너무나 기뻤는지 저녁까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용수사 신임주지 우르겐 라마 스님은 "법당을 찾는 네팔인들의 미소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하나 되는 세상이 보이는 듯 했다"며 "생각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육신은 피곤했지만, 네팔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은 너무나 기뻤다"며 연신 밝은 모습이었다.

■용수사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용수사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가스렌지 등이 기본적으로 구비돼 있다. 용수사가 외국인노동자 쉼터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앞으로 용수사는 어떻게 운영될까. YBA는 "네팔 사람들이 자조모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한다. 즉, 네팔 노동자들 자체 모임형성을 적극 유도해 공동체를 형성, 심리적 지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역시 네팔인 자조모임이 형성되면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려갈 예정이다. 용수사를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YBA의 바람이기 때문. 물론 YBA에서 후원금은 계속 전달한다.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한국어교실도 운영될 예정이다.

법회도 진행된다. 매주 일요일마다 주지 우르겐 라마 스님을 법사로 네팔식 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031)863-2204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수행도량 건립 '희망의 불' 밝힌다

조계종 혜광시각장애인불자회 양초판매 개시

조계종 혜광시각장애인불자회(회장 김부봉)가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양초 판매'를 시작한다.

시각 장애인들 스스로 수행정진하기 위해 1990년 설립한 혜광시각장애인불자회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수행도량을 지어야겠다는 자체 의견을 모아 10년 전부터 바자회, 일일찻집 등을 통해 수행도량 마련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왔다. 그러면서 춘천시 남산면 일대에서 조립식 가건물을 짓고 공동생활체로 함께 정진한 결과, 올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산수 1리에 1만평 부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 부지에 '혜광정사'를 지어 시각장애인들의 기도도량을 겸한 장애인 노후복지 생활시설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6월 10일 착공에 들어갈 혜광정사 불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건립 기금 6억원 중 절반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혜광시각장애인불자회는 그래서 자립의 서원을 세우며 '양초판매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혜광시각장애인불자회에서 판매할 양초는 경남 김해시 공장에서 지체장애인 15명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며, 종류는 약 170가지다. 가격은 법당용 밀대 1박스 50개를 6만원에 판매한다. 밀대 외에도 다양한 양초가 구비돼 있기 때문에 개인, 도·소매업자, 사찰 등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양초 판매 뿐만 아니라 폐초 수거 사업도 함께 한다고 전했다. 폐초는 이후 산업용 양초로 다시 납품,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 역시 전액 혜광정사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혜광불자모연회 배주관 회장은 "이번 사업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협력해 서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들도 노년 대비를 하면서 열심히 수행정진, 성불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55)313-2700 김강진 기자

복지현장을 달리는 사람들

봉사는 내운명… "감사해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만난 간병 호스피스 봉사자 서형여(49)씨는 수요일마다 이곳에서 6~12명의 환자를 돌본다. 매주 수요일, 어김없이 만나는 환자들을 볼 때면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서씨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활달한 성격과 넉넉한 웃음이 서씨의 '트레이드마크'다. 서씨에게 다가간 한 병원 직원이 묻는다. "항상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안 힘드세요?" 그러자 서씨가 답한다. "하나도 힘 안들어요. 정말이에요."

호스피스 봉사자 서형여씨



서씨는 현재 '주 5일제 봉사'를 하고 있다. 하상장애인복지관, 성동노인복지관, 장암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까지 종교를 초월해 어디든 달려간다. 그렇게 산지 벌써 7년째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서씨의 아들이 중학생이 됐을 무렵, 그는 갑자기 또래 친구들과의 쇼핑이나 여행 등이 무료하더란다. 어느 날 길을 걷다 보니 문득 안암동 개운사에 이르게 됐는데 그는 여기서 '운명처럼' 한 문구에 눈이 갔다고 한다. '고대안암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서씨는 그렇게 그 교육을 신청하면서 봉사자의 길을 걷게 됐고, 지현 스님(고대병원 법당 지도법사·호스피스 봉사)과 만나게 됐다.

처음부터 병원 봉사, 그것도 호스피스 봉사라니 정말 겁 없는 사람이 아닐까 싶었다. 봉사자 성향이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병원 봉사만큼 심적으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7년째 종교초월한 호스피스 봉사

"불자로서 대사회적 자비행 실천"

"저는 진짜 처음부터 괜찮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격에도 잘 맞고요. 병원 와서 아픈 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런 것이 참 좋더라고요."

서씨는 '힘들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 아픈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은 거의 중증 환자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말기암 환자들이나 희귀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앞에서 서씨는 항상 웃음을 준비한다. 그리고 또 하나, 종이접기 도구들을 준비한다.

"종이접기를 하면 환자 분들이 잠시나마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그 분들의 마음을 환기시키도록 만드려고 종이접기를 하는데 재밌어 하시니 저도 좋아요."

때로는 환자들이 서씨에게 매몰차게 구는 경우도 없진 않았을 터다. 그래도 그는 예사롭게 넘길 줄 안다.

알고 보니 서씨의 삶은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이 컸다. 팔순을 전후한 연세인 서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 서씨는 "항상 여유롭게 자식을 키우셨던 부모님께 늘 감사드린다"고 말한다.

그가 진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다. 불자들 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병원 봉사를 기피하고 호스피스 봉사라는 거창한 대의를 갖고 온 사람들도 대부분 조금만 지나면 고개를 흔들더라는 것이다. 서씨는 "건강한 사람들의 편견으로 환자를 보면 힘들 수밖에 없다"면서 "불자들이 병원 봉사를 통해 대사회적으로 자비행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항상 밝게 웃는 서씨지만 불자로서, 봉사자로서의 의지와 신념만큼은 확실한 것이다.

"저는 지금 이대로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 같아요. 병원 봉사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자님들, 우리 함께 봉사해요!"

글·사진=김강진 기자

태아영가 천도재 안내

태아영가는 엄마, 아빠의 업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 태아영가입니다. 엄마, 아빠는 무거운짐과 죄를 벗어 낙태된 태아영가에게 참회기도와 함께 다음생에 밝은 빛을 보게하여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세요.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생각을 미루지 마세요. 태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 하루속히 저를 어둠속에서 벗어나 밝은 빛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지금도 태아영가는 슬프게 말합니다. 기도해달라고…

◎ 망태아도 생명이다.
◎ 부모의 업으로 살생한 업보다, 그 업보로 악연이 되어 많은 고통을 얻게 된다.
◎ 엄마, 아빠는 그 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음생에 좋은 인연으로 맺어주시기를 발원합시다.

기도안내 **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입재일 : 양력 6월 1일 - 일요일**
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회향일 : 양력 7월 20일 - 일요일
기도는 입재 / 3재 기도 / 5재기도 : 관욕 / 7재 기도 : 회향

준 비 물 분유(우유), 과일, 사탕, 초코파이 등
(5재 관욕에 필요한 태아 비누,수건,양말, 옷, 신발 등)

계좌번호 국민은행 217801-04-021932 (구담사) / 농협 225051-51-113712 (구담사)

대한불교조계종 엄마 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95 / TEL : (031)533-2855, 2584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를 쓰세요. http://gudam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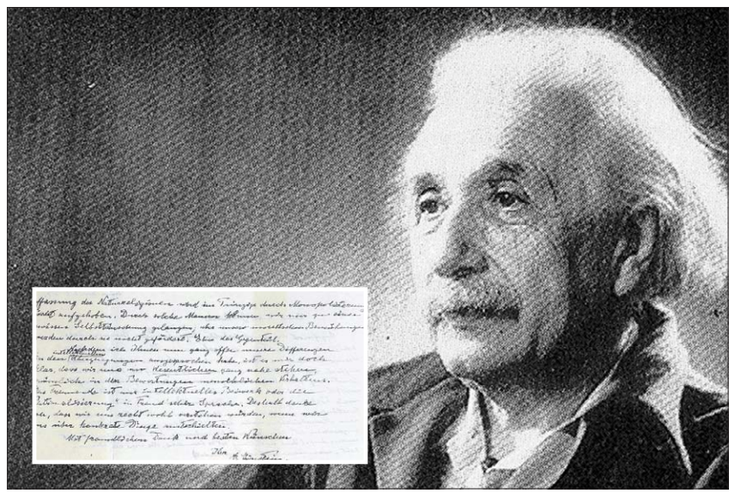
구담사 찾아오는길

1호차 : 조계사 앞(7:00)⇒ 한성대입구역1번 출구(7:10) ⇒ 길음역 10번 출구(7:10) ⇒ 미아삼거리역1번출구(7:20) ⇒ 수유역1번출구(7:30)⇒도봉산역(8:00)⇒일동시내 ⇒ 구담사
2호차 : [지하철 7호선] 태릉역5번 출구(7:20) ⇒ 노원역3번 출구(7:30) ⇒ 도봉산역(8:00) ⇒ 의정부터미널 앞(8:20) ⇒ 일동시내 ⇒ 구담사
3호차 : [지하철 3호선, 7호선]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출구 신세계백화점 앞(7:20) ⇒ 강변역 테크노마트앞(8:00) ⇒ 일동시내 ⇒ 구담사
4호차 : [지하철2호선]강변역 테크노마트앞(8:00) ⇒ 광나루역3번출구 버스정거장(8:05) ⇒ 구리역앞 GS백화점 육교밑(8:20) ⇒ 구담사
5호차 : [지하철1, 2호선]신도림역 1번출구 육교건너 푸르지오앞(06:30) ⇒ [1호선]구로역 구로사거리 열린웨딩부페앞(06:35) ⇒ [5호선]목동역 1번출구 좌측(06:45) ⇒ [3호선]일산 백석역 7번출구(07:15)⇒원당역 6번출구(07:30) ⇒ 의정부터미널(08:10)⇒일동시내 ⇒ 구담사

※ 버스 이용하실 분은 해당지역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불교는 우주적 신앙"

해외불교칼럼



아인슈타인의 '무신론' 관련 편지는 5월 15일 경매에서 4억 2000만원에 낙찰됐다.

독일태생의 유태계 물리학자로 1921년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아이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긴다. "불교에는 우리들이 장차 우주적 신앙에서 기대하게 될 특성들이 함축되어 있다. 불교는 특정한 신의 존재를 초월하며 독단(dogma)과 신학체계를 회피한다. 또 불교는 자연과 인간의 영혼을 함께 아우른다." 이처럼 그는 불교가 지구인의 신앙의 범주를 뛰어넘어 우주적 신앙으로 승화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그의 예언에 화답하듯 할리우드의 대전법사인 조지 루커스 감독은 영화 '스타워즈'를 통해 그 개연성의 일부를 가시화 한다.

아인슈타인의 친 불교적인 언급으로 인해 그가 독일의 저명한 교향악단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도반처럼 '드러나지 않은 불자'라 속단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듯 초조한 패거리 발상은 우리 불교인의 몫이 아니며 굳이 그럴 까닭도 없다. 어쨌든 신앙의 문제에 관한한, 그는 중도(中道)를 벗어난 적이 없는듯하다. 그래서 기독교적 양분사고와 마녀사냥에 길들여진 일부 서구인들은 그가 모호하고 상치된 종교관을 지녔다며 눈을 흘기기도 한다. 그나저나 '나는 천사를 할게, 너는 악마가 되어줘'하는 투의 가소로운 독단과 신학체계는 그를 몹시 피곤하게 했나보다.

그런데 5월 13일 영국 런던의 메이페어의 블름스베리 경매장에 그의 종교관을 명증하는 자필서한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매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 이 서한에 그는 '신을 믿는다는 건 유치한 미신'이며 '유태인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라 쓴다. 또한 그는 '유태인들과 친근감은 느끼나 이는 모든 타인들에 대해 지닌 친근감과 별다를 게 없다'고 잘라 말한다. 다음은 영국의 가디언 지의 관련기사 중 일부다.

그는 1954년 1월 3일 철학자인 에릭 굿킨트에게 보낸 독일어 서신에 이렇게 썼다. '신(God)이란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human weakness)의 표현이자 그 산물일 뿐이다. 그리고 경전(the Bible)이란 거룩해 보이긴 한데 실은 꽤나 유치하고 원시적인 전설들(primitive legends which are nevertheless pretty childish)의 모음이다.' 경매관계자는 지난 50년 이상 한 개인소장가가 보관해온 이 독일어 서신이 5월 15일에 팔린다고 밝혔다. 동 서신에서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제2대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요청을 거절하며, 유태인이 신의 선택을 받은 선민(選民)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다. '여느 종교들처럼 유태교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미신 그 자체다(an incamation of the most childish superstitions). 나는 언제 어디서든 유태인들과 기꺼이 어울린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나누는 정서적 친밀감은 타인들에 대한 친밀감과 전혀 다를 게 없다. 내가 체험한바, 유태인들이 힘이 없어 타인들의 보호를 받을지언정 자신들이 타인집단보다 낫다고 내세울 건 전혀 없으며, 아무런 선택도 받은 바(anything chosen) 없다.' 이 세기적인 과학자는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라 말하는 등 대체로 종교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경매관계자는 그가 이 서한을 통해 종교라는 주제에 대해 우회하지 않고 분명한 견해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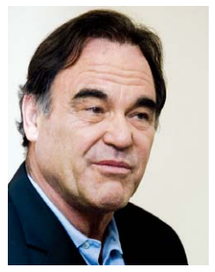
하지만 실제로 그는 그런 퍽퍽한 얘기보다는 우스개를 훨씬 좋아했나보다. 어떤 이가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어찌 될까요?"라고 묻자, 그가 대답한다. "난들 알겠어요? 암튼 그 담에 4차 대전이 터지면 그땐 서로 막대기로 때리고 돌팔매질하며 싸우겠죠." 즉, 3차 세계대전이 나면 모든 것이 죄다 파괴되어 원시시대로 되돌아가고 말 거라는 경고다. 또 다른 이가 상대성이론을 설명해달라고 보채자 그는 아주 쉽게 가르쳐 준다. "뜨거운 난로에 손바닥을 갖다 대면 일 분이 한 시간이지만, 예쁜 아가씨랑 함께 앉아 있으면 한 시간이 일 분이죠. 그게 상대성이론입니다." 흰머리를 휘날리며 자전거 타길 즐긴 그는 자신의 서한이 50여 년 후에 경매장에 나돌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또 티격태격할 걸 짐작한 듯 이런 너스레도 미리 남겨둔다.

"무한한 건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주, 그 두 가지죠. 근데 난 우주의 무한함에 대해선 별로 확신이 안서걸랑요." 성휴 스님

참조: AFP, Guardian

"불교 철학 바탕으로 창작활동"

월드 스타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❶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작가이며 제작자, 특히 조지 루커스와 더불어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영상전법사라 할 올리버 스톤은 참으로 사연이 길고도 많은 도반이다. 지금껏 예순 해 남짓 살아온 그의 삶이 곧 기나긴 만행이자 한 편의 서사시라 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지나온 역정을 한마디로 무문관(the Gateless Passage)이라 말한다.

그 역시 할리우드의 명작곡가인 필립 글래스 도반처럼 명문대학 출신의 구도적인 방랑자이며 또한 꿈을 먹고 자라는 영원한 천재소년이다.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건데, 내가 여태 해낸 모든 일들은 오직 꿈을 놓치지 않았기에 실현이 가능했다. 꿈은 나를 늘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안겨줬다. 나는 얼핏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일들, 즉 거친 전쟁터에 나가 참된 인간애를 배우고, 뱃사람이 되어 너른 바다를 떠돌며 인생고해(人生苦海)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국의 여인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갖게 됐다. 그 모든 일들이 이뤄지도록 해준 것이 바로 꿈이다. 나는 가없는 윤회의 길목에서 창작활동을 한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꿈꾸고 그리는 바를 영화로 만들어 보여준다. 그 모든 일이 이뤄지도록 도와준 것 또한 꿈이다."

그는 현대 영화계를 통틀어 영화제작에 있어 흥행성과 경제적 고려보다는 독특한 작품성에 역점을 두는 영화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손수 대본을 쓰고, 감독과 제작까지 도맡았던 '어느 일요일에' '하늘과 땅' '7월 4일 생' '닉슨' 등은 폭발적인 인기와 더불어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가 직접 대본을 쓰고 감독한 '플래툰' 'JFK' '살바도르' 등은 직설적인 사실성과 냉혹한 긴박감으로 인해 관객들을 섬뜩한 전율의 파장으로 내몰아간다.

그 밖에도 '타고난 살인자들' '문' '월스트리트' 등 시대적 걸작들을 줄줄이 내놓은 그는 1946년 뉴욕 시에서 출생한다. 그의 아버지인 루 스톤은 무신론자인 유태계 미국인으로 증권거래 부문에 종사했는데, 사업이 한창 번창하던 시기에는 투자자들을 위해 정치와 시사경제에 관한 월간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 재클린은 프랑스 상류 가문 출신으로 낙천적 품성의 가톨릭 신자였다. 본디 불자가 아니던 그가 어떻게 불연을 맺고 지금껏 이어오는지 '오스틴 크로니클'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기자가 묻는다. "종교에 관한 질문인데요, 감독님께선 가톨릭신자인가요? 유태교도인가요?"그의 대답이다. "둘 다 아닙니다. 저는 뉴욕에서 일요 성경반에 다녔으니까 오히려 개신교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셈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신앙심 같은 건 별로 없었죠. 전 그냥 놀기 좋아하고 뭐든 제 맘대로 하며 자랐어요." 상당히 부유층에 속하던 그의 가족은 맨해튼과 스탠퍼드, 코네티컷 등지의 고급주택가에 살았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남부럽잖은 유년기를 즐긴다.

다시 기자가 묻는다. "그럼 감독님께서는 불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불문에 들어선지 꽤 오래됐지만 지금도 항상 불법을 새로이 가꾸고 익히는 학생입니다." "네, 그런데 불법을 늘 새로이 가꾸고 익힌다 함은 무슨 뜻인가요?" "깨우침을 향해 늘 정진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제 화제가 자연스레 불교와 영화의 관계로 접어든다. "그렇다면 불교 수행이 감독님께서 만드시는 영화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지요?" "물론이죠. 제가 의도하든 안하든 늘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늘 노력을 합니다. 좀 의아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사실 불교와 영화는 서로 밀접하게 엮여있어요."

기자의 구체적인 질문이다. "네, 그렇다면 감독님의 불교철학과 내면세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내비쳐진 작품은 어떤 걸까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에요. 한 동양여인이 지닌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에게 처절한 고통을 안겨준 적마저 용서할 수 있는 고매한 불성을 보여주죠. 이는 정말 위대한 불교적 윤리관입니다. 독실한 불자인 그녀의 감화로 저도 불제자가 되어 처음엔 베트남 사원에 다니다 나중에 티베트 사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성휴 스님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A small kid monk beside him giggled "I knew it earlier"



곁에 있던 동승이 킥킥거렸다. "난 벌써부터 알았는데"

As a Buddhist priest became more famous, bus loads of visitors started visiting his monastery. Most of them made a fuss around as if visiting an amusement park. And the priest said in deep sigh,"Sometimes, I think many of these people just stop here because they have to use our bathroom". A small kid monk beside him giggled, "I knew it earlier."

어느 스님이 점점 널리 알려지자 방문객들이 버스 하나 가득 줄지어 그 절로 찾아들기 시작했다. 마치 놀이공원에라도 놀러 온 듯 온통 소란을 피우는 그들을 바라보던 그 스님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허, 어떤 땐 저분들이 그저 우리 절의 해우소가 필요해서 들리신 것 같아." 그러자 곁에 있던 꼬마 동승이 킥킥거렸다, "난 그거 벌써부터 알았는데."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구나케투, 베트남 불교세미나 참석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소재한 서방불교연맹의 지회장으로 환경과 사회 분야에서 오랫동안 역동적인 참여불교활동을 벌여온 구나케투 도반이 5월 13일부터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된 '정의 민주 민권사회 건설에 있어 불교의 공헌'이란 주제의 세미나에 동 연맹의 대표로 참석했다. 출처:FWB

할리우드 불자들 미얀마 피해돕기 나서

5월초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여파로 현재까지 추정 사망 또는 실종자 약 13만 명과 엄청난 수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도반 등 할리우드 불자들의 자비행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동양계 입양아에게 직접 불교를 가르치는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도반은 세계적 아동보호지원과 쓰나미 등 각종 재난구호기금으로 2006년 한 해에만 미화 800만 달러를 희사한 바 있다. 현재 생존자들을 위한 천막, 담요, 기본 식량과 의료장비 등의 공급이 긴급하나 미얀마 군부는 피해실태를 축소은폐하고 보도를 통제하며 입국비자의 발급을 제한하는 등 국제적인 구호의 손길을 외면함으로서 작물피해, 식수오염 및 기아확산 등 후속 재앙의 위험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출처; KTV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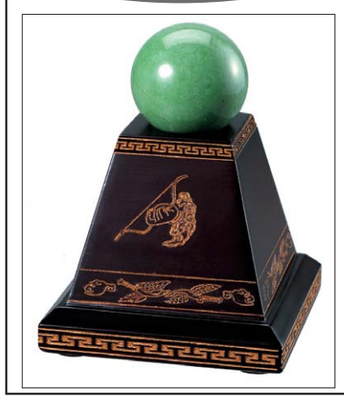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향기 도반의

노래도 봉사도 목표는 포교랍니다

노래로 '전법원력' 실천하는 고시아 포교사



#독특한 이름... '원력'을 잊지 않기 위하여

고시아. 그녀는 불자가수회에 소속된 가수다. 그리고 조계종 포교사(제10기)이고 서울 화계사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독특한 이름, 물론 예명이다. 성은 조상님께 물려받은 그대로이고 이름을 바꾸었다. 예불할 때 칠정례(七頂禮)에 나오는 '시아본사(是我本師)'에서 따 왔다. 자신의 서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택한 이름이다.

그녀의 서원? '포교'라는 두 글자로 압축된다. 노래를 하는 것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포교를 위함이다. 포교에 인생을 걸었다. 작은 동기가 일생의 원력으로 그녀의 삶을 바꾸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했다. 젊었기에 겁 없이 뛰어들었고 젊었기에 망했다. 그리고 젊었기에 고통과 방황의 터널도 길었다. 그 어둠속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읽었다. 법정 스님의 <텅 빈 충만>. 놀랍게도 그 한 권의 책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남의 탓만 했었어요. 세상 탓을 하면 내가 정당화 되고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앞뒤가 캄캄한데 누구를 찾아가 대화 할 곳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책을 읽었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이 내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길, 거기서 새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니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수유동에 갔고 '화계사'라는 안내판을 따라 절까지 갔다.

"그날 명부전에서 나의 아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뒤로 3년간 매월 지장재일에 화계사 명부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업을 실패하며 짊어졌던 부도사건이 해결되고 마음 안쪽에서는 앞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다져지자 그녀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화계사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포교사가 되었으며 불자가수회가 주관하는 노래자랑을 통해 가수의 길로 입문했다. 그녀에게 있어 포교사와 불자가수라는 '두 개의 캐릭터'는 포교라는 원력을 실천하는 '하나의 길'이 됐다.

#5월, 포교하기 가장 좋은 달

5월엔 기념일이 많다. 부처님오신날이 있고, 어린이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통틀어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고시아 포교사는 하루도 쉴 날이 없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뒤로 열리는 각종행사와 교도소와 군부대 포교행사와 지역단체에서 마련하는 효도 공연에서 노래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일정이 빼곡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스스로 소외된 독거노인들을 초청해 무대를 마련하고 어르신들과 어울리는 행사도 기획해 치러냈다.

"좋은 때에 혹시 한 분이라도 소외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잔치를 마련하는데 동료 불자가수들이 많이 도와요. 지역 사찰에서도 잊지 않고 선물 꾸리미를 내 주어 감사하구요."

세밀하게 기획하고 부지런히 발품 팔아서 마련하는 무대는 어르신들의 신명나는 어깨춤이 가장 큰 보상이다. 포교의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포교는 어떤 이유에서도 멈출 수 없다. 포교하기 가장 좋은 달 5월, 지난 한 달 그녀는 몹시 바빴다.

#인기가수 되면 포교가 더 잘 될텐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그녀는 두 번째 음반을 냈다. 2년 전에 낸 첫 번째 음반이 폭삭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했다. 첫 음반은 불교색이 너무 강했다. 홍보도 거의 하지 않았다. 트로트 가수의 음반인데 '찬불가요' 같다는 소리만 잔뜩 들었다. 이번엔 다르다. 소월의 시 '진달래 꽃'을 자신의 음색에 맞췄고 이종승 시인의 '인사동 부르스' 등을 담은 이번 음반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더 충실했다. 원로 작곡가 이동훈 선생이 모든 곡을 작곡했다. 그래도 자신이 작사한 '무상'은 불교냄새를 지우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그래, 천상 불자가 수일 수밖에 없다"고 핀잔(?)을 주지만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름 기대도 크다.

"지금보다 더 인지도 높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포교하는데도 여러모로 도움 되지 않겠어요? 인기 얻으려고 노래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노래도 봉사활동도 다 목적은 포교이니 이왕 하는 노래 더 잘하고 더 인기 있어야죠. 그래야 나머지 일들도 함께 잘 될 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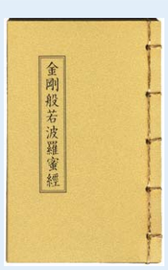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녀는 노래하는 포교사의 길을 걸어 온 것에 감사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를 충실하게 풀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은 더 바쁘게 더 열심히 할 생각이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 보다 효율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전문 기획회사도 만들었다.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포교당도 열 생각이다. 늘 노래가 흘러넘치고 소외 받는 사람들이 찾아와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 말이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상 불 소 영
장 량 장 가
의 식 사 용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된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서울환경영화제 5th · 21th 춘천마임축제







지구와 인간의 지속적인 충돌 그리고 대화.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지녀야할 생명의 존엄성은 이미 훼손된 지 오래다. 문제는 불교가 지구적인 불평등·압제·착취 그리고 환경 파괴의 현실구조를 설득력 있게 다루고 체계적인 제도적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느냐 이다. 결국 실용주의적 가치체계를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환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싼 모든 것, 자연과 사람과 모든 생명을 하나로 잇는 커다란 고리와 같다. 그런 점에서 생태계와 실용주의의 가치체계에 내제된 인간 혹은 기업의 욕망에 관한 복잡한 상호 관련을 불교적 관점으로 표현한 문화행사가 눈길을 끈다.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펼쳐라! 즐겨라! 느껴라!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CGV 상암'에서 펼쳐지는 녹색축제 서울환경영화제는 환경재단이 주최한 '생생한 지구를 위한 영화선언'이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더불어 사는 미래의 환경을 가꾸기 위한 대안과 실천을 모색한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며 후원기업의 녹색 마케팅 에코비즈니스(echo-business)를 경험할 수 있다.

'문명의 저편' 섹션에서 만나는 밧문수 바아타르(BatmunhSuhbaatar) 감독의 독일 영화 <날개(Jiguur)>는 행글라이더로 평원을 나는 꿈을 꾸는 11살 몽골 소년 부마의 이야기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 절의 노스님에게 맡겨지면서 행자 생활을 하게 된 부마의 성장기를 그린다.

책으로 잘 알려진 <오래된 미래>를 '문명의 저편' 섹션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난다.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라다크는 히말라야 서쪽의 아름다운 사막 고원이다. 비록 자원은 부족하고 기후는 혹독하지만, 천년 이상 번영을 누려온 문화의 고장이다. 그러던 이들에게 세계화와 소비위주 문화가 들어온다. 감독 헬레나 호지(Helena Norberg-Hodge)는 세계적인 생태환경운동가다.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 산업적 농업을 다시 생각한다>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등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에 관한 감독과의 워크샵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영화경선을 필두로 세계 71개국에서 출품된 721편의 환경영화와 만난다. 친환경적인 영화제 운영을 통해 CO_2 배출 없는 영화제를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환경 이슈인 기후변화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에 의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과 기업경영의 자세를 되새기게 하는 태안 관련 특별전도 함께 한다. (www.gffis.org)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춘천에서 펼쳐지는 아시아 최대의 마임축제로 가보자. 마임의 한계를 넘어 몸·움직임·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순수 공연과 거리제 그리고 난장이 결합된 현장 속으로 도깨비 열차를 타고 떠난다.

춘천의 도심 속에서 벌어지는 '아!水라장'을 비롯하여, 고슴도치섬 아름다운 자연의 품 안에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새벽을 질주하는 '미친금요일'은 축제와 예술에 미친 심지 굵은 마니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공간이 된다. 마임을 비롯한 현대공연예술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밤도깨비난장'에서는 '열반화(涅槃花)'를 비롯한 '인도 바울예술단-호리볼'의 공연 등 다채로운 놀거리로 가족, 연인과 함께 밤을 새며 열정을 맛볼 수 있다.

마음의 집에서 공연되는 유진규네 몸짓의 <빈손>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는 않지만 같이 흘러가고 있는 세계를 현대적인 몸짓으로 드러낸다.

살아있음에 대해 탐구하는 조은성의 <바라다보다>는 '끝없이 희망하고 있다'와 신념과 상념 속에 '끝없이 싸우고 있다'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부조리적 진행형을 이야기 한다. <스페이스달마> 우주천왕은 안의비설신의(眼醫脾泄宸意)를 놀이의 즐거움으로 재탄생 한다.

'마음시장'의 '지구를지켜숍'에서는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재생산 하거나 다시 제작되어 작품 전시까지 이루어지는 재활용품의 재활용 프로그램을 펼친다. 이러한 활동은 춘천마임축제는 만들고 소모하는 축제가 아니라 다시 활용하고 되살리는 축제라는 것을 일깨우는 작업이다. 자연과 축제가 하나가 되어 자연 속의 축제, 축제 안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물과 안개의 축복을 받은 자연의 도시, 춘천. 춘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일탈의 Green Festival을 꿈꾼다. (www.2008.mimefestival.com)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교스케 지나이 회화展

자신의 친딸을 모티브로 일본회화 양식 위에 불교 사상을 신비로운 탐미주의로 자신만의 미감으로 표현하는 화가 교스케지나이(智內兄助)의 전시가 6월 13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갈라에서 진행된다.

1948년 일본에서 태어난 교스케지나이는 올해로 환갑을 맞는다. 일본과 프랑스에서의 꾸준한 개인전을 통해 널리 알려진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화가이다. 화가의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의 작품을 모은 개관기념 기획 전시이다.

연꽃·모란·벚꽃·대나무 등 자연 대상물을 소녀와 함께 재배치하여 명상 적이면서도 몽환적인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일본한지 위에 아크릴 칼라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그 위에 금박(金箔)·은박(銀箔)을 활용한다.

일본불교와 화가의 경험이 그려내는 심오한 세계와 만난다.(02)725-4250

가연숙 기자

渲染의 運用으로 자연 담는다

선염

'오산 홍성모'展 5월 29일 까지

"한국적 정체성과 서정성의 회화적 구현에 주목합니다. 담백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문인화풍의 수묵산수화를 화폭에 담고자 합니다."

오산 홍성모(동국대 예술대학 한국화 강사) 화가는 29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우림에서 전시를 연다. "본래의 색과 형태를 담고자 현장을 느끼며 사생하기를 즐깁니다. 중봉(中鋒)에 의해 필법을 조율하면, 엷게 퍼지는 먹과 조화를 이루지요(渲染의운용)." 사찰과 어우러진 고목의 자연 풍경을 담은 화가의 호는 깨우칠 '오(悟)'에 뫼 '산(山)'. 1993년 전시를 시작으로 올 해 다섯 번째 개인전이다.

그림 <도솔암 이야기> 앞에 선 화가는 당시를 회상하며 "산사의 가을빛은 고창 선운사가 절경입니다. 상사화가 핀 꽃길을 따라 걸어가는 기분이란 도솔천이 따로 없지요." 한국 전통 수묵산수화 세계에 내재된 문인적 정서와 현대수묵화의 조화가 담긴 유려함과 만날 수 있는 전시이다. (02)733-3738



작품 <도솔암 이야기(한지에 채색. 2007)> 앞에 선 오산 홍성모 화가.

가연숙 기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㊴ 곰피두부말이튀김



곰피, 미역, 다시마 는 강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쌀 140g의 산도를 중화시키는데 2.2g의 미역이면 충분하다. 고기나 생선 또는 달걀 등의 산성식품을 먹을 때 산도를 중화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식품이 미역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식품영양학을 알지 못했으나 훌륭한 식습관을 남겨 주었다.

식품 중에 들어 있는 칼슘은 함께 존재하는 인산과의 비율이 중요하다. 인산에 비해 칼슘의 양이 더 많아야 좋은 것이다. 곡류나 육류에는 인산이 훨씬 더 많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호르몬은 지방대사에 필수적인 구실을 한다. 군더더기 피하지방을 분해시켜 날씬해지게 하는 호르몬이며 근육운동을 날렵하게 하는 작용도 한다. 해조류에 들어 있는 특수성분 라미나린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미역을 잘 먹는 사람에게 혈압 높은 사람이 적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된다.

생미역 100g을 섭취해서 얻어지는 열량은 9kcal에 불과하다. 칼로리가 낮은 식품을 먹어야 하는 비만 인에게 해조류가 만복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매우 적어서 식이요법에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 이렇게 훌륭한 식품인 미역을 두부와 함께 슬기롭게 이용해 온 것이 사찰음식이다. 두부에 해조류를 곁들어 먹는 것이야 말로 궁합이 가장 잘 맞는 배합임을 입증한 것이 우리 한국인이다.

패스트푸드와 육류소비가 급속히 늘면서 섬유질 섭취가 줄어 변비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식을 위주로 한 식사로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변비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또한 미역을 먹으면 폐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해조류 중에는 니코틴의 유독성분을 무독화(解毒化)시킬 수 있는 메티오닌 성분이 매우 풍부하다. 이들 해조류 중에서도 미역과 톳이 150㎎%로 가장 높다.

해조류 니코틴 무독화 시키는 성분 풍부
두부와 해조류는 궁합이 잘 맞는 식품

곰피두부말이튀김 재료: 곰피, 두부, 밀가루, 전분, 소금, 식용유, 간장, 식초

만드는 법

①곰피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마른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②두부는 얇게 부쳐서 채반에 올려둔다.
③밀가루와 전분을 반반 섞어서 얼음물에 튀김옷을 반죽해둔다.
④곰피를 바닥에 펴 두부부침을 그 위에 놓고 둘둘 말아서 꽂이로 풀어지지 않게 고정한다.
⑤기름을 120도 정도 열을 올려서 곰피말이에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다음 먹기 좋게 썬다.
⑥초간장에 찍어 먹도록 하는데, 쫄깃함과 고소한 두부 맛이 어울려 환상적이다.



삼세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_서울 불자를 위한

부처님 진신사리
서울(상원사) 친견 특별 대법회

2008년 5월 23일 ~ 5월 25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장 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031-1 상원사

주 최 |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주 관 | 한국불교 태고종 대림2동 상원사
문 의 | 상원사 종무소 TEL. 02)833-0374~5
후 원 | 한국불교 태고종. 현대불교신문사. 한국불교신문사

상원사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6번 출구 도보 10분거리
안 내 |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가요~ 강의실로!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귀의하라

'부처님오신날' 기념 대중강좌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⑧ <끝>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우는 불자 신행

붓다의 일생을 표준화함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비춰질 수 있는 관계성의 문제이다. 문화적 변형에 의한 거대한 영역 안의 불교인 까닭이다. 한국 불교라는 특수성과 대승불교의 저변에 자리한 불교의 본질을 바로 해석해야 한다는 필요와 요구로 진행된 이번 대중강좌는 총 8회에 걸쳐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그 마지막 시간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간, 총 4인의 강사(김응철 · 권기현 · 이태승 · 황순일)를 초청해 두 달여간 조명해 본 붓다의 생애, 오늘은 '열반기'이다.



강사 : 이태승(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교수)
주최 :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후원 : 조계종 포교원
일시 : 2008년 5월 21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무수하게 변형된 불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의 근본적인 불교에 대한 확신을 지녀야합니다. 한국 불교라는 특수성과 실제 붓다의 생애에 드러난 불교의 차이를 정확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와 종교의 거대한 고목인 붓다의 열반을 강의하고자 함에 앞서 불교학자로서 전형적인 삶을 살다 가신 불연 이기영(1922~1996) 박사의 타계 당시를 말씀드리고자합니다. 1000여 편에 달하는 저서야말로 그분의 삶을 대변합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뵙고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이기도 합니다만 그분께서 이생을 떠나실 때 제가 경험한 슬픔의 무게는 붓다의 열반 당시 제자들이 느꼈던 슬픔과 흡사할 것입니다. 개인의 원력을 사회로 환기시키고자 몸소 실천하셨던 한국의 붓다이셨습니다.

붓다의 열반이 전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성도 후 45년 동안 보여주신 교화 활동의 최종 모습 또한 설법이셨습니다. 산스크리트의 범어 Nirvana의 음역인 열반(涅槃)은 바람에 의해 불이 꺼져 적멸한 안온함을 의미합니다. 초기불교에서는 승가의 의지처가 사라진 의미였습니다. 한국에서 붓다의 열반일은 음력 2월 15일입니다.

초기경전 <아함>에는 열반에 대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대승경전에서는 진리로써 존재하는 붓다로 드러납니다. 경전 성립사 측면에서도 붓다의 열반은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팔리本 <대반열반경(남전대장경 7권)>에 나타나는 부처님 최후의 여정과 열반입니다.

<대반열반경>에 나타난 부처님 최후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사성→나란다→파탈리마을(이상 마가다국)→갠지스 강을 건넘→코티→나니카마을→베살리 암라팔라 동산→벨루바마을(우기를 보냄)→베살리마을→반다마을→핫티마을→암바마을→잠부마을→보가 나가라(이상 밧지국)→파바마을→카쿠타강→쿠시나가라(이상 말라국)' 입니다.

붓다께서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에 계실 적에 아자타삿투왕은 그의 대신인 밧사카를 붓다에게 보내서 갠지스강의 북안에 있는 밧지족을 침략하려는 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붓다는 일곱 가지 쇠망법이라 하여 번영을 이루며 쇠망하지 않는 일곱 가지 법으로써 밧지족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비유합니다. '①자주 모이며,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참여함 ②모일 때와 헤어질 때 뜻을 모아 합심함 ③정해진 규약을 깨뜨리지 않고 존중하며 잘 따름 ④나이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함 ⑤여인을 잘 보호하고 감쌈 ⑥자신들의 신령스런 곳을 잘 보호하고 제식을 잘 따름 ⑦훌륭한 성자를 존경하고 대우하며 잘 받듦'을 통해 융화와 협동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이에 의거해 붓다는 일곱 가지 불퇴법으로 승가의 구성원이 지켜야할 법을 가르칩니다.

붓다는 벨루마마을에서 우기를 맞이한지 얼마되지 않아 중병에 걸렸지만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유훈으로 잘 알려진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을 설하십니다. "여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비밀로 한다는 것은 없다. 여래가 비구의 모임에 대해 어떤 지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난다여! 너희들 비구도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귀의할 것이며, 타인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또 진리를 의지처로 하고 진리에 귀의할 것이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베샬리마을 차팔라에서 붓다는 아난다에게 입멸에 대한 암시를 세 번 주었지만 아난다는 붓다의 생명 연장을 권청하지 않습니다. 붓다 열반 후 첫 불전결집 때에 아난의 경솔함을 지적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문제일의 제자 아난존자였기에 결집에 동참하게 됩니다.

베샬리 마하바나 중각강당에서 붓다는 비구들에게 서른일곱 가지의 보리분법 등을 설하십니다. 이익을 가져오는 안락한 진리를 설하시고 3개월 후 열반에 들것을 공표합니다. "비구들이여 만들어진 것은 결국 멸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정진하여 수행을 완성하여라. 여래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리라. 여래는 이제부터 3개월 후 열반에 들것이니라."

반다마을에서 붓다는 계(戒) · 정(定) · 혜(慧) · 해탈(解脫)의 네 가지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로 성스러운 계율을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유전하면서 끝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다." "계 · 정 · 혜 · 해탈 이것이야말로 무상의 가르침이네. 이를 깨달은 고타마는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리. 이렇게 깨달은 붓다는 제자 비구들에게 설하고 괴로움을 다하고 눈을 얻으니 큰 스님 열반에 드는구나."

보가 나가라에서 붓다는 여래의 교설임을 확인하는 네 가지 법을 설하십니다. " '이것은 큰 스승의 교설이다' 라고 주장하는 비구가 있다면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그 비구의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싫다고 거부해서는 안된다. 오직 그 말의 자구를 잘 파악하여 그 문구를 경에서 찾고 율과 대조해 보아라. 그리고 만약 경에서 찾고 율과 대조해 본 결과 경에서도 찾을 수 없고 율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확실히 세존의 말씀이 아니다. 이 비구는 잘못되었다' 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그 설을 추종하지 말도록 하여라. 반대로 경에서도 찾을 수 있고 율에서도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내가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구의 말은 올바르다' 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라."

파바마을에서 붓다는 춘다의 공양을 받습니다. 공양 음식 속에 섞여 있던 '스카라 맛다바'를 가져오게 하여 "춘다여! 이 남은 '스카라 맛다바'는 구덩이를 파 그곳에 모두 묻어라. 춘다여! 세상에 이것을 먹더라도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악마와 범천, 신들과 인간들, 사문과 바라문을 포함하더라도 여래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춘다의 공양 이후 붓다는 심한 병이 납니다. 아난다와 함께 쿠시나가라로 향하시던 붓다는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실 것을 예고합니다.

쿠시나가라에서 붓다는 여래를 공경함에 대한 참의미를 설하십니다. "아난다여! 비구와 비구니, 우바새와 우바이 등이 진리와 그것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향해 올바르게 행동하며, 진리에 수순하여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깊게 여래를 경애, 존경, 숭배하며 공양하는 것이 된다."

붓다의 열반 후 붓다의 행적을 기념할 4대 성지를 설하십니다. 탄생지 룸비니 · 성도지 부다가야 ·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 열반지 쿠시나가르입니다. 그리고 붓다의 유해를 모시는 방법을 설하십니다. "아난다여! 너희 출가자는 여래의 유해를 모시겠다는 따위의 생각은 하지 말라. 너희들은 단지 출가 본래의 목적을 향하여 바른 마음으로 노력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정진 하면서 지내야 한다. 아난다여! 여래에 대해 각별하게 깊은 존경의 생각을 품고 있는 현자가 왕족이나 바라문, 자산가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그러한 이들이 여래의 유해를 모실 것이다."

붓다는 열반 직전에도 편력행자 스밧다에게 팔정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설하십니다. 붓다에게 인가받은 마지막 제자입니다.

붓다는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입멸한 후에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설해왔던 법과 율, 이것이 너희들이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럼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알리겠노라. 만들어진 것은 모두 변해가는 것이니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 너희들의 수행을 완성하여라."

붓다의 다비식이 쿠시나가라 말라족에 의해 준비되고 전륜성왕의 장의예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돌아가신 뒤 7일째에 마하가섭과 5백인 제자가 도착하자 유해를 안치한 화장나무에 저절로 불이 붙습니다. 사리를 여덟 등분하고 탑을 세우게 되는데 이로서 불탑신앙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자연의 이치 그대로를 보여주신 붓다의 생애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도 갈고 다듬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참모습이 드러나는 불교를 위해 정진합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대반열반경'에 부처님 최후의 여정과 열반 나타나
붓다의 열반 후 붓다의 행적을 기념할 성지를 설해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인병(당뇨 · 고혈압) 예방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뽕나무는 신선목이라 하기도 하고 뽕잎은 한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합니다.
신선엽(神仙葉)은 뽕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행복하려면 놓아라 월서 스님 지음|Human&Books 펴냄|1만3500원
행복해지는 습관 정무 스님 법문|사기순 엮음|불광출판사 펴냄|1만2000원
내 안으로 떠나는 행복여행 대화 스님 지음|장승 펴냄|1만2000원
복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 진현종 엮음|토파즈 펴냄|1만2000원

행복과 불행, 손등과 손바닥 사이

행복은 원래 불투명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투명한 행복의 진실을 곡해하는 색안경을 쓴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공공의 행복 · 만물의 상생을 지향하는 불교는 사성제의 멸제(滅諦)로써 상락아정(常樂我淨)의 행복을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행복을 지향하는 청정(淸淨)한 삶의 지침이 담긴 4권의 책에 주목한다. 월서 스님의 <행복하려면 놓아라>, 정무 스님의 <행복해지는 습관>, 대화 스님의 <내 안으로 떠나는 행복여행> 진현종의 <복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 책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이 오롯이 합일(合一) 되는 불이(不二)의 진리를 밝히고 있다.

'진실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참된 이유는 내 마음의 행복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놓지 않으면 안 된다.' 행복이란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찾아온다고 <행복하려면 놓아라>는 말한다. 행복과 불행은 손바닥과 손등의 사이와 같다. 탐욕과 화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욕망의 불씨를 비우고 잠재울 때 비로소 내 마음 속의 부처와 만날 수 있다. '계(戒)는 열반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씨앗'임을 강조한다. 한국 조계종 호계원장을 역임하고 금오사 상연구소 소장이며 대표 율사(律師)인 월서 스님이 산사에서 띄우는 편지다. 스님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내는 마음, 만족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청정의 해답을 보배로운 구슬로 엮어간다.

'모든 중생은 불성(佛性)이 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실 때 모든 중생이 동시에 성불하였다.' 지난 1년간 월간 <불광>에 인간의 삶 전반(태교 · 자녀 교육 · 결혼 · 중년 문제 등)을 주제로 연재해 온 정무 스님의 사람 사는 이야기 <행복해지는 습관>이 출간됐다. 행복한 습관이 담긴 생활법문을 통해 선근(善根)의 인(因)으로 삼을 수 있는 실천의 지침서이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안성 석남사 회주인 정무 스님은 78세의 노구임에도 전국을 다니며 법문한다. 스님의 설법이 배어 든 행복의 전법서는 '과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되어 천지의 은혜로부터 태어난 인간 삶을 아로새기게 한다.

"이 세상 모두가 진정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를 깨워 내 안의 호연한 마음과 만나게 하는 잘 익은 <행복 여행>이 독자에게 다가간다. 동사섭(同事攝) 수련을 통해 잘 가꾸어진 한그루의 나무는 맛도 좋고 보기 좋은 열매로 풍성하다. 저자는 용타 스님의 제자인 대화 스님으로 1980년 겨울부터 2008년 봄까지 총 300여 회의 동사섭 수련회를 안내하며 만난 2만여 명의 수련생과 지내온 이야기를 '명상 칼럼'으로 기록했다. 보시(報施) · 애어(愛語) · 이행(利行)을 아우르는 동사섭 법회는 마음 알기 · 나누기 · 다루기의 과정을 통해 그 깊이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참가한 주인공들의 진참회(眞慙悔)로 마음의 다양한 경계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구도기(求道記)로써 일체의 사상을 아우르는 내 안의 행복우주 탐험서이다.

삶의 복밭에 씨앗을 뿌려 부지런히 일구어라! <복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에는 <팔만대장경>에 담긴 참된 행복의 물결이 잔잔히 흐른다.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스스로 복을 지어 즐겁고 안락한 삶을 살아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조언한다. 복과 화를 다스려 고통을 더는 삶의 지혜는 성공을 부른다고 한다. 글의 점증적인 구조를 통해 평안한 내세에 머물게 될 나와 만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청화 스님의 육성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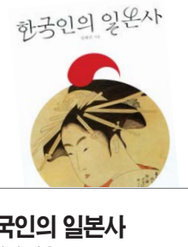


마음의 고향
청화 스님 지음
상상예찬 펴냄|1만3000원

이 시대의 선지식으로 불교 수행자의 귀감이 된 청화(1924~2003) 스님의 법문집이 출간됐다.

1995년 1월, 미국 삼보사(三寶寺)에서 열린 순선안심탁마법회(純禪安心琢磨法會)의 법문을 집대성한 것. 원적에 든지 5년 만에 스님의 육성이 활자로 되살아나 독자로 하여금 마음의 고향으로 향하게 한다. '사람만이 본래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라는 스님의 동일률(同一律) 사상과 만난다.

일본 이해의 또다른 길



한국인의 일본사
정혜선 지음
현암사 펴냄|2만5000원

한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한 일본사(日本史)다. 일본인의 의식 깊은 곳에 내재된 '신도'의 정신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에서 출발하며 일본을 이해시킨다. 천황의 존재가 갖는 역사적 문화사적 의미도 일본을 이해하는 필수요소다. 저자는 일본 역사의 방향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두 나라의 오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중세와 근세를 지배한 사무라이의 삶, 일본 땅의 조선인 등을 주로 조망한다.

증언으로 되짚은 '정화사'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김광식 지음
영광도서 펴냄|3만원

근현대 한국 불교의 버팀목이자 선산 대본찰 범어사의 불교정화운동에 얽힌 살아있는 역사 증언서이다. 저자(부천대 교수 ·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는 1954년부터 1962년까지 전개된 불교정화운동의 생생한 증언자 18인을 직접 만나 구술을 채록하여 한 권의 책으로 완성했다.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을 출간한지 1년만이다. 정화운동사와 조계종단사를 보완 및 재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범어사 역사와 문화 탐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범어사 및 동산문도회는 2006년 출간된 <태고종사(太古宗史)>에 거론된 동산 스님의 전모를 바로 잡고자 앞장서 규명해왔다. 부록에 실린 <태고종사>에 대한 저자의 분석과 문제 제기는 올바른 종단사를 정립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텅 빔'에서 진정한 삶

'사랑이 가는 길에 일정표는 없다. 나아가는 것이 그의 본성이므로 사랑은 나아가고 나아갈 뿐이다.'

"깨달음의 으뜸 자질은 대자유"라고 말하는 저자는 미국 서부에서 인정받는 영적 교사이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세미나 그리고 수련회 등을 통한 저자의 설법 모임(Satsang)의 내용을 발췌한 가르침이다. 찬란하게 빛나는 '텅 빔' 그 자체에서 진정한 삶을 사는 방법. 찬란의 마음 중심에서 춤추는 모든 존재와 만나게 된다.



춤추는 空
아다샨티 지음|유영일 옮김
북북서 펴냄|1만2000원

아쇼카왕 비문 해독한 전문서적



아쇼카왕 비문
츠카모토 게이쇼 지음|2만원
호진 · 정수 옮김|불교시대사 펴냄

불교가 역사의 실제임을 증명하는 표적. 인도 고고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아쇼카왕 비문을 해독한 전문서적이 출간됐다. 170년 전 영국학자에 의해 해독된 이후 영어, 불어, 일본어에 이은 네 번째 해독서이다. 인도의 사회 · 문화와 불교 중흥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아쇼카왕의 통치 이념과 불교의 관계를 일곱 가지 법칙으로 나눴다. 한 사람의 통치자임과 동시에 위대한 재가불자였던 아쇼카왕의 금석문(金石文)은 인도역사의 1차 자료이다. 갠지스 강의 작은 신흥 종교였던 불교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거듭날 수 있었던 영향력이 아쇼카왕에게 있었다는 증명과 만날 수 있다.

불상 조성과 복장 상세히 설명



불복장에 새겨진 의미
태경 스님 엮음
양사재 펴냄|1만3000원

부처님을 조성하고 복장(服藏)을 모시는 방법은 <조상경>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조상경>을 연구한 결과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책은 흩어져 있는 <조상경>의 판본들을 집대성 했다는 점만으로도 큰 성과다. 거기에 '복장의 한국 수용과 '조상경'의 성립' 등 논문이 부처님의 조성과 복장 봉안의 이론과 방법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한다. 불교학과 불교문화 불교미술 등 모든 분야에서 연구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텍스트다.

법성게 묘리 법리에 맞게 번역

우리나라 <화엄경> 연구의 비조(鼻祖) 의상 대사가 <화엄경>의 핵심을 추려서 320구 210자로 지은 것이 법성게다. <화엄경>의 정수인 법성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화엄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수행 해 온 저자가 법성게의 묘리를 법리에 맞게 번역하고 실참에서 얻은 경지를 함장 시킨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법성게의 두 구절씩을 풀이하고 법문을 달았다. 각 구절의 말미는 역자의 게송이 '토끼뿔'이란 이름으로 실렸다.



바로보인 법성게
의상 지음|문재현 역저
바로보인 펴냄|1만원

위안부 할머니의 삶 소설로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
배홍진 지음
멘토 프레스 펴냄|1만원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이 통째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보다는 그들의 증언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설사 그들의 삶이 글로 쓰여 지더라도 문자보다는 행간에 더 많은 아픔과 분노와 용서와 화해의 언어들이 굼틀거릴 것이다. 한 대필 작가가 '나의 글'로 쓴 강덕경(1929~1997) 할머니의 생애다. 철저한 조사와 증언을 바탕으로 한 사실들을 입체적인 이야기로 엮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2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5	인연(1)	정찬주	작가정신
6	초승달도 눈부시다	김영옥	호미
7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8	벽안출가	유응오	샘터
9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10	왕초보 불교박사되다	석지현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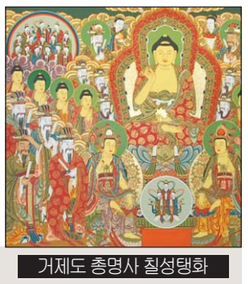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조계종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바로보인 선가귀감 /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법성게 출간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행복의 길 안내 불서 만들며 사명감”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출판사 ‘바움’을 찾아냈을 때, 어쩌면 이것이 모험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단 하나, 바움이 불서전문출판사가 아니라서. 열심히 불서를 출간하고 있는 전문출판사들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심어린 ‘마음’, 그것을 일반 출판사에서 찾을 수 있을까 불안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바움의 이성훈 사장을 만나면서 이 같은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출판사 바움은 2002년 8월 설립됐다. ‘바움(baum)’이라는 이름이 독특하다. 이는 독일어로 ‘나무’라는 뜻이다. 슈베르트의 가곡 ‘린덴바움(보리수)’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서양 보리수와 불교의 보리수는 엄연히 다른 생명체지만 ‘보리수’라는 언어의 인연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바움은 출판사 이름보다 그간 펴낸 책들이 더 유명하다. 특히 나카타니 아키히로가 10대, 20대 등 연대별로 나눠 기술한 ‘~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시리즈는 서점가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책들이다.

하지만 이런 실용서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바움의 매력이 너무 아깝다. 요즘 나온 18세기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유명 작가 휘트먼과 같은 인물들의 평전이나 일기 등 바움만의 눈으로 기획한 책들도 많으니.

불교계에서 바움을 주목하는 것은 역시 바움의 불서 때문이다. 일반출판사에서 굳이 불교서적들을 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불교가 단순히 좋은 소재기 때문일까.

“저 자신이 불자라서기도 하지만 불교만큼 ‘생활 철학’에 가까운 종교가 없다고 봅니다. 현대인들이 허둥대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불교는 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솔직히, 종교 · 명상 파트에서 굳이 불교만 다루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자꾸 이쪽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인연인가 싶었어요.”

바움 불서 중 특히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라>는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 도서로 꼽히기도 했다. 실제 일상에서 마음을 여유롭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미덕이 있는 이 책은, 각박하게 쫓기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불교식 가르침이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준 한 예가 됐다.

불서를 펴내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었을까. 근간인 <달라이라마 평전>을 낼 때, 좀 곤란한 일이 있었단다.

“저희가 이 책을 기획한 것이 2003년이었습니다. 원래 2004년에 출판하려 했는데 원서 출판사 쪽에서 한국어판 서문을 달라이라마께 직접 받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 걸요, 그 서문 받는데 3년이나 걸렸어요.”

2007년에야 받은 서문의 날짜는 ‘2004년 5월 18일’. 원서 출판사가 야속해지는 순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날짜를 그대로 표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올해 5월, 드디어 출간했는데 이번에는 눈 밝은 독자들의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최근 티베트가 폭력 사태로 화두가 되니, 이런 책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달라이라마 평전>은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갖게 됐지만 이 사장은 “이런 독자들이 있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책을 낼 수 있다”며 고마워한다. 일반 출판사 사장으로 이 사장은 불서 출판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다.

“가끔 출판사 사장들과 만나면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불자들이 책을 좀 안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요. 교회에서는 책이 생산되면 신도들이 주로 책을 사보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불자 입장에서 참 안타깝지요.”

게다가 ‘우리 불서는 왜 서양의 그것처럼 쉬울 수 없는가’에 대해서도 느끼는 바가 많다고 한다. 가령 번역서를 읽을 때 ‘연기’를 ‘상호의존적 공시발생’이라 번역한 것을 보면서 말의 뜻이 명확하게 다가온다면 불서가 굳이 어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또 그가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불교계에 바라는 점도 있다. 한국 불교가 해외로 뻗어나가려는 이 때, 불교계의 용어 정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른 언어를 쓰고, 실제 그 말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조차 원활치 않다고 생각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이 사장이 바움에서 펴낸 일련의 책들을 살펴보니 모두 하나로 꿰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행복한 삶’이다. 바움의 어떤 책을 통해서든 현대인들이 마음을 추스르면서 방향을 찾고 행복하게 살 길을 찾기를 바랄 때, 그 때가 ‘출판인 이성훈’, ‘불자 이성훈’이 합일되는 순간일 것이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바움 BEST 10

순위	도서명	지은이
1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라	에크낫 이스워런 저, 박웅희 옮김
2	팔만대장경에 숨어있는 참 지혜로운 이야기	진현종
3	팔만대장경에 숨어있는 참 향기로운 이야기	진현종
4	산빛이야기	정목
5	나무가 꾸는 꿈	김재진
6	신들의 땅에서 찾은 행복 한 줌	문윤정
7	잣나무는 언제 부처가 되나	문윤정
8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사는 부처님 말씀	김정빈
9	꽃을 드니 미소짓네	이용범
10	달라이라마 평전	클로드 르방송 지음, 박웅희 옮김



불서 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권

인도성지순례기
월주 스님 | 보현출판사 | 2006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평화인권센타 소장 안신권

삶에 지친 영혼에 위안 주는 여행



나그네 같은 삶의 여정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운다. 그 모든 것이 인생을 더욱 알아가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불교는 나에게 마음의 안식처이자 영혼을 살찌우는 신앙이다. 이에 나의 영혼과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불서를 소개 한다.

한 편의 좋은 책을 만난 것은 삶의 큰 지침서를 마련한 것과 같다. 나에게 월주 스님의 <인도성지순례기>가 바로 그런 책이였다. 비단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지혜를 삶에 실천하여 사회에 더욱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줬으니 말이다. 종교와 철학의 나라이며 세계 5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인도를 여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촌,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다. 나 또한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 곳이니. 짧은 시간 동안의 독서 여정을 통해 내 인생을 알아가는 기쁨, 고통 속에 빠진다면 차라리 없는 것 보다 못하진 않을까. 종교가 종교다워지려면 철저히 인간적인 삶, 자연과 조화하고 모든 존재와 소통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을 월주 스님은 <인도성지순례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다 보면 절로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싯다르타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에 남아있는 원형적 정신을 배우고, 그 정신을 토대로 내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세계5대 문명 발상지 인도의 정신 배워
“모든 존재와 소통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지면을 통해 저자는 물론 월주 스님이 인도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을 듣고 함께 소통하는 듯한 느낌은 말로 하기 벅찰 정도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부처님처럼 세상을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순례로 삼기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한 뿌리에서 나온 소중한 존재이니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사랑하라’다. 흔히 종교는 인간 삶의 고향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연 현재 종교라는 존재가, 늙고 병들어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역할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자 종교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종교로 인해 삶이

끝으로 저자 월주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인도 성지순례를 통해 부처님께서 깨달아 제시하신 공 · 해탈 · 연기 · 중도 · 지혜자비 · 평등 · 상생 · 평화사상만이 인류를 정복(淨福)의 길로 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라는 것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며, 모든 존재와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고, 한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에 입각하여 대승보살도의 정신으로 항상 내 마음을 비우고 자비희사(慈悲喜捨) · 사무량심(四無量心) · 육바라밀(六波羅密)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3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목탁제조전문
영천목공예사
http://www.ycwoodart.co.kr
실용신안등록 · 디자인등록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작품
영천목공예사의 목탁은 자연 그대로를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국내산 살구나무로 제작한 수작업 목탁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죽비
옻칠 수작업 목탁

수작업 목탁에 사용한 옻칠은 생칠로 일반적으로 바르는 방법이 아닌 나무 속까지 침투시키는 칠을 먹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결을 자연그대로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입니다.
수작업 목탁

목탁제작 35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맑고 청아한 목탁소리를 찾기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300년된 산살구나무로 작업한 제품
경북 영천시 언하1동 167-1번지 054)334-9757 / 011-540-9757
[농협 757-12-096397 안증식]

천연 유황 온탕욕을 가정에서 즐기세요.
신비로운 대자연의 선물 히말리아산 천연유황소금 블랙솔트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유황온천
유황온천은 유황, 나트륨 성분과 알칼리성 랴듐 등으로 아토피, 무좀, 비듬, 피부병, 주부습진, 피부미용, 성청결용, 피로회복, 신경통, 관절염, 만성습진,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문헌참조)
대자연의 선물 블랙솔트
블랙솔트는 고대 해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의 열에(5,000℃이상) 의해 해수(바닷물)가 증발되며 산으로 형성된 천연암염과 용암에서 분출된 천연유황 성분으로 고대 청정해수를 구성하는 천연 미네랄과 무기질이 원형그대로 함유된 신비로운 대자연의 선물입니다.
유황온천보다 탁월한 천연유황 온탕을 가정에서 즐긴다
블랙솔트는 초자연적으로 형선된 자죽염 성분과 천연유황 성분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온탕욕에 따뜻한 물과 블랙솔트를 풀어주시면 유황온천보다 효능이 뛰어난 천연유황해수 온천탕욕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기실수 있습니다.
아토피, 무좀, 비듬 등에도 효능
100:1 정도의 물과 희석하여 완전히 융해된후 인체의 해당부위에 충분히 스며든후 가볍게 맞사지 한 후 씻어주기를 반복하면 아토피등 피부가 부드럽고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블랙솔트는 피부미용, 습진, 신경통에도 최고!
블랙솔트에 함유된 자죽염 성분은 피부 미용을 촉진하여 피부를 탄력 있고 부드럽게 가꾸어 주며 피지 제거 작용이 우수하여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부패시키는 산화력을 억제하여 물질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환원력이 매우 탁월하여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드리며 피부의 활력을 되찾아 드립니다.
독점수입판매 : 블랙솔트코리아 02)723-9184
농협 : 강환영 053-12-125418 원산지 : 히말리아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36>
(修習止觀坐禪法要)

정수행(正修行) ①

지관수행으로 망상 조복받고 번뇌타파

修止觀者有二種 一者於坐中修 二者歷緣對境修 一於坐中修止觀者 於四威儀中亦乃皆得 然學道者坐爲勝 故先約坐以明止觀 略出五意不同 一對治初心麤亂修止觀 所謂行者 初坐禪時 心麤亂故 應當修止以除破之 止若不破 卽應修觀 故云對破初心麤亂修止觀

지금까지 강의했던 다섯 장에서는 스물다섯가지 법을 만족하게 갖추어 정수(正修)방편으로 삼았었다.

여섯 번째로 본 정수장(正修章)에서는 정식으로 수행하는 공부에 대해 밝히고 있다. 가령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인연이 구비했다 해도 이치에 걸맞게 진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도업을 성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사 차안만을 집착하면서 피안을 그리워한다는 꾸지람을 끝내 면치 못한다.

따라서 수행자가 지금까지 보조수행으로서 여러 가지 인연을 빠짐없이 갖추어서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일체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로부터 순일한 마음으로 지관을 정식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지관을 수습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앉아서 닦는 지관이며, 또 하나는 인연에 부딪치면서 경계를 마주하며 닦는 지관이다.

우선적으로 앉은 가운데서 닦는 지관을 말해보겠다. 본래는 사위의(四威儀)가운데서 모두 지관을 닦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행주좌와 가운데서 위업은 두려워할만 하고 의표는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방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거나 앉거나 항상 마음을 조련하고 포섭하여 도업을 성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앉고 가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역시 그 수고로움을 참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때가 아니면 머물지도 눕지도 말아야만 한다. 설사 눕고 머물러야 할 때라도 불법에 대한 정념을 항상 간직하여 이치에 걸맞게 머물러야만 이 네 가지 행주좌와에 있어서 그 법도에 합하고 율의를 잃지 않게 된다.

사위의 가운데 '행(行)'에 대해 말해본다면 수행하는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마음을 밖으로 치구하지 않고 경솔하거나 들뜸이 없이 항상 정념의 상태에서 삼매를 이루어야만 한다.

'주(住)'는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때가 아니면 안주하지 않아야만 하지만, 만일 안주할 경우라도 처소를 따라서 항상 삼보를 생각하고 공양하며 경법을 찬탄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광대하게 연설하며 경의 의미를 생각하고 경법에 걸맞게 안주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좌(坐)'에 대해 말해본다면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가부좌를 하고 편안하게 좌선을 하면서 제법실상의 이치를 진실하게 관찰하고

행주좌와 모두에서 지관수행 가능하나 초심인에겐 앉아서 닦는 좌선이 으뜸

대상의 분별을 영원히 단절하여 마음은 맑고 고요하며 몸은 엄숙하고 위의가 있어 여법하게 좌선을 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와(臥)'는 누워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때가 아니면 누워서 수면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는 몸과 마음을 조화하고 포섭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누울지라도 반드시 우측으로 누워서 정념을 잃지 말아야 하고 혼란한 마음이 없어야만 한다.

이처럼 정지하고 일어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사위의 가운데서 똑같이 지관을 수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위의 가운데서 모두 지관을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사위의 가운데서 똑같이 수행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미 오랫동안 도를 닦아 공부가 순수하게 무르익은 사람의 경우에 해당된다.

만일 초심자라면 사위의 가운데서 앉은 가운데서 수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마음을 쉬기 쉽고 경계 역시 쉽게 공적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선적으로 앉은 가운데서 지관수행하는 것을 밝혔다.

지관수행하는 법문은 매우 많아 그 방법이 한결같이 않지만 지금은 다섯 가지 뜻으로만 밝힐 뿐이다. 그러므로 총략적으로 그 뜻을 드러낸다고 말했던 것이다.

대체로 이 다섯 가지 의미에는 일체 수행문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다섯 가지 종류로 지관을 수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초심인의 거칠고 혼란한 마음을 대치해서 닦는 지관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들뜨는 병을 대치해서 닦는 지관이며, 세 번째는 편의를 따라서 닦는 지관이며, 네 번째는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마음을 대치하는 지관이며, 다섯 번째는 평등한 정혜로 닦는 지관이다.

우선 첫 번째로 말한 초심인의 거칠고 혼란한 마음을 대치해서 닦는 지관에 대해 말해보자.

수행을 하며 도를 이루겠다고 최초로 발심한 사람이 처음으로 좌선을 통해서 지관을 닦을 때 마음이 거칠고 산란하여 쉬지 않을 경우 그 땐 반드시 지 수행을 통해서 제거해야만 한다. 지 수행은 산란하게 요동하는 마음을 정지시키는 수행이다.

혹시 지 수행을 해도 거칠고 산란한 마음병이 제거되지 않으면 반드시 관 수행을 통해서 타파해야만 하는데, 관 수행은 마음의 어두움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수행하는데 병통이 많기는 하지만 그 많은 병통을 요약하면 혼침과 산란 등 두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범부 중생들의 병통은 혼침 아니면 산란이다. 그러므로 한번 지관을 닦음으로 해서 혼침과 산란 등 두 가지 병을 타파할 수 있다. 즉 지수행으로서 거칠고 산란한 망상을 조복받을 수 있고, 관 수행을 통해서 마음속에 미세한 번뇌를 관조하여 타파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초심인의 거칠고 혼란한 마음을 대치하고 타파하기 위해 닦는 지관이라고 말했다.

今明修止觀有二意 一者修止 自有三種 一者繫緣守境止 所謂繫心鼻端 臍間等處 令心不散 故經云 繫心不放逸 亦如猿著鎖

지관을 수행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止)수행이고 또 하나는 관(觀)수행이다.

지 수행 가운데는 세 종류의 차별이 있다.

첫 번째는 인연을 한곳에 붙들어 매달아 그 경계를 지키는 '지'인데, 이는 생각을 붙들어 매는 법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수행인이 들뜬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을 한 처소에 붙들어 매고 그 한 경계를 편안히 지키거나, 혹은 마음을 자신의 코끝이나 배꼽 밑 단전사이에 붙들어 매거나 혹은 모든 부처님의 상호를 연상하는 일이다.

이 모든 방법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치구하며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범부의 마음은 종일토록 망상이 어지럽게 날며 잡념으로 유동한다. 이는 마치 마음이 원숭이나 말이 이리저리 날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 붙들어 매 방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숭이에게 자물쇠를 채우듯 한다" 라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5) 식온(識蘊)②

두 번째로 '의(意)'는 제칠말라식(第七末那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는 제팔식인 '심' 경계를 인식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항구하게 살피고 사량하면서 제팔식 견분을 실재하는 자아로 집착하는 특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의'는 또한 의근이 되어 전육식(前六識)의 의지처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라식을 염정의(染淨依), 즉 번뇌염법과 청정무루법 등 두 가지 의지처가 되는 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염정제법(染淨諸法)이 모든 의근인 말라식을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번뇌염법은 그 원인을 따져 보면 말라식이 제팔식 '심'을 실아실법(實我實法)으로 집착하는 착각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아법집은 '의'가 근본이 되어 항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법집 때문에 유정들이 설사 제육현재의식으로 선행을

심 제팔식, 의 제칠식, 식 전육식 여덟개 식을 심·의·식으로 구분

일으킨다 해도 그것은 바로 아집상에 집착한 유루의 선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선업은 생사의 유루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세간생사의 유전이며, 이럴 경우 말라식은 번뇌염법의 의지처가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에서 진여에 대한 평등무분별지(平等無分別智)를 일으키면 말라식은 이미 집착이 끊어진 청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의지해서 일어난 제육식 역시 청정한 무루로 작용하여, 무루성도(無漏聖道)가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무루청정법(無漏淸淨法)의 의지처가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염정의(染淨依)라는 또 다른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식'의 명칭은 여섯 개의 식, 즉 전육식을 한 덩어리로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식'은 각자의 인식대상 경계마다 따로 마주하면 즉시 마주한 대상경계를 따로 명료하게 식별해서 아는 작용상의 측면에선 그 특징이 모두 같습니다.

가령 안식은 따로의 대경인 색경(色境)을 명료하게 식별해 알며, 이식은 따로의 성경(聲境)을, 비식은 향경(香境)을, 설식은 미경(味境)을, 신식은 촉경(觸境)을 명료하게 식별해 알며, 의식은 색 성 향 미 촉 등 다섯 오진(五塵)경계를 종합통일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로 명료하게 식별합니다. 이를 법경(法境)이라고 합니다.

■정리=張如舟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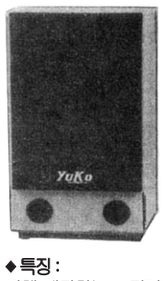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샤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1년 (서울,경기 의식기준)

1.사물다루는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천 도 의 식 :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시식
3.각종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4.개 강 일 : 2008년 5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5.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6.수 업 료 : 매월 10만원
7.접수연락처 : 054)762-5888, 011-819-7464
팩스 054)762-5889
8.주 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정신 정화 없이는 민족의 미래도 없어요”

청화재 주인 혜민 스님

백련 보급의 원조 · 메발톱꽃 연구도 매진

화엄의 가르침은 ‘둘 아닌 도리’ 아는 것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연못의 백련은 다 혜민 스님의 자식들이다. 18년 전 간송미술관의 최완수 선생이 백련 세 뿌리를 준 것이 전국의 연못을 하얗게 장엄한 백련의 시원이 됐다. 혜민 스님은 세 뿌리의 백련을 다음해에 2400㎡에 가득 심을 만치 늘렸다.

그리고 누가 달라면 아무 대가없이 나눠 주었다. 백련을 차와 식품으로 응용하는 연구도 했다. 지금은 여러 스님들과 학자들이 백련을 가지고 먹거리도 만들고 마실거리도 만든다. 백련보급의 원조인 혜민 스님은 지금도 다만 농사를 지을 뿐이다.

35년 동안 가꾸었던 인취사를 나와 예산의 한 과수원 옆에 청화재(靑華齋)라는 이름의 연꽃 도량을 가꾼 지 3년째다. 1000여개의 고무 통에서 백련들이 숨을 쉬고 있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방금 눈을 뜬 수련들이 수줍게 웃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 3개를 절묘하게 연결해 지은 청화재는 농막(農幕) 같기도 하지만 정갈하고 운치 있는 도량이다.

“이거 읽어 봐.”

인사를 드리자마자 종이를 내미신다. A4 용지 두 장. ‘삼족까마귀’란 제목의 시다. 찬찬히 읽고 있는 동안 스님은 차를 따라 주신다. 사발 크기만한 찻잔에 연꽃향이 가득하다. 백련차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작년 가을 집안(集安)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적들을 좀 보고 왔지.”

“웅혼하던 기상이 스러져 버린 곳을 둘러보신 애절함이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민족이 할 일이 많고 불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해. 그런데 지금 하는 짓들을 봐. 이래가지고 민족의 미래가 있을 것 같아?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정치는 쌈박질로 바쁘고 종교인은 ‘면죄부’ 장사하기에 바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뒤틀리고 사라지고.....”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개탄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다. 물론 스님의 개탄은 비판을 위한 비판도 무작정의 비난도 아니다. 우리 민족이 가야할 바른 길, 불자들이 지녀야 할 바른 정신을 촉구하는 사자후다.

“정신정화를 해야 합니다. 물질정화는 다 됐잖아요.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는 것에 앞서 정신이 정화 되어야 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정신정화가 없으면 역사도 문화도 다 상실되고 왜곡되어 민족의 미래가 없어요.”

혜민 스님이 제시하는 정신정화의 요지는 ‘둘이 아닌 도리’를 아는 것이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알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스님은 “깨달음의 삶에 있어서 지식은 윤활유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화엄경>의 가르침이 결국은 대립과 갈등을 다 극복하고 하나의 도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신정화를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대립과 상실과 왜곡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혜롭게 원융과 조화의 삶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강조하는 역사와 문화의 상실과 왜곡은 우리의 상고사를 잃어버린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작년 가을 집안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며 커다란 비감(悲感)에 싸일 수밖에 없었다. 민족의 뿌리를 제대로 추스르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문화가 형성되고 유지되겠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문화는 전래 이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중요한 맥박인데,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세상을 밝히고 이끌어 가는 횃불과 견인차 역할을 못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매년 추사(秋史) 김정희 선생의 탄신일과 기일에 제사를 모시고 있는 혜민 스님은 “추사체는 없다”고 말한다.

“중국의 왕희지가 역사에 둘도 없는 대목(大木)이라면, 추사는 연장 없는 목수입니다. 추사체라는 것은 없어요. 갈 지(之)자 하나도 같은 서체가 없는 것이 추사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 유배 시절에는 유마처럼 사셨고 북청 유배시절은 화엄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이미 선생님의 글씨는 세상의 격식과 인식을 벗어나 대자유의 경지를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추사체라는 이름으로 묶어 두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혜민 스님은 ‘배달민족’이란 ‘이 땅에서 모성을 근본으로 하는 영원히 밝은 민족’이라고 풀이하며 화엄의 가르침대로 본래 둘이 아닌 하나의 장엄한 민족으로서의 기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사의 글씨처럼 말이다.

혜민 스님은 요즘 백련과 더불어 야생화 메발톱꽃을 연구하고 기르는데 지극정성을 쏟고 있다. 수 십 가지 색의 메발톱꽃이 비닐하우스에 가지런하게 정돈 되어 있다.

다양한 색상에 추위에 강하고 씨앗을 받기 쉽고 발아율이 높은 점이 메발톱꽃의 특징이다. 스님은 그 꽃들을 통해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초파일을 앞두고 연등을 접수 받을 때 메발톱꽃 화분을 전시하면서 하나씩 나눠주자는 것이다. 받는 불교에서 나누는 불교로의 전환이다.

우리 시대의 ‘숨은 명필’ 가운데 한 분인 혜민 스님은 백련을 통해 법향을 퍼뜨린 것처럼 메발톱꽃을 통해 불교의 정신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정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불자들이 먼저 정신정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무치게 강조하는 혜민 스님. 오늘도 스님은 세상을 향해 묻는다.

“인간세상 보다 더 밝고 환한 ‘화엄’이 어디 있겠는가?”

글=임연태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혜민 스님은



19세 때 당대의 선지식인 효봉 운허 금오 동산 설봉 스님에게 “출가를 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다. 단 한 분, 운허 스님의 답장을 받았다. ‘바쁜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연락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범어사로 출가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갔다가 설봉 스님을 만나게 되어 상좌가 됐다. 그리고 5년간 직접 경을 배웠다. 8세 때부터 글씨(서예)를 썼는데 출가 후 온양에서 고석봉 선생에게 서법을 배우게 되었고 인취사에 35년간 머물렀다. 백련 보급과 응용 연구를 했고 15년 전부터 매년 ‘백련시사’를 연다. 생태와 문화를 테마로 하는 축제다.

삼족까마귀

세월을 넘어
오녀산성(五女山城)을 둘러 보았다.
목이 말라 옛 우물을 찾았다.
이끼에 둘러싸인 우물은
파란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고구려 첫 번째 도읍인
이곳 환인(桓仁)
그 장엄했던 대륙의
발자국을 더듬으며 구름 사이로
지워져 버린
역사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목마름도 잊어버린채
장엄한 그 환영 앞에서
넋을 잃었다.

광풍이 몰아치는
오녀산성을 맴도는
삼족까마귀
태양을 상징하는
그리고
역사와 꿈을 먹고 산다는
우리 민족의 혼
삼족까마귀

아무도 찾는 이 없는
허허한 산성
부러진 화살 꽂혀 있는
낡은 등지를
아직도 맴돌고 있다.

지평선 넘어
어딘가에서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면
요동벌을 호령하는
고구려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오면
삼족까마귀는
잃어 버린 언어를
다시 찾겠지
아!
목이 마른다.

해란강 물을 다 마셔도
목이 마른다.
압록강 두만강 물을
다 마셔도
갈증은 가시지 않는다.
가슴이 답답하고
더욱 목이 메인다.

혜민 선지식을 찾아서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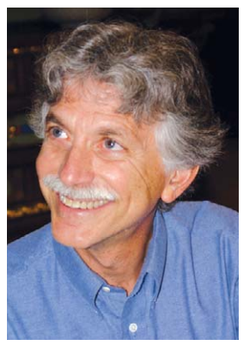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 주소(D) 양초.net

"마음 챙기면 더없이 편안해요"

로널드 시글 박사 '불교명상법과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강연



로널드 시글(Ronald D. Siegel) 박사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부 심리학 임상교수로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과 심리치료를 접속한 미국의 대표적인 임상심리학자다. 전통적 심리요법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합해 심신의 혼란과 만성적 통증, 심각한 정서 불안 치료를 위한 연구를 해왔다. '명상과 정신요법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해 명상을 통한 심리치료 요법 이론을 연구·실천하고 있다. 대표 저술로는 <Mindfulness and Psychotherapy(마음챙김과 정신요법)> 등이 있다. 국내에는 <요통혁명>(국일미디어 刊)이 출간됐다. 마음챙김과 정신요법에 관한 그의 자료는 홈페이지 (www.meditationandpsychotherapy. org) 참조.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스트레스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장애는 마음에 의한 질병을 유발한다. 서양에서는 1944년 캐나다의 한스 젤리에 박사가 스트레스 학설을 증명한 후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에서 생긴 질병은 마음으로 치료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됐다(一切唯心造)'는 말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현대의학자 및 많은 심리학자들이 현대의학의 한계 극복을 위해 마음에 눈뜨면서 불교의 가르침이 주목받는 요즘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와 사회' 포럼 5월 특별강좌로 로널드 시글 박사(하버드 의과대학 임상심리학 교수)를 초청해 '불교명상법과 미국 심리학 마음챙김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명상으로 건강을~

로널드 시글 박사는 "현대인들의 고통과 질병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회피함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시글 박사는 "많은 질병이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습관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 가서 가슴이 뛰고 현기증이 나서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이, 다시 슈퍼마켓을 찾았을 때 예전의 고통 받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뛴다는 것이다. 시글 박사는 "이런 류의 반응이 반복되는 것이 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단점"이라며 "사람은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몸도 쉬지 못한다. 두통, 소화불량 등 많은 의학적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다. '마음챙김'을 통해 생각에의 의존을 줄이고 일어나는 현재에 주의를 기울여라. '마음챙김' 등 명상으로 현대인들의 마음은 치유된다"고 주장했다. 시글 박사는 "마음챙김의 정신요법들은 감정의 수용력과 인내심을 늘려준다. 차를 마실 때나 운전할 때 등 일상에서 매순간 '마음챙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글 박사는 미국 100여개 의료기관에서 실시중인 '마음챙김을 통한 스트레스 줄이기(MBSR)' '마음챙김을 통한 인지적 치료요법(MBCT)' '변증법적 행동치료법(DBT)' 등 다양한 치료법으로 마음챙김의 효용을 설명했다.

명상으로 행복을~

시글 박사는 티베트 승려 등 출가수행자의 뇌파를 연구한 위스콘신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좌선 등 명상을 하는 승려는 좌전두엽이 우전두엽보다 발달했음이 입증됐다"고 소개했다. 뇌를 좌우로 나눴을 때 좌전두엽은 즐거움·열정·활력과 연관됐고, 우전두엽은 경계심·우울·걱정 등에 관계한다. 시글 박사는 또 다른 실험을 소개했다.

"노동자를 상대로 1주일에 3시간씩 8주간 명상하도록 했더니 오른쪽에 편중됐던 뇌의 왼쪽부분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시글 박사는 "명상을 한 노동자들은 (명상을 안한 노동자보다) 걱정이 줄고 기분이 좋아졌다. 또 독감 백신에 대한 면역력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인 명상 수행자의 뇌를 연구했더니 명상을 안한 사람보다 뇌의 특정부위가 발달돼 두꺼웠다"는 예도 들었다.

로널드 시글 박사는 "명상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며 현대인들에게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탈모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머리 표면보다는 머릿속 뇌의 피질이 얇아짐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챙김 정신요법 왜 미국에서 발달했나?

로널드 시글 박사는 "불교는 새로운 문화를 만날 때마다 변화해왔다"며 불교가 미국에서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설명했다. 시글 박사는 "미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불교문화 확대의 주역이 됐다"고 소개했다.

로널드 시글 박사는 "미국불교는 초자연적인 관심보다는 사성제, 삼법인, 팔정도 등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성장했다. 그 실천적·실용적 특징은 '와서 보라'는 뜻을 가진 팔리어의 '에이빠씨코(Ehipassiko)'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며, "실용적 미국불교가 불교적 명상법을 응용한 '마음챙김을 통한 정신요법'을 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마음챙김' 용어에 왜 '불교'라는 말은 없나

로널드 시글 박사는 "미국의 많은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해 명상을 하라고 조언하지만 '불교'를 언급하지는 않는다"면서 그 이유를 불교에서 명상이 시작된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달라이 라마의 "말 등 형태에 구애받지 말고 가르침(Dharma)을 행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한 그는 "불교요법이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많다. 불교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29. 치과 질환 자가진단법

많은 사람들이 언제 치과에 가야할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 불편함이 없는데 치과를 왜 가야하며 왜 치료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해 한다.

치과 질환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치아 혹은 그 주변조직(잇몸)에 본인이 느낄 정도의 확연한 증상이 있으면 이미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치과질환은 별다른 증상 없이 천천히 진행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이다.

1. 치아우식증(충치)

흔히 충치라 일컫는 치아 우식증은 다음과 같이 증상이 진행된다. 처음에는 치아에 검은색, 흰색, 회색 또는 갈색 등으로 변색되는 부분이 생기고 아무 증상도 없다. 우식증이 진행될수록 변색된 부분에 음식물이 끼거나 남게 되고, 더 진행되면 찬 음식에 반응이 시작된다. 그 후에는 더운 음식과 찬 음식에 동시에 반응한다. 더 진행되면 더운 것에는 매우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찬 것을 물면 통증이 가시며, 마지막에는 덥거나 찬 음식 모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 돼 불편한 것을 모르게 된다.



증상 나타나면 질환 이미 진행상태

1년에 1번 이상 정기적 검진 필요

물론 치아우식증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면,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돼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조직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치과에서 검진을 하고서야 충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충치가 치아 겉표면에서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서 음식물이나 플라그가 잔존해 생기는 경우다. 치아에 구멍이 뚫리거나 깨지고 나서야 치과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신경치료를 받는다.

따라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인 치과 검진이 여러 면에서 경제적이다.

특히 치아가 찬 것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치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다. 이때는 즉시 치과를 찾아야 한다.

2. 치주질환(잇몸병, 풍치)

치주질환도 증상이 거의 없다.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면 잇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다. 치주질환이 진행될수록 피가 더 많이 나다가 심해지면 잇몸이 퉁퉁 부어오르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잇몸의 염증이 진행됐다는 신호다.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면 틀림없다.

치주질환은 무엇보다 환자 스스로 치아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하다. 칫솔질만 잘한다면 치주질환의 80%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치과에서 정확한 칫솔질 방법과 치실 및 치간치솔 등 보조용품 사용을 정확히 배워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 번 나빠진 잇몸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 특히 한 번 파괴돼 흡수된 치조골(치아를 감싸는 주변 골)은 아무리 염증치료를 해도 원래의 높이로 재생되지 않는다.

치과 질환은 증상이 보이면 이미 상당히 질환이 진행된 상태다. 치과를 정해놓고 1년에 1번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검진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02)776-2882

■ 안은영 원장(소중한이 치과)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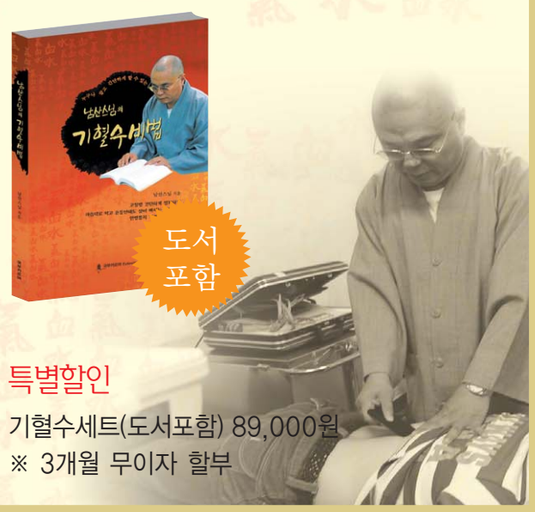
•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쉽게 살이 빠지는 비법 공개
• 관절염을 가정에서 쉽게 해결하는 비법 공개 / •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국부카르마 문의 : 051-583-9924
우 체 국 601161-01-005632 (예금주:불타암)

기혈수비법이란?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다이어트 밴드	온열 쑥뜸 구풍	물소뿔 괄사	발란스 테이핑	캡사이신 원형 패치
5EA	20cm x 2cm	10cm x 7cm	4cm x 10m	10EA x 90장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실크로 제작되어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 평상시대로 먹어도 체지방이 빠지며, 약간의 운동만 겸해주면 상당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 발가락에 감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나, 잠을 잘 때에는 하지 않도록 한다.	전체가 쑥으로 구성된 쑥뜸구풍이다. 뜸이 무서운 분들을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쑥구풍에 불을 붙인 뒤, 아픈곳의 혈자리를 찾아 2cm 정도 떨어져 쑥구풍을 돌려준다. 몸살, 소화불량, 빈혈, 염좌,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 패치요법과 병행하기도 하며, 관절부위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돌려주면 좋다.	물소뿔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좋으며, 사용법은 근육결 또는 혈의 방향에 따라 45° 각도로 긁어준다. 이때 긁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나쁜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지나면 사라진다.	병원에서도 많이 쓰이는 테이핑이다. 보통 근육통이나 염좌, 관절쪽에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위장병, 기관지, 고혈압에도 좋다. 시술전에 부위에 맞게 미리 잘라 놓는다. 관절은 편채로 붙여야 하며,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한다. 위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야 한다.	고춧가루 파스의 성분인 캡사이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미니패치로, 감기, 몸살, 갑상선, 편도선염, 기관지, 신경통 등에 좋다. 증세에 따라 그에 맞는 혈자리를 찾아서 붙여준다. 테이핑과 동시에 사용하여도 좋으며, 관절부위에는 쑥뜸온열요법과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별할인
기혈수세트(도서포함) 89,000원
※ 3개월 무이자 할부

영상미디어 속에 나타난 불교사상

인간의 삶과 욕망이 그대로 반영되는 대중문화의 대표 매체로써 기술문명의 중심부에 영상미디어가 있다. 불교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괴로움(苦)과 괴로움의 원인(集), 괴로움의 소멸(滅)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에 이르는 길(道)을 대변하는 이 시대의 거울이 바로 영상미디어다. 세상의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언명제는 무수한 인연의 결합이라는 원인에서 비롯된 것. 인연의 의미는 다양한 인간만큼이나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 속성은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간의 복잡한 경험담은 영상미디어의 주요 소재거리가 된다. 차가운 스크린 혹은 브라운관에 비춰지는 군상들 속에서 인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공간을 아우른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수미산의 겨자씨 비유처럼 인간은 진실한 실제를 살아가기 어렵다. 인간이 집착하는 실제에서 벗어나 궁극의 자유로운 실제로 향하는 여정을 영상미디어 속 주인공들은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 최근 영상미디어에 나타난 불교 메세지에 주목한다. 각각의 주인공이 나름대로 펼쳐 보이는 인생사는 결국 인간의 문제이며 밝은 미래를 향한 자유의지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극장애니메이션: <쿵푸팬더>

게으름의 상징인 팬더가 쿵푸를 한다? 극장애니메이션으로 온가족이 함께 관람 가능한 <쿵푸팬더>는 코믹 액션 블록버스터이다. 평화의 계곡, 대대손손 이어져온 국수집에서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 국수배달을 하던 팬더 '포'가 마을의 현자 '우그웨이'로부터 용문서의 전수자로 점지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쿵푸라고는 전혀 모르는 평균 수면시간 22시간, 이동속도 시속 30㎝, 키 120㎝에 몸무게 160㎏인 초고도 비만팬더 포는 자신이 영웅이라는 소리에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이런 포가 못미덥지만 '예언의 인물'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쿵푸 마스터 시푸 사부와 수제자들은 기상천외한 특별훈련으로 포의 훈련에 함께 한다. 타고난 몸치에다 식신인 함량미달 팬더의 쿵푸 영웅 도전기는 '내 안에 잠재된 참 나'를 깨우는 과정이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조금씩 쿵푸 마스터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에서 모든 해법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TV광고: <CYON와인폰> <니콘D300>

"스님. 삶의 지혜란 어떤 건가요?" 숲속 연못을 건너는 작은 조각배에 탄 청년이 노를 젓는 스님에게 묻는다.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큰 걸 볼 줄 아는 것이지." "그럼 큰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답한다. "돈 주고 사라 이놈아." 유유히 흐르는 물길 위에서 인생이란 조각배를 타고 가며 스님에게 삶의 지혜를 묻는 핸드폰 광고다. 와인(WINE)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출시된 제품으로 내외부 LCD화면을 키우고 기능버튼을 한글로 표시한 제품의 특징을 '크다'는 컨셉으로 하여 구매 대상 세대의 고민을 불교의 선문답과 연관 지었다.

'있는 그대로를 보겠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나를 의식하지 않게 하겠다.' 니콘(Nikon) 카메라가 지닌 사실적인 색감 표현과 다큐멘터리 작가에게 느껴지는 진중하고 순수한 열정을 효과적으로 살린 TV CF이다.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인 캄보디아 앙코르왓트 내의 바이욘 사원을 배경으로 자연의 웅장함을 표현하고 스타 모델 비(정지훈)를 기용하였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보는 지혜를 의미한다. 불교의 사마타(止) · 위빠사나(觀)와 같다. 도성제로서 괴로움이 소멸에 이르는 길인 팔정도(八正道)는 무상(無常)한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공(空)한 진리로 향하는 수행법이다. 불교문화유적과 수행자를 바라보며 읊조리는 사진작가의 독백은 헤아리기 어려운 태고적 불교문화의 신비를 제품의 독자성과 연관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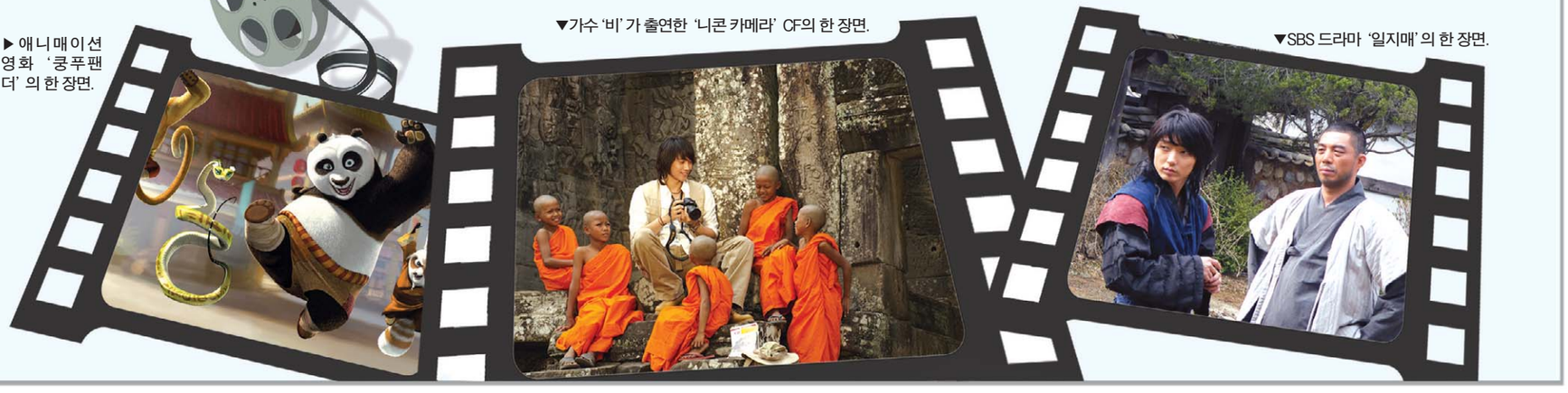
#드라마: <일지매>의 공갈아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소?" 공갈아제(양길강)는 수 · 목요일이 되면 한양 남문 저잣거리로 탁발을 나선다.

억눌린 서민의 가슴을 후련히 해주는 드라마 <일지매(SBS)>속 아제의 직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극중 봉순의 양아버지이기도 한 아제는 귀여운 부녀공갈사기단이다. 무념무상으로 살아가는 아제는 삶에 욕심이 없다. 과거 잘나가던 왕의 호위무사로 인조반정에 가담하면서 살생에 대한 죄의식을 느낀 후 승복을 입고 서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한다는 짓(?)이 사기행각 연발이다. 만날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다시 만난다 했던가. 자신이 암살했던 인물의 아들인 일지매(이준기)를 제자로 받아들여 무술을 전수한다. 공갈아제는 조선시대 억불 정책 속에서 행색은 초라하지만 강인한 내면으로 부조리한 계급사회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승려이다.

배우 양길강은 "드라마의 배경이 조선시대 중기이지만 모티브만 따랐을 뿐 현시대와 견주어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윤택함이 나아졌을 뿐 공갈아제는 허구와 정의가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말한다. 인간이기에 살아가는 동안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업(業)의 굴레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는 퓨전 사극이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팬더'의 한 장면.

▼가수 '비'가 출연한 '니콘 카메라' CF의 한 장면.

▼SBS 드라마 '일지매'의 한 장면.

"라다크의 생명윤리, 불교와 通해요"

제5회 서울환경영화제서 만난 〈오래된 미래〉 헬레나호지 감독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보여주는 위기는 생명의 존엄함입니다. 다행이도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적입니다. 즉 인류가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지난 5월 28일, 다큐멘터리 <오래된 미래(1993)>가 제5회 서울 환경영화제 '문명의 저편' 섹션에서 상영됐다. 서구의 영향을 받은 라다크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과정 속에서 인류의 대안을 찾는 내용이다. 이어서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감독(사진)과 함께 작품의 제작 배경과 세계화 · 경제화에 맞선 지속가능한 삶에 관한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다. 감독 헬레나 호지는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이자 생태운동가이다.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자리한 인도 북부의 라다크에 방문한 이후 16년 동안 거주했다.

"라다크를 통해 진정한 부의 의미는 재해석됩니다. 라다크의 경제 시스템은 우리의 소중한 후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밀접한 상호 관계입니다." 수세대에 걸친 라다크의 자연 활용법은 낭비하지 않는 삶에 있다. 천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라다크의 자연 친화적인 경제학은 불교와 통한다. 1만 6천 피트의 험한 산세 속에서도 그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정신적 기반이 불교다.

지난 20년 동안 라다크는 현대문명에 개방됐고 인도로부터 문명의 이기가 들어온 이후 전통문화는 파괴되었다. 현대화는 모든 가치관을 흔들었다. 충돌과 폭력으로 파괴된 오늘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의 라다크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그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인간 정신의 각성은 타인들 그리고 자연과 연결됨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안의 세계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생명의 고리임을 깨우쳐야 한다.

가연숙 기자

문화 소식

대만 화가 호쥔밍씨 작품展



이태원에 위치한 표 갤러리 본관에서 6월 13일까지 대만의 유명화가 호쥔밍(Hou Chunming)의 대형 작품전이 열린다. 신적인 존재와 영접하면서 내면을 탐구하는 작가 호쥔밍은 수도자와 같이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만다라적인 시각이미지로 표현해왔다.

그의 작업 세계에 나타나는 많은 신들은 대만의 토속신앙에 뿌리를 둔다. 그의 작품을 보면 자아성찰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동양의 사유를 대변한다. 가연숙 기자

법만 스님 염불CD 8집 발표

법문가요와 향토가요로 알려진 법만 스님(법만사 주지)이 마음의 안온함과 고요함을 일깨우는 염불CD음반 8집을 묶어 출시했다. 불자들이 기도를 하려해도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일상의 염불로 일념(一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온 스님의 성과이다. 총 제작 기간 1년 반, 염불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전만을 독송했다.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배우면 덕스러워집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목탁 집전과 독경의 고저로만 전달되는 생생한 염불이다. 가연숙 기자

2008 환경의날 기념 사진展

환경재단은 6월 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문화홀에서 마음의 정원 사진전을 연다. 자연이 주는 사색과 영감, 생명의 기운, 자연과 인공 환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경험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는 지배와 순응의 순환 고리를 고민해온 사진작가들의 작품은 전시를 통해 자선 경매된다. 그 수익금은 아시아지역 물 부족 국가의 '생명의 우물' 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사색의 걸음을 옮기다' '생명의 기운을 느끼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로 총 40명의 작품 80여점으로 구성되었다.

가연숙 기자

“이름도 흔적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어요”



20대 경종의 원비 단의왕후 – 혜릉

단의왕후 1686~1718 (33세)









혜릉(惠陵)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조선 제20대왕 경종의 비(妃) 단의왕후 심씨(端懿王后沈氏)의 능이다. 동구릉 능역 안에 있다. 왕후는 청은부원군 심호의 딸로, 1696년(숙종 22) 11세로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1718년(숙종44) 소생 없이 죽었다. 숭릉 왼쪽 산줄기에 모셔졌다가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단의왕후에 추봉되었고, 1722년(경종 2)에 능으로 봉하였다.
능제는 인현왕후의 능인 명릉의 제도를 따라 문무인석을 비롯한 모든 석물이 등신대(等身大 : 사람 몸만큼의 크기) 정도로 왜소화되고 있으나, 무신의 얼굴은 당대의 유행과는 달리 옛 형식을 따르고 있다.

조용히 살다가 이름 없이 적멸로 가고픈 인생도 있을 것이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소멸되고픈 삶도 있을 것이다. 소유와 명예는 번뇌의 씨앗이다. 번뇌에 갇힌 삶은 비좁고 번거롭다.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승의 흔적을 깨끗이 털지 못하고 두고두고 입방아에 올라야 하는 것이 왕과 왕비의 숙명이다.

혜능은 20대 경종의 원비 단의왕후가 홀로 잠들어 있는 단릉이다. 권력의 암투에 휘말렸다는 기록도 없고 여인의 야심을 펼쳐보였다는 기록도 없다. 그러나 조선 왕조 최대의 능역인 동구릉에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후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다. 그렇다고 태조의 능처럼 인기가 높아 찾는 이가 많은 것도 아니다. 살아서도 적막, 죽어서도 적막이 그녀의 벗이다.

단의왕후 심씨는 청은부원군 심호의 딸로 태어나 11세에 세자빈으로 책봉되고 33세에 자손 없이 죽어 동구릉에 안장되었다. 생전에 왕비 노릇은 못했다. 남편 경종이 왕위에 오르기 2년 전인 1718년(숙종44년) 2월 7일 병으로 죽었다. 경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추존되어 묘호와 능호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 상승을 크게 반겼을 것 같지 않다.

단의왕후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다. ‘세자빈 심씨는 품성이 어질고 어릴 때부터 총명했으며 덕을 갖춰 양전(兩殿: 왕과 왕비)과 병약한 세자를 섬기는 데 손색이 없었다’는 간단한 기록뿐이다. 왕비나 왕실의 여인에 대해 실록은 인색하도록 지면을 아낀다. 죽은 후에는 거의 다 ‘어질고 효도를 다했고 품성이 아름다웠다’는 의례적인, 접대용 언사 정도를 남기고 있다.

단의왕후는 세자빈의 신분으로 죽었고 자손마저 없었다. 왕실의 여인들에게 왕자 생산은 장래보장의 절대적 보험이다. 보험이 없는 여인은 아무리 능력과 미모가 출중해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다. 자신이 불임이면 신뢰하는 후궁에게서라도 아들 얻기를 간절히 원해 후원한다.

그녀보다 두 살 어린 경종은 세자 시절부터 이미 남자 구실을 못하는 처지였다.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편이 왕이 된들 그녀에게 무슨 영화가 있으랴. 건강마저 골골하는 남편에게 기댈 건덕지가 없었다. 오직 숨죽이며 사는 것이 최선이다. 붕쟁의 틈새에서 어느 쪽에도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약간의 야심이 있었다면 세자빈 시절에 인현왕후 측이든 장희빈 측이든, 줄을 댔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측에 연루된 흔적이 없다. 병약한 남편과 무자식,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다.

혜릉에 들어서니 수복방이 있던 자리에는 깨진 주춧돌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쓸쓸한 왕비의 흔적으로 보인다. 혜릉의 정자각과 홍살문은 다 무너지고 없던 것을 1995년 12월에 복원한 것이다.

조선 왕릉의 정자각이나 홍살문은 대부분 산뜻하고 반듯하다. 간혹 단청이 오래되어 고색창연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역사의 풍파가 느껴지지 않는다. 근자에 복원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자각이란

병약한 남편에 후사도 없는 적막한 운명
왕비에 못 오르고 22년 세자빈의 삶 마감

기와집 형태의 건축물이다. 기와집은 지속적으로 손보고 돌봐야 한다. 정성과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건축물이다. 집이란 사람의 숨소리와 손때가 멀어지면 몇 년 못 가서 폐가가 되고 무너져 내린다.

조선 왕릉 정자각은 대부분 한국전쟁 때 불탔다고 하지만, 전화를 입지 않아 멀쩡하게 건재했던 정자각들도 전쟁 이후 돌보는 이가 없어 무너져 내린 것도 상당수다. 조선 왕릉이 1970년에 와서야 비로소 사적지로 지정되고 국가에서 돌보기 시작했으니 그 이전에는 방치됐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은 문화재 훼손의 주범이란 불명예를 묵묵히 감수하고 있다. 후손의 정성이 부족했다는 것은 먹고살기에도 힘들었다는 이유와 함께 그 뒤에 숨는다.

조선 왕릉은 대부분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웠는데 혜릉의 단의왕후는 서쪽에 머리를 두고 발을 동쪽으로 향하게 누워 있다. 능의 침향(枕向) 즉 시신의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는가는 민족, 종교, 지역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동쪽, 남쪽으로 머리를 두는 예가 많았다. 고구려와 백제는 5~6세기부터 중국의 영향으로 북침(北枕)하기 시작했고 신라는 통일 이후 동침에서 북침으로 바뀌어갔다.

이것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국조오례의> 기록에도 조선 왕릉은 대부분 북쪽에 머리를 두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단의왕후의 서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시원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엉뚱한 가설만 세워볼까. 남편 경종이 묻힌 의릉을 향해 머리를 두고픈 애달픈 심사였을까. 의릉(석관동)은 혜릉(구리시)의 서쪽에 있다. 그러나 이것도 못 믿을 가설이다. 경종의 의릉은 혜릉보다 6년 뒤에 조성되었다.

살아서 영화를 못 누렸지만 가장 장엄한 왕가의 가족묘인 동구릉에 자리 잡아 누웠고 직선거리로 머잖은 곳에 남편 경종이 의릉에 누워 있다. 그러나 왕후의 내심은 이런 게 아닐지도 모른다.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적멸로 가서 호사가의 관심에서 잊혀지길 바랄 게다. 번뇌도 의혹도 괴로움도 없는 저 세상에서 조용히 살고 싶을 게다.

그런 소망마저 이루지 못해 그녀를 지키고 있는 무인석마저 수난을 당했다. 능상을 지키려고 장검을 짚고 서 있는 오른쪽 무인석의 코가 흉하게 깨져 있다. 누구 무덤인지 개념도 없던 시절에, 석물의 코를 깨서 갈아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 때문이다. 아들 하나 낳지 못한 불행한 여인이었는데 말이다. 조선시대, 일제시대, 해방 이후까지 그 속설은 유효한 비방으로 은밀히 통용됐다. 그래서 유적지마다 석물의 코는 흉한 것이 많다. 흉한 얼굴의 장수 일망정 외로운 청상과부의 무덤을 잘 호위하길 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❶경종의 원비 단의왕후 혜릉 전경
❷망주석의 세호가 아래로 향하고 있다.
❸난간석에 새겨진 12자가 또렷이 보인다.
❹무인석의 잘려나간 코와 치아를 내놓고 웃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마루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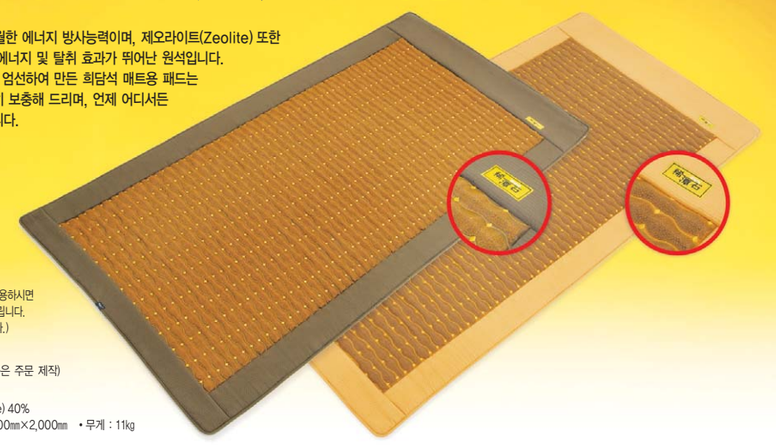
♦ 조립식 원두막 방갈로 7000×3500×3300(mm) 가격:7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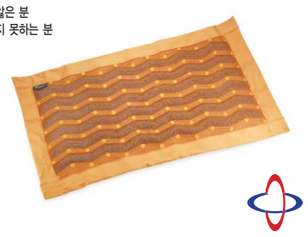
♦물로 청소하는 평상 1800×1030×350(mm) 가격 : 190,000
연결, 이동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1~2
FAX:(063)323-3010
계좌번호 (농협) 519 - 02 - 203482 예금주 : 지구산업 곽 영 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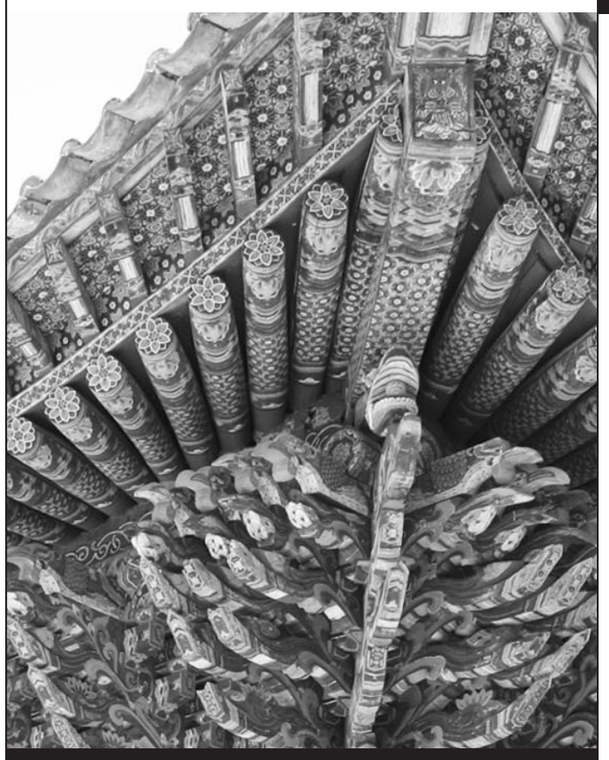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
생명에너지가 방사되는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용방법
돌침대, 매트리스, 전기매트, 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희담석의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뒷면의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희담석 매트용 패드
●1인용 : 35만원 ●2인용 : 60만원 (2인용은 주문 제작)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60%, 제오라이트(Zeolite) 40%
• 겉재질 : 모노망사, 황토면 • 크기 : 1,000㎜×2,000㎜ • 무게 : 11kg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방석
●가 격 : 45,000원
●크 기 : 45㎜×45㎜
사용처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희담석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분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등
희담석 베개용 패드
●가 격 : 25,000원
사용방법
베개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린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함.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9-4호 금구빌딩 B103호
TEL:(02)3476-2335 FAX:(02)3476-2505
제품문의 011-9230-233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진주 사천
● 총평수 : 8,000평(100% 사용가능)
● 종교용지 및 버스주차장
● 법당 30평, 산신각 20평, 관음전20평, 대중방 15평, 요사채 70평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가액 : 24억원 반값매각(개인사정 급)

임법당
● 위치 : 부산 범일동
● 대지평수 120평(시유지)
● 건물 : 약 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 3칸, 주방 및 화장실(초현대식)
● 마당 5층 석탑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만원

사찰 전 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사찰부지 및 사찰, 임법당, 토굴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화성
● 법당 및 요사 : 60평 (임법당 사용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임)
● 부지 : 230평
● 가액 5억

● 위치 : 충북 옥천
● 법당 : 13평
● 요사 : 40평
● 부지 : 38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서울
● 법당 : 25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20평
● 가액 : 3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 종교부지 약 260평
● 법당 22평(현 불사중)
요사채 33평(현대식)
창고, 산신각
● 가액: 1억 2천만원
010-3553-789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
● 건물 3동
임법당 25평 1동
● 주지실 1동,기도실 1동
● 가액 2300만원
010-7658-0330
010-4172-5120

명당 암자터 별장지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영동역 2분거리, 버스 도로접
● 앞에는 금생수가 흐르고 북바위가 둘러싸여있는 북터
● 대지 200평, 300평, 600평, 1000평
● 평당 13만원
010-3545-9992
043)732-27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가 아파트 밀집 최요지
● 평수 : 45평
● 방2, 법당, 공양간, 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절충가
055)337-8600
011-834-854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자락 (동화사 근교)전통사찰
● 대지 : 720평, 법당50평, 30평 요사채30평, 종무소 20평
● 가액 : 13억원

대구시내, 근교 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지하철 5분거리)
● 법당 시설 완비
차 진입가능,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51)294-1204
010-9998-292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주령 상교산 명산 사찰터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임야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4억6천(급)
017-570-16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 전세(120평)
● 진신사리 봉안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최고의 시설, 일산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 가액 : 총 4억 (절충가능)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지하철역 부근
● 50평(6층 건물중 6층)
● 특징 : 교통편리, 전망좋음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1-588-220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시장삼거리
● 50평(2층 건물중 2층)
● 최요지. 법당, 방2, 주방1
● 급하게 쓸 역학도 가르쳐 드림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591-52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 법당 20평(2층)
● 삼존불, 시설완비
● 일신상 법당 운영이 불가능하여 급히 양도하고자 함
● 보증금 2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는 차후 상의
016-451-7646

지리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
● 법당, 요사,산신각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
(전세 및 대출가능)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전철 1호선 동두천 중앙역 앞
● 평수 30평(여유면적 약20평)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 3개월 되었음
● 사정상 급 안내함
시설비 약간
010-5019-8356
010-3902-329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청량리
● 5층 건물중 5층
● 법당 30평, 마당 30평
● 천불전 불사완료됨
●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시설비 6천만원
010-8677-16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 평수 : 7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2채 방4개, 창고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적합
● 가액 : 2억원
011-9920-1224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송
● 대지 : 1223㎡
● 요사 : 37평, 법당 : 1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10-8861-9856

수행과 포교하기 좋은곳 양도

● 위치 : 대전시
● 2층 건물에 2층 50평
● 주차와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공원과 산이 있어 포행하기 좋음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천만원
● 관심있는분은 직접방문 후 결정하길 바랍니다
010-9315-919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종로구
● 법당 : 123평
● 건평 150평 중 3층 60평 법당 2층 60평 요사채 1층 30평 주차장
● 가액 : 20억. 사찰 맞교환가능
011-9732-4746

암자 토굴 안내

● 위치: 합천 해인사 안 계곡(가야산)
● 크기 : 450평. 앞쪽 계곡, 뒤는 산
● 임법당, 요사채 45평, 방7개 옛집 12평, 창고 20평 전답 800평 사용
● 심야보일러, 법당, 주방 일체완비
● 특징 : 해인사 계곡, 해발 900고지 최신 황토방, 요사채
● 가액 : 9천 8백만원(대출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
010-5828-0455
010-5820-0455

도심속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천호역 5호선 부근
● 버스, 시장, 주변생활 아주편리 살림가능, 난방 도시가스
● 3층 건물중 1층(23평)
● 법당, 방, 주방 뒷마당 화원. 시설A급
● 현재 운영중
● 보증금 6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400만원
● 해외 이주관계로 급 안내함
010-7135-403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5백만원
017-232-3389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
● 평수 30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3평 요사채 50평, 공양간 20평
● 사찰규모 완벽하고 최고의 시설
● 가액 : 5억원
010-9080-96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1천만원
010-9115-6831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 평수 : 80평
● 3층 건물중 2층
● 보증금 1000만원, 월62만원 시설비 : 2500만원 시설완비, 즉시법회가
010-2914-353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포항시 육거리 옆
● 평수 : 33평
● 방2개, 법당, 공양간
● 삼존불 및 신중,칠성,산신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32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앰프시설 완비
010-4415-668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산 중턱
● 답 632평, 황토방 15평, 전기 있음
● 가액 : 4,300만원
010-2775-4035

암 자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도립공원 내 주차장 적
● 평수 : 270평. 건평 : 30평
● 공원겸용 허가 득
● 3억3천만원
011-506-458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및 황토 요사채 옆 산, 옆 계곡, 마당잔디 넓은정원, 텃밭, 유실수
● 휴양, 공부, 일반중생도 가능
● 총 3700평
● 임대보증금 300만원 1년 350만원 양도가능 2억 3천만원
017-813-9126

포교당 터(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 60평(3년)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경관이 사찰로 운영함이 좋을 듯 싶고 포교당으로도 적합함
● 심야전기시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현 시가액에 맞지않은 3억2천만원에 인연맞는 분께 양도하려함
011-803-7448

석 탑 안 내

예술과 조형미가 뛰어난
● 불사리3층석탑. 높이 9자(미사용). 가액 : 500만원
● 오래된 한옥. 주춧돌 원형 5개 파임조각 4개,구들장 50개포함 가액 : 500만원
● 괴목나무 뿌리 미가공 탁자용 6자, 5자, 높이 3자. 가액 : 200만원 연락처. 주인직
010-3633-3883
* 토굴 구하실분 연락요망 *

사 찰 안 내

(비구니 스님만)
● 서울에서 30분, 남양주시 오남 10만평 호수공원 언덕에 사포니 안은곳, 지하철 4호선역
● 국유지 1,000평, 개인 1,000평 요사채 60평, 서별당 10평
● 법당공사 금년 완공예정
● 욕심없이 정진하는 비구니 스님
● 동참금 3천만원 가능한분
010-6600-1377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버스정류장 앞, 부평시장 역세권
● 평수 : 120평
● 방 3, 창고방 1, 창고 1,
● 공양간 大, 주방 2, 화장실 2 삼존불, 지장소불 120불
● 시설 최우수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32)519-1108
010-4545-110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3분거리 재래식 시장입구 6차선 대로변 횡단보도 앞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1-406-365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양산시(부산에서 20분거리)
● 총 평수 54평
● 법당, 공양간, 방3, 부처님, 탱화
● 보증금 2천만원, 월45만원 시설비 없음
010-2599-6020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반야계곡
● 평수 : 3200평
● 대지 : 20평
● 가액 : 6천만원
016-9707-3108

절 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현재 가옥 있음 강이 내려다 보이고 2차선 도로변
● 평수 : 총 2300평
●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 6천만원. 별장가능
010-7658-0330
010-4172-5120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 국 사 찰 암 자 포 교 당 부 전 스 님 공 양 주 소 개 합 니 다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법당 : 65평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전철역에서 5분 거리. 롯데백화점 근교, 주차자 완비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90만원
● 최고의 시설,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011-9850-1348

사찰전세 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
● 요사채 50평
● 산세좋고 경관수려,배산임수가 용이하고 산신각과 용궁이 유명함
● 전세 5,000만원
011-9348-2652

사 찰(급)안 내

● 위치 : 포천시 송우리(의정부 경계)
● 평수 : 446평
● 2층 건물중
1층 : 종무실, 공양실, 주지실, 화장실 2, 방 5
2층 : 대웅전(47평)
별채 : 약 50평 건물, 위패단 및 지장도량
● 모든 집기 그대로 양도합니다
● 가액 : 15억(절충가능)
010-9757-7245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월근교
● 산좋고 물좋은 경치좋은 동강 앞
● 대지 200평, 전 570평 군부지 약600평 사용중
● 법당 16평 신축 요사채 35평
● 가액 : 2억3천만원(절충가능)
011-792-8969

멋진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령(신촌유원지 옆)
● 대지 2000평, 대웅전 단청 40평
● 요사채, 큰방4, 현대식 주방2, 목욕탕, 실내화장실, 요사채 1층 원룸 15개, 2층 원룸 15개, 다락 : 큰방 2개. 현대식 신축
● 2007년 5월 올수리 14억원 들었음
● 가액 : 6억(융자 2억있음) ● 주인직접 급 양도
011-869-8608
011-872-707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만원(절충가능)
011-9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 800평, 공유지 500 여평 활용
● 법당 :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대구 30분 거리
● 특징 : 강변고절처로 기도처 최고
● 용도 : 도시인근 포교도량 최적지
● 용처 : 평탄하여 노후생활 최적지
● 환경 : 경관도 좋고 도로포장 완료
● 가액 : 3억 2천 5백만원
● 사진 : 사찰넷에 첨부파일 있음
010-4600-0408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불자정보 계속



목과 입을 쓰지 않고 말할 수 있는가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백장 선사께서 "목도 입도 쓰지 않고 말할 수 있느냐?"고 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위산영우는 "오히려 스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였고, 오봉상관은 "스님께서 먼저 목도 입도 모두 없애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운암담성은 "스님께서 이미 목과 입을 모두 없애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직 목과 입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대꾸하였습니다. 운문 선사는 "평지에 죽은 사람이 무수하다. 가시덤불을 지나가는 자라야 좋은 솜씨이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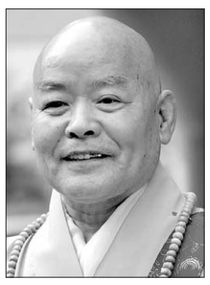
이와 같이 백장을 비롯한 모든 종사들은 가시덤불 같은 선문답으로써 사람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중략) 따라서 이런 납자들은 활구(活句)를 참구할 뿐이지 절대로 사구(死句)로 헤아리지 않습니다. 종사가 사람을 지도하는 것은 못과 쐐기를 뽑아주는 이치가 있음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중략)

그렇다면 도대체 백장선사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가도 마을을 만나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도 주막이 없습니다. 이처럼 "목도 입도 쓰지 않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은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물음입니다.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기에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서 살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해결방법은 오로지 화두타파 외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승은 항상 간절한 노파심으로 이 법문을 자주 해왔고 또 후학들에게도 두세번 거듭 일러 왔던 것입니다. 이번 무자년 하안거에도 이 '병각인후(倂却咽喉)' 공안타파를 위하여 용맹심으로 참구해주길 결제에 들어가며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하략)

청정심이 부처, 평상심이 道



혜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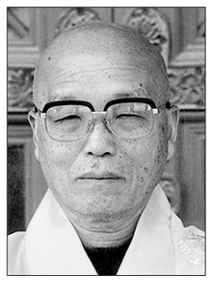
태고종 종정·태고총림 방장

보살은 간세이생(間世而生)이라 하였습니다. 진리를 받들고 대중을 위하여 자비를 행하는 혜안을 가진 사람은 드문드문 생겨난다는 말이지요. 노납(老衲)은 지난 해제 때 중생을 위하는 일이야말로, 정진 중에 정진이니 해제 기간 동안, 세속에 나아가 보살행을 하라고 이른 바 있습니다.

이는 청정심(淸淨心)이 시불(是佛)이요, 평상심(平常心)이 시도(是道)인 까닭에 도를 구하되 마음에서 구하고 도를 행하되 일상에서 행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중략)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이 진리를 따르면 이것이 모두 도인 것이지요. 수행자는 틀에 박힌 관념의 허상을 벗어나야 진정으로 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하안거에는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가다듬어 일추석천(一錐石穿: 송곳이 바위를 뚫듯)의 분심으로 불지지견(佛智之見)을 개시오입(開示悟入)하시기 바랍니다. (하략)

모두 다 놓아버리고 다른 생각 내지 말라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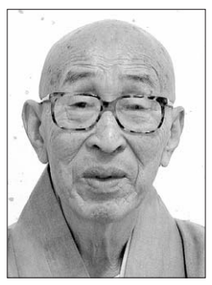
(상략) 방하착 막망상(放下着 莫妄想)하라, 즉시여래대원각(卽是如來大圓覺)이로다. 모두 다 놓아버리고 다른 생각내지 말라,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큰 깨달음이니라.

옛 조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에 구정(九鼎)이라는 선사가 계셨는데 중이 되려고 가서 스승의 말씀에 따라 솔을 아홉 번이나 아무 불평없이 고쳐 걸었다는 스님인데, 스승께서 '즉심(卽心)이 불(佛)' 이라고 법문하시는 것을 듣고, '집세기불' 로 잘못 듣고 '왜 집세기가 부처인고' 하는 화두를 열심히 참구해서 크게 깨달았다고 하니, 화두의 우열에 상관이 없고 얼마나 어떻게 참구하느냐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략)

이 공부는 유심으로도 안되고 또한 무심으로도 안된다. 한 화살에 돌호랑이를 쏘아서 붉은 피를 보아야만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략)

생사를 초월하면 어디서든 자유로이 노닌다



지종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생사를 초월하여(透出生死) 선기를 발휘하면(撥轉機關) 손쉽게 무쇠도 못도 뚝뚝 끊고(等閑截鐵斬釘) 천하 어디에서든지 자유로이 활동하게 된다.(隨處蓋天蓋地)

자 말해보라. 어떤 사람이 그런 편한 곳에 있을 수 있는지를.

화상이 찾아온 중에게 묻되 "요즘 어디 있다 왔나?"하고 물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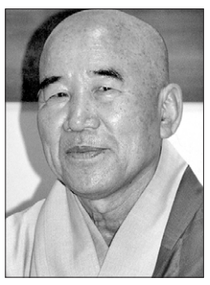
"서선 화상에게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화상이 다시 묻되

"서선 화상이 요즘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중이 말 대신 두 손을 불쑥 내밀었다.

곧 화상이 한대 때렸다. 중이 "제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니,

이번에는 화상이 두 손을 불쑥 내밀었다. 중이 아무 대꾸도 못 하므로 화상이 다시 한 대 때렸다. 묻노니 어디가 그토록 험준한가? 그 다음 한 마디는 너희가 하라! 일갈(一喝)하시고 편하좌(便下座) 하시다 . (喝!)

산과 물은 스스로 높고 깊어



원명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상봉수문환가로(相逢誰問還家路)

산자고혜수자심(山自高兮水自深)

누구를 만나 가는 길을 물으면

산은 스스로 높고 물은 스스로 깊더라

이 도리(道理)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존비귀천(尊卑貴賤)도 없으며 초학(初學)과 구참(久參)이 따로 있지 않으며, 출가와 재가도 없고, 오직 당인의 결정심(決定心)에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 정진해 나간다면 보리화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략)

사부대중은 반드시 철저하게 화두를 타파해 목전에서 한 물건의 무애자재(無碍自在)한 도리를 분명히 밝혀야만 부처님과 역대조사와 시은(施恩)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생사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범부(凡夫)와 성인(聖人)의 구별도 없고 선후차별도 없습니다. 다만 뼈에 사무치는 몸부림을 쳐 본 사람만이 비로소 파안대소(破顔大笑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진하고 또 정진하기 바랍니다. (하략)

불자정보 681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포항역 앞
- 평수 : 50평
- 법당 : 방3, 공양간, 종무소
- 집구조 : 아파트식 구조 해우소 2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258-1147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10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주방, 샤워실(비품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5013-252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법당 슬라브 기와 20평
- 요사채 슬라브 20평 산신각 6평, 황토방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3천 (상담 후 절충가능)

010-2920-6464

절터 · 별장 · 팬션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
- 자연녹지 450평(田)
- 야산 아래 남향 4차선도로 인접
- 가액 : 2억원(급 안내)

011-531-5562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서구 중리동
- 건물 40평(요사채, 법당) 편리한 1층으로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는 사정상 절충 (이사비용 정도)

011-807-0040

사찰안내
- 위치 : 강원 영월읍 동강에서 700m, 시내에서 3km
- 70년된 사찰, 법당 목조단청 25평 지장 목조단청 13평, 산신각 목조단청 8평 관음전 8평, 석불전 6평, 용왕정 4평, 요사채 30평, 15평, 화장실 2동
- 미륵석불1, 5층 석탑2, 용탑2
- 가액 : 3억5천 ●스님 노환으로 양도원함

011-484-0663
033)374-445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재래시장 인근
- 3층 46평. 건물 내 주차장 완비
- 버당, 요사, 주방, 현대식 최상급 시설
- 사찰비품 및 전자제품 일절
- 보증금 300만원, 월42만원 시설비 1500만원
- 가액절충.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9308-7913

사찰 터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
- 건물 1동 30평
- 종교용지 300평
- 250m 지하석수, 전기 청정계곡 영골
- 가액 : 7천 5백만원

011-494-0977

사찰안내
- 위치 : 서울근교
- 평수 : 약 110평
- 법당 : 약 55평 (삼존불,삼성단등)
- 요사 : 약 55평 (방3개,상담실,거실등)
- 가액 : 3억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사찰안내
- 위치 : 대전
- 대지 500평, 건평 120평 임법당, 삼존불 마을근접, 풍수좋음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0-8545-6548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오세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간절히, 뼈골에 사무치게 화두 들라”

사부대중 500여명 참석 진제 스님 결제법문 경청

무자년 하안거 동화사 금당선원 결제현장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부처를 뽑는 시험장(選佛場)’이 일제히 열렸다. 5월 19일(음력 4월 보름), 2200여 수좌들이 전국의 간화선 수행처에서 무자년 하안거 결제에 돌입한 것이다.

하루 전인 18일, 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한 수행자들은 이튿날 결제일 오전에 방장, 조실 등 선지식의 결제법문을 듣기 위해 삼삼오오 법당으로 모여들었다. 전문 수행자인 수좌는 물론, 남녀노소 재가 선객들도 이날만큼은 함께 큰스님의 입제법문을 듣고 석달간의 집중수행의 각오를 다지는 날이기도 하다. 마치 방거사가 “시방에서 함께들 모여들어 모두가 제각기 무위(無爲)를 배우나니, 이곳은 부처 뽑는 과거장이라 마음 비워 급제해 돌아가리라.”고 노래한 것처럼, 출재가 수행자들은 결연한 의지로 ‘부처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비우고 또 비우는 ‘심공(心空) 불사’에 몰입할 태세다.

하안거 결제일, 팔공산 동화사(주지 허운)에서도 산문 안팎에서 하안거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이 조실 진제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의 결제법문을 듣기 위해 통일기원대불전으로 모여들었다. 부도암, 양진암, 내원암, 염불암 등 동화사 산내 결제대중과 청도 운문사, 경주 흥륜사 등에서 온 대구·경북지역 사부대중은 무려 500여명. 이 지역 선객들이 총출동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체 분별과 시비·장단, 몸뚱이 애착도 다 놓아 버리고, 오매불망 간절히 뼈골에 사무치는 각자의 화두를 들어 일념이 지속되도록 혼신의 정력을 다 쏟아야 합니다.”

진제 스님은 하안거 입제식에서 법문을 통해 “대신심과 대용맹심을 내어 이 철에 반드시 화두가 순일해져서 대오견성(大悟見性)하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거수 일투족 성성하게 화두를 챙기는 가운데 의심을 쭈욱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해서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공부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진제 스님은 모든 수행대중의 결계(結界) 및 포살(布薩) 참여를 적극 당부하기도 했다. 스님은 “결계와 포살은 부처님 재세시(在世時)부터 이어온 승가의 오랜 전통으로 선원, 강원, 총림 등의 대중승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전승되고 있으나, 이외의 수행처소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하안거부터는 종단에서 승가의 수행종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수행대중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이어 운문 선사와 취암 선사, 조주 선사의 수행일화에서 비롯한 세 가지 공안을 제시하며 화두타파에 진력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법문을 시작할 때 주장자를 들어올리며 ‘법의 문(法門)’을 연 스님은 이윽고 주장자를 내려찍으며, 법의 문을 닫았다. 50여 분의 긴 법문을 설했지만 한 마디도 설한 바 없는 도리를 알아차렸는지, 법회를 마친 대중들은 각자의 수행처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긴다.

동화사 금당선원에 방부를 들인 30명의 납자들은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도 급히 달아나라”는 조실스님이 제시한 공안을 참구하며, 봉황이 알을 품는 모습의 터에 자리한 선방에 태산처럼 앉는다. 수좌들은 이날부터 1967년 경허-혜월-운봉 선사의 맥을 이은 향곡 선사로부터 전법게(傳法偈)를 받은 진제 스님의 지도점검을 받으며,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면목이 무엇인가?’하는 화두와 사생결단을 벌일 것이다. 석달이 지난 후, 아니 그 전에 은산철벽(銀山鐵壁)을 깨부수고 ‘문없는 문(無門)’의 빗장을 열며 사자후를 외칠 대장부들의 얼굴이 자못 궁금하다.

직접 선방에 앉지는 않지만 수행자를 뒷바라지 하는 외호대중들의 마음 역시 납자들의 심정과 다름이 없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결제는 대자유와 해탈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아름다운 자기구속”이라며 “결제대중이 여법하게 정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하겠다”고 말했다.

동화사 일주문 역할을 하는 봉황문을 나서며, 석달 후 알을 깨고 비상할 팔공산의 봉황들을 상상해 본다.

대구=글 김성우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불교의 수행은 참선이 핵심입니다. 각자가 ‘참나’를 찾아 영원한 대자유를 얻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불기 2552년 하안거 결제가 시작된 5월 19일,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진제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을 뵙고 안거수행의 의미와 마음공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참나 찾아 대자유 얻으세요”

인터뷰 /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진제스님



▲선(禪)은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도 여의지 않고 항시 쓰고 있는 마음고향의 땅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비워라,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광대무변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나’는 중생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수행을 통해 도안, 법안, 부처의 눈, 진리의 눈을 갖춰야 볼 수 있습니다.”

▲광대무변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나(我)’가 존재합니까?

“나(我)가 없지만, 표현하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33세에 향곡 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증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은 이후에 세상을 보니 어떠했습니까?

“처처(處處)가 불국토요, 처처가 화장세계(華藏世界)요, 처처가 반야(般若)입니다.”

▲화두를 타파하려면 반드시 숙면일여(熟眠一如)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숙면일여란 일념삼매(一念三昧)를 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의심으로 화두를 챙기고 또 챙겨서 일념이 되도록 노력하다 보면, 문득 보는 것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줄 모르고, 밤과 낮을 잊고서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몇 날 몇 달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동화사 금당선원의 수행 가풍과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금당선원은 이 나라 역대 선사들께서 선(禪)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신 곳이고, 특히 근세의 대선사인 경허 선사와 석우 선사, 효봉 선사, 향곡 선사, 고봉 선사, 전강 선사 등이 주석하여 후학을 지도하신 곳입니다. 이번 하안거에는 금당선원과 부도암, 양진암 등에서 모두 102명이 방부를 들였으며, 총 181명의 대중이 함께 공부를 합니다. 산승이 매월 음력 보름은 물론, 결제와 반결제 및 해제까지 직접 상당하여 법문을 내리고, 공부에 의문이 있거나 견처가 생긴 이들에게는 항시 염화실 문을 열어놓고 제접하고 있으니, 부처님과 옛 선사님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정안(正法眼藏)과 참선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본래대로 전해져 촌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와 중국에서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지혜로 이 난관을 풀어야 할까요?

“지금 미얀마와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풍재(風災)와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웃된 도리,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성심껏 성금과 지원으로 온정의 손길을 보내 조금이라도 그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아픔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생활인들을 위한 마음공부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하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모두 마음쓰기(用心)에 달렸습니다. 참선을 꾸준히 하면 차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며 마음의 갈등이 봄에 눈녹듯이 녹아내리고 날로 지혜가 증장되어, 나와 더불어 모든 이들이 평화롭고 화합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전화: 서울 02)585-1141 / 부산 051)505-2434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성장 카이로프락터 양성 | 성장 카이로프락틱 개강
포교! 스님의 능력이 경쟁력 입니다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 상
• 스님,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 격
• 초보자 및 실직·정년 퇴직자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6월 7일 (선착순 20명)

● 키크기는 영양(31%), 운동(20%), 환경(16%)등 후천적 요인이 실제 77%를 점하고 있다. 매일의 생활습관으로 거의 80%의 성장 발육 촉진을 시킬 수 있다.
● 키는 골단연골(성장선)이 성장호르몬과 기타 호르몬의 작용으로 골막에서의 영향으로 충분한 혈액을 받아서 성장이 된다. 성장호르몬의 촉진은 20세 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며 성장호르몬촉진 제4스텝 명상법과, 척추 스트레칭, 발육촉진의 식단으로 최대의 성장선 발육을 기대할 수 있다.
● 본원은 귀하를 유능한 운동처방사로 탈바꿈 전국학생 80%의 측만증으로 인한 성장발육장애와 작은키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키크기프로그램으로 여법한 포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 해동체육지도사 2기 부터는 최상의 성장 크리닉을 함께 강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너부터 알라! 너를 끌고 다니는 너부터 믿고 깨달아라!

대구에 계시는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하게 된 것을 더욱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역대 부처님의 마음이나 어디 둘이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과 체가 없어 광대무변한 마음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은 마음 떠나서는 살지 못합니다. 육신이 없으면 무효고 마음내는 게 없으면 목석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이 세상 온갖 법을 다 들이고 내고 하십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따로 있고,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부처님은 법신 응신 화신으로서 응해 주십니다. 모습은 다 각각이지만 마음이 한마음으로 집결돼서 음파가 모두에게 나가는 거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이야 어찌 둘이겠습니까. 전력이 같듯이 말입니다. 전력은 똑같습니다. 가설을 해 놓고 자기 가정의 용도에 따라서 많게든 적게든 끌어 쓰게 돼 있습니다. 그처럼 마음의 법도 역시 크든 작든 자기네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법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계! 우리 몸뚱이의 세포 하나하나에도 가설이 돼 있고 지구에도 가설이 돼 있습니다. 지구에도, 바로 우리 세포에 가설이 돼 있듯이 그렇게 돼 있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무전통신기처럼 전파를 통해서 자연법칙으로서 전체를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법계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변하고 묘해서 마음이 한번 생각을 하면 꽃나무하고도 상통할 수 있고 달나라하고도 상통할 수 있고, 즉 말하자면 은하계하고도 그 근본이 통할 수 있고 태양계하고도 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우주 천체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에 있다는 얘깁니다. 직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만사 살림살이가 전부 우리 마음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끊임없는 진리지요.

그런데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하신다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네 살림살이, 생활을 빼놓고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떠나서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입산해서 수도하는 승려들이 참선을 한다면서 틀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참선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신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와선이나 입선이나 좌선이나 행선이나 즉, 누우나 일어서나 앉으나 일을 하나 그 자체가 전부 참선이란 말입니다. 일하고 앉고 서고 눕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참선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참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참선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 나로부터 일체가 벌어졌다 하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잘못되고 잘되는 것도 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대 성인들이 전부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알라. 너부터 깨달아라. 너를 끌고 다니는 너부터 믿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으로 '하나님이시여! 주여! 부처님이시여! 칠성이시여! 독성님이시여!' 하고 아무리 찾아 봤던들 허공에 헛손질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내 마음의 주인이 있으니, 몸뚱이는 그 주인의 시자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도 여래의 집이 될 수 있고 도량도 여래의 집이 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 마음의 주인에게 맡겨 놓고 지켜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으로부터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면서 살림을 하는 것은 아시죠? 살림을 누가 합니까? 모두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자체의 마음이 마음을 내면, 마음을 내게 하는 것도 바로 그 주인입니다. 나쁜 일도 하게 하고 좋은 일도 하게 하고, 거룩한 일도 하게 하고 배신도 하게 하고, 불덩어리가 올라오게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고, 애고도 생기게 하고 병고도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죠. 그런 걸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몸속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정자 난자를 받아서 내 영혼과 더불어 삼합이 합쳐져서 내가 탄생이 됐는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거기에 집결이 되는 거죠. 인연에 따라서 같이 합쳐집니다. 한 몸 태어나는 데 그것이 전부 들어 있게 되는 거죠. 들어 있되, 작용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자기의 업식대로 부서를 맡아서, 즉 공장이라면 공장을 맡아서, 다 자기 일할 것들을 맡아서 몸속에 들어앉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 중생들은 전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대로 입력이 돼 가지고 그냥 현실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아서 모두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너와 나와 둘이 아닌 한마음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속에 있는 의식들도 다 '아! 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 네가 죽으면 바로 나도 죽는 것이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의 모든 중생들은 다 이 공부를 함으로써 상태가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네 자성을 섬기고 아래로는 몸뚱이 속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게 되면, 그 마음으로 다스리면 보살로 화합니다. 즉 남한테 누가 될 일이라면 '모든 것을 그렇게 안 하게 당신만이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돌려서 놓는 데에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의식, 업보 인과응보 유전성 세균성 영계성까지도 마음으로써 한마음으로 다 뭐 주는 데서 그게 커버가 되고, 앞서 입력돼서 나오던 게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수많은 의식들이 모두 천백억화신으로 다 화한다 이 소립니다. 모든 의식들이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화해서 나투게 되죠. 모든 중생들이 보살로 화해서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고 들면서 가고 옴이 없이 제도를 한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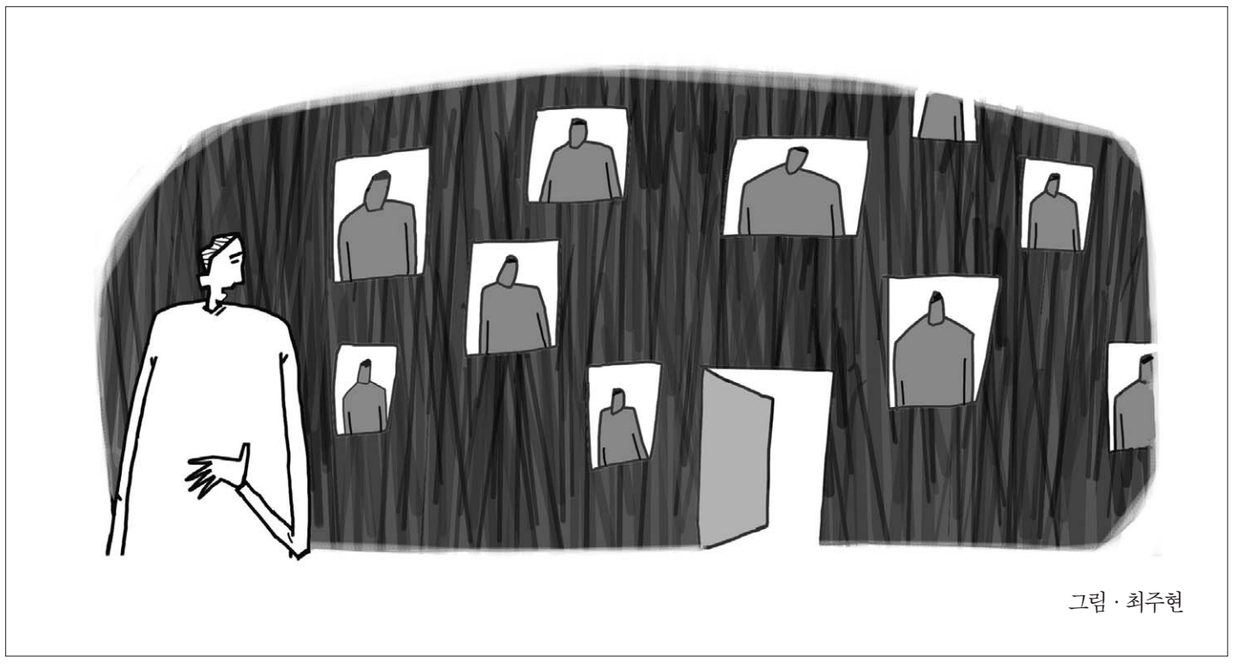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기 대구에 와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참선을 하는 법과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법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법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의심, 의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주인공!' 하고 불러야만 참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면세계의 모든 것이 한마음이고, 들어오는 대로 외부의 모든 것이 한마음이며, 꽃과 날아다니는 것도 모두 함께 통해서 작용을 하고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여튼 전부 통합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한마음'이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이어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한마음인 것입니다. 이 한마음을 딱 한마음으로 세운다면 중심,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란 뭘 뜻하느냐? 우리가 살림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똥 누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정된 것을 하나라도 꼬집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놓고 돌아가시죠? 걸어오면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놓고 오시죠? 그리고 만났다가 헤어졌으면 놓고 가시죠? 봤으면 본 대로 다른 걸 볼 때는 앞서 본 거는 놓고 가시죠? 일거일동 놓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아이구, 내가….' 이러시면서 놓고 가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붙들고 그냥 매달리고 온통 야단들을 하니 그 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구도 시공을 초월해서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돌아가는 이상 모든 게, 천체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한 것도 벌써 과거입니다. (법상을 짚으시며) 이것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체 살림살이가 어찌 고정되게 머물러 있다고 보겠습니까. 머물지 않는 도리로 살고 계시니까, 그렇게 돌아가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대로 돌아가는 불바퀴에다 그냥 넣는 것입니다. 놓는 것입니다. 정신계의 이치를 모르시니까 다시 재차 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는 놓을 것도 없고 안 놓을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관찰하고 지켜본다면 하나하나 실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바깥으로 찾는다고 해서

☞26면으로 계속

화제의 신간
『간화정로』의 저자 '월암 스님'의 또 하나의 대작
이번에는 『돈오선』이다



돈오선이란 자기의 성품이 본래 청정(공)함을 요달하여 번뇌를 보리로, 생사를 열반으로 돌려쓰는 실천행이다.

"한산 월암 閑山 月庵 스님은
1973년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道文 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중국에 유학하여 선학을 연구하고 여러 선종 조정祖庭을 참배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하였다.
지금은 벽송선원에서 선교겸수禪敎兼修, 선농일치禪農一致, 불이선不二禪 운동 등 한국 간화선풍 진작에 노력하고, 그 일환으로 선회禪會를 열고 『간화정로看話正路』를 저술하였다."

글_ 월암月庵 | 499면 | 20,000원

금을 찾기 위해서 광맥을 찾듯이 실참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행체제의 이해와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한 채 수행을 접근하는 것이 선수행자 에게는 가장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 못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국불교의 모순이라고 생각할 때 이번 월암 선사의 돈오선의 저술이 모든 수행자들에게 귀감의 지침이 될 것이다.
– 설정 스님 (덕숭총림 수좌)

돈오선은 조사선과 간화선의 핵심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깊이 다룬 문헌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월암선사가 돈오선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어서 진정견해(眞正見解)를 세우고, 나아가 선문의 화합과 활력을 불어넣어 정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선자(禪者)에게 꼭 권하고 싶은 필독서이다.
– 의정 스님 (상원사 용문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은 지금까지 '돈오'(즉각 깨달음) 이후 '닦음'의 문제로 성철 선사– 보조 국사의 문도들 사이에서 감정적 대립만으로 치달으면서 간과해 버린 논쟁의 역사성과 현실적 맥락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치고 있다.
– 한겨레신문

"그간의 돈– 점 논쟁이 경쟁적이고 소모적이었다."고 반성하며 "다양한 논쟁수행론을 회통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펼친다.
– 불교신문

돈오선의 근원적 가치를 인식할 때 돈점논쟁의 뿌리와 곁가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 현대불교신문



간화정로 看話正路
글 월암月庵 | 512면 | 18,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2198-5151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끊임없는 진리!

☞25면에서 계속

참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는 실천궁행을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다 하나를 딱 맡겼으면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실험이지 다른 게 실험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아하, 이런 거로구나!' 하고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참선입니다. 잘되려고 떡이나 밥이나 해다 놓고 시주를 억만금을 가져다주어도 내 마음 깨닫는 거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공부 하시는 분은 손가락 처맬 거 하나를 갖다가 시주를 한다 하더라도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집 한 채를 팔아서 다 갖다 바쳐도, 만약에 기복으로 하신다면 그건 이익이 하나도 없고 공덕이 없고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뿌리와 나뭇가지와 잎새와 모든 게 한데 어울린 한마음으로 시주를 한다면, 자기 한 것만큼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돌아올 겁니다. 그게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떠나서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고 여러분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아무것도, 뭐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생겨났으니까 애고나 병고나 그 어려운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뒤따르겠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참선을 진짜로 하실 수 있다면 정말이지 불가사의한 법이 이 세상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들의 법이라 이 소립니다. 불가사의한 게 불가사의한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그대로 우리들의 법입니다.

몇 년 전 얘깁니다만, 어떤 사람이 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공부를 하니까 차츰차츰 그 뼈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인체도 개선시킬 수가 있고 마음도 바꿀 수가 있고…, 이 도리는 너무 엄청난, 참 광대무변한 도리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충만히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를 모르시는 것뿐이죠. 지수화풍이 바로 광력 통신력 자력, 이 모두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지수화풍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원력이 있다는 결론이죠. 원력이 있는데도 자기를 중생이라고 낮추고,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낮추고, 또 때로는 '내가 나다' 하고 올리고 이러니까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걱정 하나도 없이 싱긋이 웃으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내 한마음 주인공에, 자기 마음을 끌고 가는 자기 운전수한테 믿고 맡기라는데 세금을 내라니 걱정입니까, 돈을 내라니 걱정입니까? 왜 못합니까? 왜 못 믿습니까? 고깃덩어리인 스님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형상을 믿으라는 것도

참선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 마음의
주인에게 맡겨 놓고
지켜볼 줄 알아야

아니고, 허공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믿으라는데 왜 못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생명, 만물만생이 다 서로 돕고 삽니다. 나무는 공기를 저장했다가 인간에게 보급하고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내놓아서 그 나무들에게 공급해 주어 먹고 살게 하죠. 그렇듯이 사장은 직원을 위해서 직원은 사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회사를 위해서 양면이 다 뛰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게 평등하다 이 소립니다. 서로 주고받고 사니까요.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을 안 하셨다면 한 달 월급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내지 않고 이 공부를 게을리 하신다면 게을리 한 것만큼 월급은 적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꼭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식이든 누구든 한 식구가 아무리 속을 썩이더라도 강압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서는 깡통밖에 못 찬다" 하며 욕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볼 적마다 야단을 하거나 이런다면 빗나가기 십중팔구입니다. 보금자리가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겠죠? 그와 같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거지만 둘째, 셋째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에 불이 들어와야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지,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엇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잠잠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닦달을 해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기를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인간은 물론이고 개미하고도 통하고 바퀴벌레하고도 통하고, 꽃하고도 통하고 날아다니는 새하고도 통하고, 지렁이 하나 곤충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식구하고 통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라는 거 부모라는 거 남편이라는 거 아내라는 거, 이게 가설이다 돼 있으니까 내 스위치 하나 누르면 식구들에게 다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폭넓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불을 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식구가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런다 해도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산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신다면 저 시장바닥에 나가 보거나 이 세상 돌아가는 자체를 잘 보십시오. 모두 끼리끼리 모여서 삽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끼리끼리, 기사는 기사대로 끼리끼리, 공원들은 공원들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삽니다. 또 시장에 가 보면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모두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전부 가설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스위치를 누를 생각은 안 하고 거죽으로 만날 그냥 야단법석을 하는 겁니다. 죽느니 사느니 하고 "이놈아!"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거를 참아 가면서 입으로는 거품을 물고 야단법석이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난 데 부채질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고 '모두가 둘 아니잖아. 아빠의 주인공, 그 마음도 둘이 아니니까 저 마음과 내 마음에 다 같이 불이 들어와서 광명세계를 찾을 수 있는데 괜히 이렇게 야단법석을 했구나. 이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한 철 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싸워야 하나?' 하면서 '그저 둘이 아니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인공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 놓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부드러운 행을 해 주세요. 그럼으로써 잘못 나가던 자식들도 생각을 잘하게 되죠. 그러고는 '아유, 바깥에서는 춥고 배고파도 집에만 들어가면 따뜻해!' 하는 생각에서 고만 다 팽개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음과 마음은 천 리 밖에서도 통하니까요.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니 실험을 해 보세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나가 있는 사람에게 주인공에다가 놓고 한번 전화를 돌려 보세요. (가슴을 짚으시며) 이게 전화통이죠. 내 집에 전화도 놓지 않고 남의 집에 전화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또 남의 집에서 오는 전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내 집부터 전화를 놔야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전화가 놓여 있으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전화를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나갔다가 집에 전화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전화를 하거든요. 이게 통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법인데도 불가사의한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이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단 얘깁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얕은 마음은 좀 올리고 높은 마음은 조금 가라앉히고 하면서 중심에다 놓고 중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멋진 살림살이죠. 이 세상에 아마 그런 꽃은 없을 겁니다. 엊그저께 천안에 있는 소년원에 갔는데 요만한 어린애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열세 살에서부터 스물세 살까지 몇천 명 됩디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니까 상징으로 무궁화꽃 가운데다 횃불을 세워 놓고 비둘기가 양쪽에서 입을 대고 있습디다. 그러니 어느 거 하나를 봐도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연에 따라서 돌아가지 않는 게 없고요. 그게 인연의 법칙이죠. 만남이 있어야 자동적으로 발전도 할 수 있고, 창조력도 기를 수 있고 창조도 해낼 수 있는 거지 만남이 없는데 독불장군으로서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해 놨는데 모두 그 뜻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아요. 연꽃에다 해 놨으면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요, 무궁화꽃에다 해 놓았으면 나라의 법칙이요, 나라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꽃들이 모두 마음의 꽃을 상징한다면 마음을 일으키는 거를 불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불이고 마음의 지혜죠. 전부 둘 아니게 돌아가는 것을 상징해서 입을 마주 대 놨습니다.

모두가 모습은 다를지언정 생명도 둘이 아니요, 마음 또한 둘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 낮은 산이 있으면, 우리가 부를 적에는 낮은 산 높은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본다면, 뒷면을 본다면 낮은 산이 있음으로써 높은 산이라고 불리는 거지 낮은 산이 없는데 어떻게 높은 산이라고 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세계를 서천골이라고 해도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서천골. '서천골의 샘물은 바로, 젖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연결 연결 해서 돌아가니까,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니까요. 지구가 일분 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인간의 삶 자체도 태어나고 죽고 물질도 부서지고 변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상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걸릴 게 있겠습니까.

놓고 관찰하고
지켜본다면
하나하나
실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몇천 년 몇만 년이나 보물을, 재산을 지니고 삽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자식들한테 물려주어도 하루아침의 벗밖에 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주기보다도 마음공부를 하는 데에 그 뿌리를 성성하게 해 주는 것이 제일이며 재산보다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다가 몸뚱이를 벗는다면,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방문 안에서 인사를 하고 바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재물이란 언제나 감춰 두게 마련이니까 나와서 인사나 할 수 있나요? 하하하…. 또 집이 아무리 좋다 한들, 땅을 아무리 많이 사 놨던들 죽어서 갈 때는 대문 안에서 고하고 말죠. 아무리 친한 친구나 자식,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동구 바깥에, 즉 말하자면 묘지나 화장터밖에 안 와 줍니다. 거기서 인사를 고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그 악업 선업들은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게 됩니다. 악한 짓을 했다면 악한 업이, 선한 일을 했다면 선한 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요다음 생에 나와도 역시 또 몸속에 침투해 가지고 또 그렇게 평생 고생을 시켜서, 아주 뭐 그 빚을 톡톡히 갚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마련입니다. 조금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을 벗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몸이 떨어지면 말 잘하던 것도 다 떨어지고 생각하던 것도 다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 자체의 앎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요다음에 또 나와도 대통령으로 나와서 일을 아주 밝고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을 살릴 수도 있고, 큰 회사를 해서 직원들을 다 잘 먹여 살릴 수도 있죠. 모든 게 자기가 산 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가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게 나옵니다. 모두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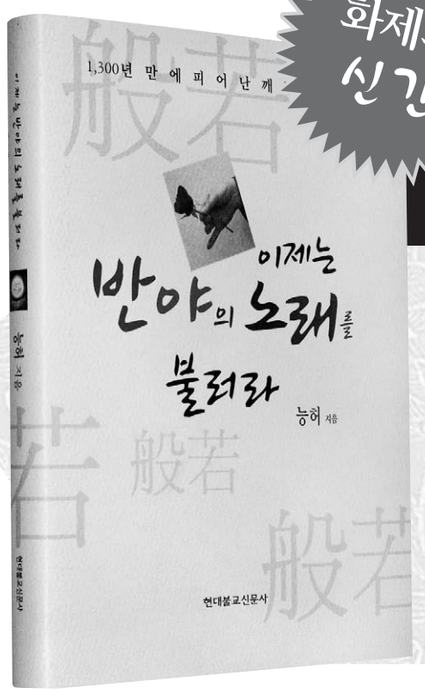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2년 5월 24일 대구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波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화제의 신간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앎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종요로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 법문 중에서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벌렁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림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



불자 세상보기

윤 명 철
동국대 역사학 교수

독도에서 들리는 목탁소리

독도(獨島),

홀로섬인지, 돌섬인지 알 길 없지만 무릉도(武陵島) 삼봉도(三峯島) 자산도(子山島) 간산도(干山島) 등의 이름들로 불리고, 일본에서 부르는 이름도 있으니 그다지 외로운 느낌은 안 든다.

21세기는 해양의 세기이다.

1994년 이후에는 바다도 영토개념이 적용되었다. 더구나 해양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막대한 자원들이 발견되고 있어, 꼭 석유만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 뭍에서도 한 치의 땅을 더 차지할까 싶어 때로는 살육전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이제 바다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단 말인가?

그래서인지 동아지중해의 해역에서는 EEZ(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직선기선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지고, 센카쿠(釣漁島)제도, 북방 4개 도서, 시사(西沙)군도 난사(南沙)군도 등에서 해양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물론 독도는 우리 영토이므로 분쟁지역은 아니다. 다만 일본이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하는 1단계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깊어질 뿐이다. 일본은 세계 5위의 해양영토대국이 되었고, 중국과 더불어 해군력을 증강시키면서 '남해대전(南海大戰)'이라는 가상시나리오가 유포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한편 인천 부산 코오베 상하이 선전 등이 동아시아의 물류거점으로 부상하기 위해 사활 건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해양을 놓고 경쟁과 협력이 있어왔다. 지중해적인 성격을 지닌 동아시아에서는 해양력을 강화시켜야 국가가 발전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억압받지 않았다. 특히 동아지중해의 중핵에 위치한 우리는 해양력을 강화시키고 국가발전의 주요정책으로 삼았을 때 발전했고,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주도했다. 전성기의 고구려 백제가 그러했고, 통일신라시대의 장보고 또한 마찬가지였다. 발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해동성국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송나라와 교류할 때의 고려시대는 해상무역의 눈부신 전성기였다.

동해는 우리가 일본열도로 진출하고 교류하는데 활용한 터였으며, 그 가운데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었다. 이미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동해 북부나 연해주해역을 출항하여 동해를 항해하거나 일본열도로 건너갈 때 울릉도 독도는 사용되었다. 신라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에서 보이듯 동해남부의 포항 울산 감포 등의 항구를 출항해서 혼슈남단의 시마네현 돗토리현 등에 도착했다. 그때 항법상으로 보아 울릉도 독도를 최대한 활용해야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구려나 발해 또한 마찬가지로 동해중부나 북부의 해안에서 출항하면 망망대해 가운데의 울릉도와 독도를 중간거점 또는 항해상의 물표로 삼아 일본열도의 후꾸이(福井)현, 이시가와(石川)현 등의 해안에 상륙했다. 이뿐 아니라 훗날에는 여진 해적들이 울릉도에 침범하였고, 대마도나 일본어부들도 때때로 잠깐씩 피항했었다.

그러니 이 모자(母子)섬은 역사 이래 늘 망망한 대해에서 뱃길을 안내해주는 등대요, 파도와 추위에 지친 항해자들을 품어주고 먹여주는 피난처이며,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모험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꿈의 섬이었다. 다만 조선시대의 한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독도(獨島)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21세기 세계화(globalization)가 비자발적으로 강요되고,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면서 주도권 쟁탈이 본격화되고, 그 중심에 일본이 있다. 일찍부터 해양의 중요성을 절감한 그들은 이미 16세기에 동남아지역에 진출했고, 19세기 말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해전에서 격파한 후에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독도에 관한 권한을 빼앗으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 그렇다면 지금 '독도문제'의 본질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독도는 또 한 번 우리 역사에서 시금석이 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대는 왜색의 남동풍에 휘둘리는 독도에서 역사의 목탁 소리를 들어본다.

"절대 포기하지마!"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⑥5 격려는 정신적 산소

힘겨운 시험

30대 중반의 그 부사관은 상당히 마르고 키도 작은 편이었다. 특이한 점은 그의 얼굴에 싱글벙글 시종일관 미소가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군 생활이 힘들진 않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물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원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한다. 그에게는 오늘의 그를 만들어 준 은인이 있었다.

"사실 부사관 시험에 합격을 못할 뻔 했어요. 지금도 좀 왜소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말랐었어요. 남자 몸무게가 48㎏밖에 안 되었으니 상상이 되시겠죠? 체력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사관의 길을 택했다. 아니, 꼭 합격해야만 했다. 간부들이 처음 보고는 "할 수 있겠나? 건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하였다. "괜찮습니다!" 그는 열심히 했다. 그러나 역시 체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훈련과정이 너무 힘이 들었다. 숨이 차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키까지 작아 남보다 두 배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도저히 못 따라가 쓰러진 적도 있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이를 악물고 하였다. 너무 열심인 그를 보고 간부들도 더 이상 뭐라 하지는 않았다.

이제 시험 패스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완전군장을 하고 00㎞를 뛰는 것이었다. 다른 동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에게는 제일 두려운 일이었다. 우선 군장의 무게만으로도 자신의 체격에는 큰 부담이었다. 그런데 그걸 지고 그 먼 길을 뛰어야한다니.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하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또 서글퍼졌다. 그래도 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정신차려! 넌 할 수 있어,

드디어 출발, 햇볕은 왜 그렇게 뜨거운지 몇 분이 흘렀는데 벌써 땀으로 범벅이 되고 있었다. 그는 서서히 호흡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어깨가 무거워졌다. 짐이 온몸을 누르는 것 같았다. 또 10m, 10m. 힘이 빠지면서 다리도 조금씩 후들거렸다.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심장은 터질 듯이 숨이 찼다. 그렇게 몇 분을 더 가자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래,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았다. '그래, 포기하자' 하고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다.

"야, 정신 똑바로 못 차려! 넌 할 수 있어!" 하는 소리가 벼락처럼 귀를 때렸다. 깜짝 놀라보니 어느 새 훈련담당인 여성 중위가 옆에서 같이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위는 엄한 표정으로 "너 그러고도 남자냐! 이걸 못 해! 할 수 있어!" 하고 소리 질렀다. 갑자기 얼어붙는 것처럼 놀란 그는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뛰었다. 그 여성중위도 계속 옆에서 뛰고 있었다. 잠시 후 또 온 몸이 탈진할 것 같았다. 다리가 휘청하였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순간 또다시 "정신 차려! 힘 내!" 하고 중위가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는 그 말에 따뜻함이 실려 왔다. "절대 포기하지 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중위의 말이 무슨 광선에너지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갑자기 온 몸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 이 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일부러 옆에서 뛰어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자 감사한 마음이 물밀듯 올라왔다. 중위는 계속 옆에서 그를 격려하였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힘들어도 하는 거야! 여자인 나도 하는데 네가 못해!" 중위는 끝까지 그의 옆에 바짝 붙어 뛰어 주었다.

정신적 산소

그는 어느 새 힘든 것을 잊고 있었다. 몸은 분명히 천근만근 무거운데 마음은 따뜻한 힘이 감싸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보잘 것 없는 나를 위해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뛰며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여자간부가 말입니다." 그는 몇 번이나 쓰러질 뻔 하다 정신을 차려 결국 완주해 낼 수 있었다. 중위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냈어요" 하고 말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 부사관이 된 그는 힘없는 자기를 믿어준, 옆에서 같이 뛰어 준 중위를 본받아 자기도 병사들에게 믿음과 격려, 도움을 열심히 주고 있다고 했다. 그 중위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다른 병사들에게 잘 해줘. 너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말이야"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 그토록 미소가 가득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이 힘들 때 받은 격려의 힘을 이제 다른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서 진실한 마음을 느껴 본 사람의 밝은 빛이 충만해 보였다. "사랑보다 깊은 것이 자비"라는 법어가 떠올랐다.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믿음과 격려를 받는다면 맑은 산소를 마시는 것과 같이 생명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오늘 자비의 마음으로 정신적 산소를 공급해 보면 어떨까 싶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아사자 속출 북한에 자비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이다. 작년과 재작년 연이은 자연재해로 곡물 수확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는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300만 톤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수확량인 370만 톤 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이 같은 자료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심각하게 봉착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탈북자는 날마다 아사자가 속출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다. 또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도 한 매체에서 현재의 북한 아사자 속출 상황을 전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수시로 침범하는 등 대남 압박을 하고 있다. 그 속사정이야 뭐가 됐든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인해 불교계의 대북 교류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점은 문제다. 굶주림에 죽어가는 동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활발한 인도적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죄악에 편승하는 기분인 것이다.

서울 봉은사 신도회의 경우 5월 23일 통일문제연구소(소장 백기완)에 1000만 원의 북녘동포돕기 쌀 지원금을 전달했다. 불자다운 아름다운 불사다. 그간 불교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 왔다. 북이 빗장을 풀고 문만 열면 그러한 지원은 얼마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식량지원 문제는 좌우를 가리기 보다는 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명존중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대북교류 창구들이 하루빨리 열리어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지원과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길 기원한다.

"법난은 계속되고 있는가?"

지난해 10·27법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에서 보상과 명예회복 등 핵심 사항을 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8년 전의 법난에 대한 역사적인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또 하나의 법난을 야기하는 듯 한 인상이다.

조계종 10·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5월 22일 국방부를 방문, 김종천 차관에게 강하게 항의한 내용들을 보면 이미 특별법 제정 시기에 거론됐던 세부적인 사안들이다. 추진위는 10·27 관련 위원회에 불교계 인사 참여, 의문 해결을 위한 활동 보장, 역사관 건립, 추모단체 지원 등 활동사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당시 피해를 입은 스님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기능적 강화 등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추진위의 요구는 10·27 법난이 새롭게 정의되고 정당하게 규명되어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내용이 불성실하게 답기는 시행령이라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김종천 차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더 협의해 좋은 시행령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지만, 모법(母法)의 정신을 확실하게 구현할 시행령의 제정을 위해서는 불교계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27 법난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역사라는 점을 불교계와 정부 관련 기관이 함께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 개원 및 종무원장 혜봉스님 취임법회

감사의 인사 말씀

귀의삼보하오며
사부대중의 법체 청안하심을 늘 기원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는 지난 5월 20일 개원법회 및 종무원장 혜봉스님 취임법회를 여법하게 봉행함과 아울러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임석하시어 축하의 말씀을 주신 대덕스님들과, 축전 화환 화분으로 축하해 주신 종도 및 내외빈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운 포부와 각오로 출발하는 저희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은 종도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수행과 포교에 있어 일취월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의당 직접 찾아 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마땅한 일이나, 우선 지면으로 가름하오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무원장	혜봉(원통사)	원로위원	법달(원각사)
총무국장	지공(보현사)	종회의장	혜주(법주사)
교무국장	진학(연곡사)	종회부의장	원경(신계사)
사회국장	선덕(옥수사)	종회의원	승윤(옥정사)
규정국장	대원(일타암)		성범(지장암)
교임국장	지원(대성사)		도일(금선사)
서무과장	이상희	사정원장	충례(영명사)
		교육위원장	법은(무량사)
		포교위원장	대원(삼성암)

종도일동 합장

불기 2552(2008)년 5월 21일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종무원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 2층 TEL 054)762-5888 FAX 054)762-5889